



2000 **1 2** vol. 380

칼럼______ 한국건축단체연합회(가칭)에 대하여

e :

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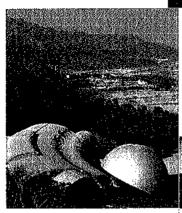
특집 좌담 : 건축경기불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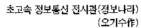
작품리뷰 초고속 정보통신 전시관(정보나라)

해외건축____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5)

7 1 , * + _ ^ }

차례 2000 12 380호





발행인: 이외구 편집인: 서천식

편찬분과위원회 : 위원장 / 장양순

위 원 / 김정희, 김홍수, 유원재, 조현군, 최동규

편집 · 취재 : 정효상, 조한국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hkjo@kjra,or.kr hsjoung@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유상태/천풍전산인쇄

광고: (주)한마당21 (02)702-1871~2

Publisher: Lee Eui-Koo
Editor: Seo Cheon-Shik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rn Joung-Hwoe, Kirn Heung-

Sao, Yoo Won-Jai,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D.C: 69/72(054-2): 0612(519)

Printer: You Sang-Tae (Cheon Poong Printing Co.)

į			
	한국건축단체연합회(가칭)에 대하여	이판영	8
시뽄	건축설계시무소의 위기극복방안	최찬환	10
특집	좌담 : 건축경기불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5
작품리뷰 / 초고	속 정보통신 전시관(정보나라)	오기수+김상식	32
	대담 : 알·파장, 그 0[미지의 표현	이영수	42
	비평 : 입자와 파동	양상현	46
회원작품	문호리주택	임재용	50
	연합철강 빌딩	김자호 · 오동회	54
	동양 파인크리 컨트리 클럽하우스	이상현	58
	철 박 물 관	이경훈+김우영	62
	발펙스코리아 평택공장	김희진	65
	바이오시스 공장	김상경	68
작품노트	백범 기념관	김춘배	70
보고서	UIA 실무용역 위원회(PPC) 참관기	이근창	73
기고	아이엠에프와 기타	김인환	76
	풍수지리로 분석한 뉴욕의 명당(2)	박시의	79
	내역 입찰제도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이 복 남	87
해외건축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5)	 한 동수	91
건축만평	*****	유원재	98
건축마당	협회소식	···	99
	건축계소식		_101
	현상설계		104
	해외잡지동향		110
	회원현황		115
	통계(2000년도 10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116
	툇미루		118

Contents Vol. 380 December 2000

FIKA: Federation of In	stitutes of Korean Architects	Lee Kwan-Young	8
Focus		9	
	Over the Crisis of Architectural Firms	Choi Chan-Hwan	10
Special Issue			
How to Get Over the Co	urrent Stagnation of Construction Indust	tr y	15
Review / Super High	way Telecommunication Center	Oh Ki-Soo + Kim Sang-Sik	32
interview Ball &	Wavelength and Expression of its Image	Lee Young-Soo	42
critique Partic	ele and Undulation	Yang Sang-Hyun	46
Works	NAME OF THE PROPERTY OF THE PR		
Wi - Residence		Lim Jae-Yong	50
Union Steel Building		Kim Ja-Ho & Oh Dong-Hee	54
Dongyang Pine Creek	Country Clubhouse	Lee Sang-Hyun	58
M.O.S.A.(Museum of Steel Arts)		Lee Gyeong-Hoon & Kim Woo-Young	62
Valex Korea of Pyeongtaek		Kim Hee-Jin	65
Biosys Factory		Kim Sang-Kyung	68
Design Note			
Baek Bum Memorial	Hall	Kim Choon-Bae	70
Report			
Report of 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	Lee Geun-Chang	73
Feature			
Guitar and I.M.F	Kim In-Hwan	76	
Propitious Sites of Nev	v York According to Feng-shui (2)	Park Si-Ik	79
Detail-Estimate Biddi	Lee Bok-Nam	87	
of Domestic Compani	es		
Overseas Architectus	re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Wonrim		Han Dong-Soo	91
Architecture of China (5	}		
Cartoon		Yoo Won-Jai	98
Architects' Plaza			
KIRA News			_99
Archi-Net			_101
Competition			_104
Overseas Journal			_110
Members			_115
Statistics			_116
Bulletin board			_118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1~4

강남구건축사회/617-9071 - 강동구건축시회/484-6840 - 강북 구간축시회/903-3425 - 강시구간육시회/604-7168 - 관약구건 축사회/864-6928 - 노원구건축시회/933-6076 - 동대문건축시회 /923-6213 - 동작구건축시회/933-6076 - 동대문건축시회 /933-6251 - 서대문구건축시회/933-6411 - 서초구건축시회 /933-5251 - 서대문구건축시회/939-6411 - 서초구건축시회 /34/4-(6100 - 성북구건축시회/922-5117 - 송바구건축시회 /423-9158 - 양찬구건축시회/922-5117 - 송바구건축시회 /386-1486 - 양찬구건축시회/737-3030 - 중구건축시회/231-5748 - 충망구건축시회/437-3900 - 도봉구건축시회/231-5748 - 충망구건축시회/437-3900 - 도봉구건축시회/990-8720 - 성동구건축시회/292-5855 - 궁천구건축시회/859-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시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교양자 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584 59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찬지역건축사회/(031)565-2337 · 부찬지역건축사회/(031)684-1554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6 5445 · 수원 자역건축사회/(031)694-4121 · 안산건축사회/(031)460-2130 · 안양지역 건축사회/(031)449-2698 · 의장부지역건축사회/(031)5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1)5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1)375-8646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5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6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55-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6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55-6149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룡지역건축사회(033)652-C126·삼척지역건축사회 (033)531-8706·숙초지역건축사회(033)63-8163·왕월시역 건축사화(033)374-2659·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

청우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목천지역건축사회 /(043)732-5752 · 재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추 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경지역건축사회 /(041)834-3367 · 부여시역건축사회/(041)635-2217 · 서산 지역건축시회/(041)681-4265 · 찬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충상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 /(08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리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록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전시역건축사회 /(061)743-2457 - 개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준 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4)744·7800~2

경산자역건축사회/(054)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837~8 · 김 전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운경지역검축사회 /(054)553-1412 · 성주지역건축사회/(054)505-0975 · 인동 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680 · 영춘지역건축시회/(054)334-8256 · 철목지역건축사회/(054)854/(054)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세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청지역건축사회 /(055)3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24 - 미청지 역건축시회/(055)245-3737 - 일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시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 /(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41-6403 - 진해 시건축시회/(055)544 7744 - 통명지역건축사회/(055)641-450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궤포지역건축시회/(084)733-5501

한국건축단체연합회(가칭)에 대하여

FIKA: 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

이관영 / 본 협회 이사, (주)한인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Young

WTO에 의한 건축설계서비스업무의 자유화에 따라 건축시자격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문제가 대 두되고, 이를 위한 기준으로서 (건축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권장기준에 관한 UIA협정)이 1999년 6월 북경 UIA 대회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러, 우리나라 건축사 제도도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그간 학 계에서 오랫동안 추진되어오던 건축교육제도의 개선노력과 궤를 같이하여 빠른 속도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러 한 연구는 각 단체와 교육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해온 것 외에도, 본 협회에서 실시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 한 대응전략, 1997. 2)과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다른 대응방안, 1999. 9)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건설교통 부가 주관하고 본협회와 건축가협회 및 건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1999.12)등의 결과를 통하여 발표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제도의 개편이 진 행되고 있으며, 건축사 시험제도에 관한 법률개정과 새로운 시험형태에 따른 출제방식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바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건축교육의 서구화나 미국일변도의 제도개선에 그 본질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까지나 세계수준과 동등한 건축교육제도와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 요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와 연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작 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부는 물론 건축관련 단체 모두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건축사제도 개선)이 건축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실정상 건축교육과 행정면에서의 협력 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미 오래전부터 (건축3단체(협회, 가협회,학회))는 (건축3 단체 협의회), 혹은 (건축3단체 국제교류협의회)등을 통하여 협조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느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건축관련단체협의회(FIKA)이다.

협회의 UIA가입신청과 ad hoc body, 그리고 ad hoc body와 FIKA: 협회는 격변하는 건축계 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정식회원단체로서 UIA활동에 직접참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1999년 6월 (UIA)회원기업을 신청하였다. 우리의 기업신청에 대하여 1999년 11월 UIA는 (기능하면 두단체가 공동참여하는 공동기구(ad hoc body)를 구성하여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고, 양 단체는 이를 받아들여 2000년 5 월에 ad hoc body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단체를 대표하는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ad hoc body의 구 체적인 구성을 논의하게 되었고, 명실상부한 한국건축계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확대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 을 FIKA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은 즉각 UIA에 통보되었고, 2000년 6월 시드니에서 열린 UIA 이사회에 서 정식으로 ad hoc body(FIKA)에 의한 가입을 승인 받았다. 그 후 세부절차에 대한 각 단체 내부의견의 조율 등 으로 사무국의 구성이 지연되어 오던 중 건축학회가 참여를 희망하게 되었으며, 비로서 3단체에 의한 FIKA의 구성 이 구체화 되기에 이르렀다. 본 협회의 입장은 당초 ad hoc body의 구성을 위한 양 단체간의 논의에서 합의된 순 서에 따라, 타 건축관련 단체에게 가입을 위한 문호를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우선 양단체만으로 FIKA를 구성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위에서와 같은 사정으로 FIKA의 구성이 지연되게 되자, 자연스럽게 건축학회가 FIKA의 창립멤버로 서 논의에 참여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국내외 건축계의 변화에 3단체가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서

로 협력해야 한다는 명분에도 합당한 일이다. 현재 FIKA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 즉 사무국의 구성, 위치, 예산, 각 협 회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FIKA 구성을 위한 실무위원회)에 의하여 진행중이며 조속한 시간인에 마무리 뵐 것이다. 참고로 실무위원회는 당초에 가협회(최관영, 조성중,김영섭)와 본 협회(김지덕, 이관영,이근창)의 양단체로 출발하였 으나, 뒤에 학회가 가입의사를 밝힘에 따라 학회(이현우, 임창복, 최찬환)를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FIKA가 한 일과 해야할 일: 비록 정식으로 탄생을 선포하는 의식은 갖지 않았다 하나, FIKA의 구성을 위한 실무혐의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벌써 3단체간의 공조에 따른 (밝은 조점)이 보이고 있다. 멀리로는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건축사 시험문제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국제 회의에서의 공동보조, 정책제안에 대한 3단체간의 의 견교류 등 전례없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련정부기관인 건설교통부가 이러한 (범 건축적인 협의 기구)의 발족을 반가워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입안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는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앞으로 FIKA가 해야할 일은 많다. WTO 및 UIA협점과 관련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가 나왔다. 하나, 그 내용은 겨우 frame-work의 수준일 뿐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하는 연구가 뒤따 라야 한다. 교육제도가 그렇고, 인증원의 설립 및 인증 행위, 건축사 인턴과정을 위한 제도와 기구의 마련, 시험제도와 출제방식 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건축사 등록제도의 개선, 건축사에 대한 계속교육의 실시, 설계입찰방식에 대한 연구, 제도개선을 뒷받 침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연구,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건축사위원회의 구성 등, 실로 산적한 문제들을 떠안아야 한다.

FIKA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필요한 시항: FIKA가 정식구성되기 위하여는 먼저 필요한 정관(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대강 기구의 명칭, 시무국의 위치, 조직의 구성, 회장 및 임직원의 권한과 의무, 선출 방법, 의결 결 정 방법, 재정, 그리고 3단체간의 역할 분담(업무분담과 재정 분담,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 들이다. 일부 문제 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논의를 마친 상태이다. 다만 재정분담과 역할분담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 히 FIKA의 막중한 업무로 볼 때 재정부분이 제일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더구나 전례없이 설계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 이 때, 막대한 재정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물론 FIKA의 업무가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에 있다는 명 분으로 볼 때, 위에 열거한 제도연구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도 요구할 생각이다. 또한 역할분담에 있어서도 모든 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역할 분담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책임과 의무 또한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전문일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각 단체 모두 일련의 제도개선문제에 관한한 제한된 인물만이 독점하다시피 참 여하고 있다. 이는 그 인물의 지식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반대로 그 직책이 탐이나서도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부득이한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능력이라는게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전문성이 결여되기도 하고, 때로는 과중한 희생을 강요받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다. 전문적인 지식과 인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회원 각자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 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참여는 '주로 자원봉사(Volunteer)에 의하기 마련인데, 경제적인 여건과 샤태에 대한 무관심 때 문에 자원하는 인력이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FIKA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어도 10년여의 긴 시간을 두고 해 결해야 할 문제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력의 확보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련단체와 회원의 각오: 이상으로 FIKA의 탄생경위와 임무, 실무회의의 경과를 소개하였다. 계획대로라면, FIKA의 임무는 막중하며, 우리나라 건축계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해 나가자 면,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단체 나름대로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막연한 기득권)에 대한 미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까지의 경험은, 무엇보다 건축계가 힘을 합쳐 꽁동대처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단체는 물론 각 단체의 회원, 특히 건축사 개개인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협회활동에의 참여는 자원봉사적 입장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모든 일을 협회 집행부나 일부 자원봉사자에게 떠맡겨 서는 곤란하다. 스스로 협회의 주인이 되어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젊은 건축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실 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협회의 앞날이 매우 희망적임을 보여주는 듯하여 매우 반가운 일이라 생각된다. 🖺

건축설계시무소의 위기극복방안

The Strategy of Tides Over the Crisis of Architectural Firms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by Choi Chan-Hwan

건설업 현황과 전망

IMF이후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한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IMF전 1인당 국민소득 1만 6000달 러(95년 10,037달러, 96년 10,543달러)에서 98년에는 8년 수준인 6,400달러(91년) 수준으로 떨어진 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 기업의 불안과 구조조정이 계속되어야 하고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 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SOC사업 등 공공투자의 비중이 큰 토목분야와는 달리 민간부분의 투자가 중요한 건축분야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상승과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축분야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 지 않아 소규모 건축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건설마저 미분양이 속출하여 어려움을 더하고 있으며 전망도 불투명하고 뚜렷한 대책도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건설은 건설회사가 주도하여 왔는데 주택보급률의 향상(95% 수준), 과밀개발과 난개발 방지 를 위해서 그리고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정책대안인 용적률 축소는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주택 재개발 · 재건축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건설업에 대한 몇 가지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건설업의 현황을 알 수 있다.

	97년	98년	99년	2000년 10월
국내 총 수주액	79조 9000억	47조 9000억	51조 1000억	43조 790억
GDP 대비 건설업 비중(%)	22.2	20.9	17.4	
매출액 순이익률(%)	-0.8	-3.4	-14.9	
부채비율(%)	569.3	437.7	605.9	
일반건설업체 수(개)	3,900	4,208	5,155	6,882 / 7,715(11월)
전문건설업체 수(개)	23,925	25,793	29,704	31,643
일반건설업체의 평균 수주액(역원)	205	114	99	63

(자료: 대한건설협회, 동아일보 2000.11.23)

건설업이 국가 경제 총생산의 20%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고 전체산업에 미치는 연관성이나 파급승수 효과가 클 뿐 아니라 고급기술인력에서부터 일용직에 이로 기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져 고용효과가 매우 크다.(매년 약 200만명 정도 취업)

그러나 국내 총 수주액이 IMF전에 비해 절 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순수익률을 보면 엄청난 적자를 보이 며 부채비율도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214.7%)의 2.8배 규 모로서 기업경쟁력, 미래 수익창출 능력 등의 여러 지표들 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 수주의 감소, 건설업체 수의 증가 (10년간 8배 증가), 국내 건설물량 감소(10년간 2배 증가) 및 최근 3년간 대폭 감소)와 과도한 금융규제로 인한 수익성 약화(-14.9%), 치열한 수주전과 과당경쟁 그리고 입찰방법 등에 따른 덤핑수주로 평균 낙찰가가 예정가격의 73% 수준으로 공사원가에도 못 미쳐 공사손실과 함께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부실공사의 부담을 져야 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건설업 전체가 불황의 높에 빠져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것은 쉽게 파악되고 있다.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가 부도, 도산, 법정관리 등으로 무너졌고, 언제 퇴출될 지 알 수 없는 생존투쟁을 하고 있으며, 치열한 수주전으로는 소규모 건설공사입찰에 100-200개업체가 응찰하기 일수이다.

얼마 전까지 1원짜리 건설감리용역도 빈번 하였으며 실태 조사결과 자본금 3억원, 건설기술자 3인을 고용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전체의 30%를 넘는 966개사, 법인 이름만 다른 실질적 중복회사는 10%에 가 까운 634개사, 공사실적이 전무하고 사무실도 없는 휴대폰 회사가 681개사, 수주를 위해 임시로 설립하는 회사가 3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실공사의 방지와 등록제에 따른 등록난립업체의 정리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내년까지 약 2,500개의 건설업체가 등록말소 · 영업정지처분 등으로 퇴출시킬 방침이며 전체의 20% 정도는 면허를 반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계사무소에 비해 회사규모, 자본력 등에서 앞서는 건설회사가 이와 같은 현황일진데 설계사무소는 확실한 통계 근거가 없는 상황이나 건설회사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건설회사는 IMF이후계속 공사가 있어 그나마 몇 년을 버티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 불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용역회사인 건축설계

사무소는 IMF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위기적 상황이다.

건축설계사무소의 현황

건축설계사무소는 JMF이후 계속적으로 극 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의식은 물론 이제 생존의 갈 링길에 서있다.

우선 부동산시장, 임대시장,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민간건축 일감이 없고, 시장경제 원리와 경쟁논리에 따른 건축설계용역 보수요율의 폐지는 무한가격경쟁으로 덤핑을 부추기며 건축전문인력의 대량배출은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

외부의 경제 · 사회적 여러 환경변화에 대처하지도 못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내우와환의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설계시무소의 구조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일감이 없는 설계시무소는 실질적 퇴출이나 마찬가지이며, 예외 없이 모든 설계시무소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것이 쉽게 개선 될 여지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설계사무소가 옛날의 영광을 회상하며 그 시절이 좋았고 곧 그날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수와 망상일 뿐이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의식전환 그리고 세심한 대용책을 마련하여 단합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계사무소의 위기극복 방안

국가경제와 건설업계가 어려움 속을 탈출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설계사무소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설계사무소가 발상의 전환이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외부환경여건이 나아진다 하여도 현황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현황의 문제를 중심으로 위기국복 방안 내지는 생존전략을 크게 몇 가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전문화

설계업무도 매우 다양한 전문분이가 있다. 업무영역의 특화, 전문화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업체 상 호간 협력체제가 강화 되어 불필요한 과잉경쟁이 줄어들며, 경쟁력이 강화되고 업역의 확대가 이루어진 다.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다'는 말처럼 건축사라 하여 모든 건축물을 전문성 과 경쟁력을 가지고 설계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특수한 용도의 건축물이 많고, 이 들 용도에 따라 전문화하는 방법이 있다. 병원, 공항, 호텔, 도서관, 박물관, 학교, 백화점, 공연장, 종교건축, 공장, 풀 랜트 등의 특수한 건축물의 전문화는 물론 주 거, 업무 등 모든 건축물의 전문화가 필 요하다.

의사가 전문화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며, 효율 증대 와 업역 확대, Knowhow의 축적이 가능 하다.

전문음식점은 맛있는 한두 가지 특성화 된 음식점으로 유명해지며 대형화되나 길거리의 조그마한 식 당에서는 수많은 음식이 메뉴판을 채우지만 몇 좌석이 안 되는 식탁과 조그마한 간이 주방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달 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단거리와 중거리 그리고 마라톤에 따 라 전문화되어 있고 운동경기에도 선수들의 자질과 기량에 따라 포지션이 정해진다.

설계사무소도 전문화를 해야한다. 우선 생 각하기에는 일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화가 업역의 확대, 업 무람의 증가, 효율화, 경쟁력 강화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필수적이므로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고 빠를수록 좋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일찍 대비하였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2) 고유업역의 정립과 충실화

건축설계사무소의 업무는 건설과정에서 대 부분 설계, 감리가 주종을 이루며, 감리전문회사가 별도로 있으므로 설계에 치중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건물 에 대한 설계를 하며, 제한된 업무의 범위에서 치열한 경쟁 을 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다.

건설과정에서 기획, 타당성조사, 계획, 설 계, 감리, 시공, 운영유지관리, 진단, 평가, 종합 컨설팅 등 많은 분야가 있으며, 이를 개별적, 단속적으로 시행하여 왔 으나 이제는 종합적, 연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소 위 고객중심의 일괄계약제도(One Stop Service)를 원함 에 따라 건설회사도 단순시공 위주에서 종합건설업(CM)으 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건축설계분야의 전문화와 상반된다는 점을 거론한 바 있으나 전문화의 한 방법으로 고객중심의 패키지(Package)화는 당연한 추세이 기도 하다. 외부적으로는 단순하고도 종합적인 창구를 가져. 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전문화와 공조 내지는 협업 체제를 가져야 한다.

이제 음식을 취향에 따라 골라 선택하던 풍 요의 시대는 끝났고 생존을 위해 음식을 찾아가야 할 급박 한 상황에 있다. 이제 일감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홍보함 으로서 고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때이다. 개발적지를 찾아 가장 효용성 있고, 사업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건축 주를 이해 · 설득하여 설계를 해야 할 처지이다. 옛날처럼 건축주가 기획하고 사업성을 검토한 후 건축설계만을 의뢰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건설과정에서 건축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전 문분야로 참여하여 설계 일감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앉 아서 설계 일감이 의뢰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건축사의 업무도 다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골라서 먹겠다 는 생각을 버리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전문화를 꾀하면서. 필요한 업무분야는 상호 · 협력하여 일관된 체계를 갖추면 된다고 본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근년에 새로운 업무가 늘어가고 있다. 건축사는 설 계, 감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일거리를 만들고 충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문성 없이 설계, 감리 분 야만 볼두하다 보니 해야 할 많은 분야가 별개의 업무로 떨 어져 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수용도 안되어 있 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업무 범위보다도 새로운 분야가 많이 있음에도 이를 한정화 시키 는데 큰 걸림돌이 있다.

도시설계, 상세계획(지구단위계획), 지역계 획, 재개발 · 재건축 등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넓혀지고 있음 에도 업무가 한정화 되어있다는 인식과 이를 뒷받침하여야 하는 법ㆍ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3) 국민 봉사업무

모든 것은 국민 가운데 그 필요성을 인정받 고 평가받아야 한다. 철저한 공익 봉사정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축설계가 국민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분야 는 설자리가 없다. 우리 건축인은 정말로 봉공멸사의 정신 으로 많은 국민의 편의와 재산을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서민주택도 대규모 건축물보다 보기 에 따라서는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설계가 대규 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특정한 소수의 건축주를 상 대하게 되고 다수의 일반국민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지배 적일 수 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업계의 무관 심이 큰 문제이다. 소규모 건축물이 모여 도시환경을 만드 는 것이므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 여 이를 설계, 감리, 시공하는 것을 전문분야에서 등한시하 고 있으며, 어쩌면 대형, 물랑주의를 쫓아다니는 오늘날의 폐해로 보여진다.

그렇게 하다보니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줄어들어 누구나 설계할 수 있다는 신고대 상의 확대가 규제완화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연면적 330㎡이하의 주택은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고 있 는 점은 일반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와는 상충되고 있다.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해 세율상 17배 의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급주택이 되어야 전문 성 있는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 큰 것은 좋고 작은 것은 보잘 것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에도 전문가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며 전문성 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반서만의 건축행위가 건축 설계분야의 큰 관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반 국민에게 소외된 직종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설계분야의 직업인식과 정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어촌주택, 영세민주택, 소규모 창고, 공중 변소 등도 비록 설계비는 보잘 것 없지만 모든 것을 알뜰하 게 챙기며 보람을 찾아야 할 때이다. 적은 것은 보다 아름답 고,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설계분야가 일반서민의 건축에 관계되지 않 는다면 설자리가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 서 누구나 설계하는 건축신고제의 확대는 재고해야 할 때이 며, 규제완화와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하며 서민들의 재 산권 보호와 국가의 자원관리를 위해서 전문가 참여는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4) 업무의 효율화

업무 효율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 문성이 있어야 한다. 업무의 중복을 없애고 기존의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자료의 Full제 활용방안을 강구함으로 서 업무를 단순화하고 업무의 제휴, 협력체제 그리고 공동 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함으로서 탄력성 있는 경영과 내 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업무는 유동적인데 인력이 고정적 이면 비효율적이며 대응능력이 없다.

설계사무소의 종합화와 고정인력 배치는 결 코 바람직하지 않다. 설계사무소의 자체 업무를 분담 처리 한다는 명목으로 구조, 설비, 조경, 토목 등 연관 분야가 한 지붕 밑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이며 편하다는 생각 에서 우선은 좋게 보이겠지만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결코 좋 다고만 볼 수는 없다.(재벌의 폐해와 유사)

구조. 설비, 전기 등 관련 분야와의 전문성 을 살리면서 제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적격업체에게 외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문에 의한 비정기성 업무는 탄력적 인력 활용(계약, 인력 Full제)에 의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므로 계약에 의한 외주발주와 업무에 따른 인력활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경쟁력이 있다.

5) 정보의 공유

개별 설계시무소가 개인 사무소 단위로 가 져야 할 정보와 자료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다.

여러 사무소가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내 부적 결합에 의해 외부적인 힘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공유화는 건축사협회 등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 바 개별 건축사사무소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 로 참여해야 하며 건축사협회 등의 단체가 이를 시행할 필 요가 있다. 21세기가 정보화시대이기는 하지만 건축사 상 호간의 신뢰와 협조체계는 항상 중요하다.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과제의 특수성은 별도작업을 하더라도 대부 분 기존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다.

6) 보수요율의 현실화

설계에 대한 대가문제로서 제도적으로 보수 요율이 없어진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문화 예술적 가치 창조 업무가 가격 경쟁에 의한 경제원리에 지배와 구

속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해 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용역은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Man-Hour 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며 적정 업무량에 대한 적정 비용 이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가격경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능 력과 품질경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여러 과제를 상담, 검토, 기획설계까 지 중요한 업무를 거의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설 계계약에 선행되는 일어가는 하지만 설계계약이 안되면 제 대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하지 않으 면 안 된다. 결코 설계시무소가 인력과 시간을 들이면서 비 용을 받지 못하는 무모한 일이 반복된다면 정상적 사무소 운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단계 설계계약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상담, 기획설계, 실시설계 등 여러 단계별 작업량에 따라 열정한 설계보수요율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건축사가 연간 2개의 주택을 설 계, 감리하면 되고 일본에서는 건축사 1인이 연간 5-6개의 설계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IMF전에 건축사 1인 이 20건 이상의 설계를 하였다면 무슨 능력으로 그 많은 설 계를 하였고, 설계비를 얼마나 받았기에 사무실 운영에 하 덕였는지 근본적 문제가 있다. 근간에는 건축사 1인당 2-3 건의 수주도 어렵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제대로 일하고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원칙 이 지켜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 어야 한다.

7) 설계와 시공분야의 유기적 업무

건축물에 대한 CM, 설계, 감리, 시공의 일 괄관리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건설공사가 갈수록 대 형화, 복잡화되면서 분야별 분리 관리보다는 관리창구의 단 일화가 요구되면서 발주처 대신 전문업체가 모든 것을 담당 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업무의 성격상 설계사무소. 감리회사, 건설회사가 지기업무영역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준비해야 한다는 많은 건설업체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 학회와 협회도 창립 발족되었다. 이에 따른 업역별 영역사 울과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다툼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거의 대형건축물에 국한된 이야기이며 소규모 건축물은 무관심 사항이다. 설계 사무소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감리가 사무실운영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없거나 이를 회피 하기까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회사도 소규모 건축공 시는 거의 무관심하거나 실제적으로 시공하지 않고 하청관 리하거나 무지격자가 임의 시공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건축사와 기술사, 기사 등 전문자격 을 가진 사람이 소규모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설 계사무소에서 설계, 감리와 함께 소형건축물의 시공을 담당 함으로써 현재 시각지대로 버려져 있는 소형건축물의 전문 적 기술서비스 제공과 대국민봉사, 이미지개선, 업무의 확 대 및 효율화를 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그와 함께 건축물의 신축과 신규개발사업이 문화된다면 기존건축물의 수리(리모델링), 보수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업무가 늘어날 것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공의 참여는 설계분야에 비해 5배 이상의 업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공권 을 가진 건설회사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종합건설업은 여 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설계사무소가 비전문가의 직영운영 을 하는 소규모 건물의 시공에 참여하는데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종합의견

건축사사무소가 처한 현실의 위기 극복방안 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다양할 수 있다.

우선 외적요인으로는 사회 · 경제적 환경변 화에 대처하면서 정책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 건축사사무소가 의견을 단합하여 함 께 극복해야 할 일이었으며, 개별사무실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화를 기하는 등 여러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등 상황 과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건축계가 내우외환의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지혜를 모아 이를 타개하고 밝은 미래를 맞이 하기를 바리는 마음에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다. 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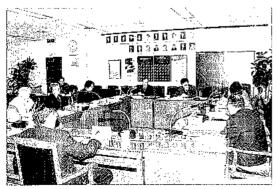
조를: 건축경기불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How to Get Over the Current Stagn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일 시 / 2000. 12. 5(화) 14:00

장 소 / 대한건축사함회 회의실
참석자 / 김병현(장건축)
김자호(간삼건축)
김종복(유일엔·건축)
문흥길(하우드건축)
이종쟁(본 협회 이사, 호암건축)
장양순(본지 편천위원장, 동명건축)
정기용(기용건축)
조남호(솔토건축)
김홍수(본지편찬위원, 모람건축, 사회)



<u></u> 작담광경

경기불황에 처한 오늘의 한국건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다수 건축인들은 지난 몇년간 호황을 누려온한국의 건축적상황이 다시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동안 한국건축은 경제성장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지만 IMF상황 이후부터는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제전반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단순히 경제적상황이 나아진다 해도 작금의 건축적 상황은 여 러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해 볼때 단기간에 걸친 경기회복은 기 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시대 적 상황으로 볼때 국내건축은 앞으로 상당기간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지혜가 필 요할 때라고 본다.

현재 한국의 건축경기불황은 IMF 때의 한시적 불황과 달리 우리건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봤을 때 이에 대한 대처방안또한 보다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작금의 건 축계는 상당수의 건축사사무소가 개점 휴업상태이며, 이미 여 러 사무소가 폐업 또는 도산위기에 놓여 있고, 일부 사무소에 서는 업종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등 우리 건축사사무소가 최대 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업무영역의 범위나 경영방식 등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 장기간 지속될 불황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시실 전체적인 설계건수나 물량이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설계사무소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 이 결코 없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본지에서는 이에 대한 해법 을 찾고자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역할 등에 대한 외국의 사례 들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들은 건축불황기를 어떻게 극복하였 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를 교훈으로 우리 건축설계의 활로를 모 색코자 하며, 또한 국내의 어려운 건축적 상황에서도 경영의 합리화와 업무영역의 확장 등을 통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장양순 공사다망하시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 리 건축계의 불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IMF이후 계 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은 병이 있는 곳에 항상 치료 약을 상비해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찾 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해 법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좋은 말씀을 주셔서 어 려움 속에서 계속 세월을 보내고 있는 7천여 개업건축사들 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홍수 오늘 좌담화는 우리 건축계의 극 한 불황속에서 많은 건축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황에

서 상황진단과 나름대로 고민 을 해보고 아울러 발전방향을 찾고자 마련됐습니다. 좌담의 전체적인 흐름은 첫 번째로 한 국건축의 불황에 대해서 진단 을 해 보고, 다음에 외국에서는 구조적인 변혁기에 어떻게 대



처했는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 건축사사 무소가 어떤방향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할 것인가를 논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국건축의 불황의 원인 내지 는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건축의 실상과 외국의 극복사례

이종정 오늘의 상황을 단순히 어렵다는 느낌보다 통계 수치로 알아보는 것이 좀 더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불황이라는 사전적의미인 경기가 좋지 못한일, 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봅 니다. 건설업계는 지금 지표 경제, 체감 경기, 괴리 등에 관 한 논쟁은 의미가 없고 장기 불황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 기위한 대책 마련에 부산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 속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1990년 이후 각종 통계자료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정부관계자 와 단체에서도 건설 경기 획복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나 봅 니다. 우선 우리 협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허가 건수의 정점 을 이룬 것은 1990년입니다. 이때 우리 회원수는 3,470명 이 였고, 허가 건수는 205.763건입니다. 이후 매년 10% 내외의 감소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IMF 영향을 받은 1998년 허가 건수는 34.000여건으로 급감되었습니 다. 1990년도 대비 85%의 엄청난 수주량 감소를 가져 왔 습니다. 반대로 회원수는 1990년도 3,470명에서 1998년 6.767명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1990년 작년은 약간의 회 복기로 기대 하였지만 허가건수는 43.302건으로 IMF 직 전인 1997년도의 수주물량의 반정도밖에 안되는 건수입니 다. 2000년 10월 현재 허가건수 43,334건으로 회복도중 난개발, 용적률 하향조정,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가 되면서 9월부터 급격하게 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 이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회원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 경기를 진단하기 전에 우리경제를 보는게 좋을 것 같 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5~6%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건설 위기 · 상황대책에 대한 관련연구 기관의 장단기 예측을 보면 향후 5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멕시코는 IMF이후 건축이 5년만에 화복이 되었는데, 우리는 3년 정도면 회복될 것으 로 기대하였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복 되더라도 종전처럼 허가 건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경제성장 형태가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있어 GDP대 비 건설 부분이 10%내외가 된다면 수주물량은 크게 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홍수 이종정소장님께서 통계를 곁들 여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형 태 자체가 고도성장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에서 GDP대비 건설투자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 다면 우리의 건축설계 형태도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변화의 측면이고, 또하나는 현 재 경제불황이 5년이상은 지속되리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불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복 IMF이후의 건축위기를 몇가지 간추려보면, 정부의 구조조정 경제정책으로 대형프로젝트 가 감소되고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민간소형프 로젝트도 역시 감소해서 투자를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 축사면허 발급을 급증시켰고, 건설회사의 설계참여 또한 역 할을 했다고 봅니다. 외국사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눈에 보 이고, 컨설팅사의 수주로 건축사의 어려움이 더해 갔습니

다. 우리나라는 무능력자의 소형건설 건축공사를 하는 소형 프로젝트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엉뚱하게 욕을 먹고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어려운 여건속에서 건축사들이 개점폐업상태로서 있고, 주로 대형회사들이 일을 몰아서 하 고 있는 현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조조정이 끝 난 뒤에라야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자호 1997년말부터 IMF를 맞으면서 저희같은 경우는 1998년 1월부터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200여명의 직원수를 130여명 으로 줄인 상태로 현재까지 오 고 있습니다. 산소공급이 되는 만큼 숨을 쉬고 있는 실정입니 다. 근간에 보면 건축사들이 어 떻게 해야지 불황을 극복할 것 이냐의 문제는 우선 타요인보



다는 건축사 자신들한테 많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설계비 요율이 없어지고 무한경쟁, 자유경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 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하고 있 는 기술(작품활동)을 너무나 저렴하게 평가해서 난무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흔히 건설회사가 건축사를 불러서 설계 를 시키다보면 저희같은 경우는 건설회사에서 습관이 안된 설계사무실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유가 일을 시키면 우리는 우선 용역비를 제안하고 합당하면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 는데, 무슨소리나 꿈같은 소리를 한다고 다른 사무실은 그 냥 다 해오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경우입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못받는 것이 우리 건축사들의 현실입니다. 또 수주활동을 할 때도 다른사람들은 그냥해 주는데 당신네는 종이값을 달 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자초하는 것이 90%이 상인 것 같습니다. 또 설계비 자체도 캐나다의 경우는 건축 설계수주를 얼마에 했다는 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같은 것이 우리는 안되어 있 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책임)을 받는 것이 없기때문에 덤 핑을 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입장을 난무하게 만들어서 불 황을 타개하는데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축사 협회에서 건축사들끼리의 단합내지는 제도자체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 자체의 불황보다도 우리들 김홍수 의 내부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변함에 따라 모든 업무활동이나 사 고방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거기에 적응하 : 지 못하고, 고도성장형 업무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국형 경제체제에 맞는 건축사사무소의 행태를 바꾸어야 할 것이고, 또하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iMF이후로 상당한 경제불황속에서 외국 에서는 어떻게 극복했고, 선진국형 경제에 맞는 건축사들의 행태나 업무형식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점에서 외국에서의 업무형식 등의 사례를 짚어보는 것도 현재 상황을 극복하 는데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현 환경악화보다도 건축시장 자체 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하겠는데, 지금의 위기는 움직이던 큰 기계가 갑자기 멈추어버린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 로 난국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문인으로서 지켜야 할 영업의 규범은 당연히 지켜야 함이 도리이나 생존과 도산 의 기로에 서 있는 건축사무소들에게 적정한 보수 아니면 그나마 있는 일감을 거절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 다. 건축인의 양식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에 호소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당면한 두 가지 과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 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생존전 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장기적으로 우리도 선진 국과 같이 사회의 건설투자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우리 건축계의 준비와 구조적 행태적 변신입니다. 미국의 건축사무소가 불경기를 어떻게 대처해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미국의 전후경제는 6년내 지 10년의 사이클을 두고 호황과 불황의 기복을 거쳐왔습 니다. 경기에 제일 민감한 건축시장에 의존하는 건축업계 는 당연히 시장경기의 상승과 하강 패턴 속에서 영업을 해 오다 보니 이제는 이에 상당히 익숙해있는 것이 미국의 건 축업계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던 중규모의 사무실도 향후 3개월과 6개월간의 사업수익 추정을 하고, 이에 따라 소요 인력과 기업, 재무, 건강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직원수도 매우 융통성 있게 조정해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경 로를 통하여 입수되는 건설시장 추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 과 이에 대처한 업무개발노력입니다. 현재의 우리건설시장 처럼 하루아침에 붕괴한 것 같은 상황은 없었고, 불황이라 하더라도 주택・상업 의존 같은 민간사업이나 학교 같은

공공사업등 다변화된 시장의 어느 부분은 살아있는 것이 미국의 건축시장입니다. 웬만한 사무실은 한두 가지의 건 축유형에 특화 되어 있기보다는 그 업무영역이 어느 정도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불황도 정도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까지는 유연한 조직운용과 시장다변화로 큰 기복 없이 시 장환경변화에 대응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0년 후반부터 한동안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 다. 잘 알려진 대형사무실들도 직원수가 반 이하로 줄어들 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에는 해외사업이 큰 도움이 되 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흥수 미국같은 경우는 1989년, 1990년대초 불황을 겪고, 현재는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불황이라고 하지만 통계상으로 4만3천건이라는 설계물량 자체는 특히 유럽에 비교하자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설계사무 실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지금이 극심 한 불황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시고자체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정기용 우선 불황보다는 위기로 보는 것 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구

조조정이라는 얘기가 많아 있 습니다만, 이 위기를 어떻게 인 식하는나에서 출발해야 그 해 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저는 우선 지난 30년동안 우리나라에는 전무후무한 물량 의 건설이 됐는데, 그것이 2~



3천명의 건축사들이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으로 해서 일감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면 건축이라고 하는 행위는 한 사회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특히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봐도 건축사는 계속해서 늘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 제의 핵심은 전무후무한 가공할 물량을 건설해 내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부각시켜 서 "아! 건축사라는 사람이 사회에 유익할 뿐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이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위기이면 서 또한 앞으로 건축사내지는 한나라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업종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의 구조조정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의미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 서 두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하나 는 내적인 문제로 건축사들이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역 할을 하고, 어떠한 보수를 받을려고 하는 깊은 노력이 있어 야 합니다. 또하나는 건축사들이 활동하는 영역의 재편성입 니다. 건축사들이 활동하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환경을 재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역비 가 얼마나, 크나 작으냐, 건축허가물량이 많냐 적냐의 문제 가 아니고 건축사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어 떻게 조성하느냐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의 경우는 특별한 불황이 있었다기 보다는 이미 그 나라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실은 건 축사들은 늘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런데 그 불황이 지금같이 급격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특별한 현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프랑스에서도 건축사내지는 건축학도들이 매년 수천명씩 배출되지만 그것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는 데는 바 로 우리나라와 같지 않은 사회적 구조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설계아니면 시공이라는 양지간의 선택 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 같 습니다. 그런데 건축수업을 받고 또는 건축사로서 이 세상 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특히 프랑스에서는 아마도 수십종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든다면, 건축프로그래 머, 리서청, 시민들과 함께 참여해 동네를 개조하는 프리랜 서 건축사, 공공분야, 국외시장으로 진출하는 등의 경우가 있고, 또 프랑스같은 경우 신축보다는 리노베이션이 엄청나 게 중요한 물량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건축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의 문제는 물량의 적고 많음 이 아니라 건축사들이 활동하는 환경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 으면 안되는 외적인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지금은 어떻게보면 다행스럽게도 정상적으로 건축사 들의 사회적 업무가 조정되는 국면에 있다고 보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위기이지만 다행이라는데서 출발해야 되지 않 나 생각합니다.

김흥수 사실 위기의 극복방안에서 이 문 제가 논의돼야 할 사항인데, 앞으로는 사회적구조가 변하고 건축사의 업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폭넓고, 활동영역도 훨씬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자호 우리나라에서는 벤치마킹을 할

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IMF가 시작되자마자 일본의 벤치 마킹을 할만한 역사깊은 설계사무소를 찾아가 과거 몇차례 의 불황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일 본은 일반적인 사회적 구조가 가정과 나라, 회사를 놓고 그 비중을 따졌을 때 회사에 그 비중을 크게 둡니다. 불황이 오 면 회사에서 3가지를 줄입니다. 제일 먼저 회사의 판공비를 줄이고, 그리고 광고비, 다음으로 교통비를 줄입니다. 줄이 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 나라입니다. 설계사 무실의 경우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람과 정보 그리고 조직 등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제일 큰 비중을 가지 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불황이 오면 사람을 줄인다. 고 했는데, 일본의 경우는 한명이 먹을 것을 열명이 나누어 먹는다는 생각으로 같이 앉아서 불황을 타개해 나가자는 입 장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무조건 사람을 줄이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좋아지면 다같이 좋아지고 어려우면 다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을 안해도 생활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적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들면 현장소장이 잘못 했다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준공할 때 까지 일을 하게 하고, 그 뒤에 책임을 묻는 형식이고, 정년 퇴직까지 일을 하게 합니다. 설계하는 방법도 일종의 상품 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들면 10억짜리 상품을 설계사무 실에 주문해서 산다는 건축주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 면 좋은 상품을 만들까를 생각하는데, 일본도 설계비가 많 이 내려갔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설계. 도면을 빨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합니다. 예 를들면 상품화하는데 가장 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도 면을 처음에 가서 보면 어디에서 그리는 지 모르겠는데 나 중에 보면 건축과를 나오지 않은 주부를 포함한 야르바이트 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생산 비를 많이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은 다른데 하고 다르고, 건축사 자체도 우리나라같은 건축시제도가 이 니라 소정의 기술을 습득한 것에 대한 인정 수준입니다. 제 가 1977년도에 일본건축사를 취득했을 때 건축사번호가 13만단위였습니다. 지금은 20만정도 됐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처럼 건축사를 취득하기에 어려운 시험제도가 아닙니 다. 또 일본에서는 대관청 업무에 대한 노력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일본은 건축확인신청제도가 있어서 건축법에 저 촉여부만 확인해서 맞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확인서를 줍 니다. 그 확인서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 축하기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하가 한 번 내는 데 길 게는 1년, 짧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 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도 개선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정 개인적으로 위기 진단을 해보면 네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수주 물량의 감소입니다. 이것은 공공 및 민간건설의 침체수준을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기 때문으 로 판단됩니다. 두 <mark>번째로 회원의 급격한 증가입니다.</mark> 건축 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현재 12.406명입니다. 그중에 활 동하고 있는 건축사가 7,700여명으로 약 65%입니다. 1970년 중반이후 2~3백명을 유지하다가 1995년 감사원 의 지적에 의해서 외국 선진국에 비해 건축사 수를 비교하 여 우리나라 건축사 수가 적다하여 수요자의 선택과 편의를 위한 시장경쟁원리에 맞긴다는 취지에 1995년 이후 매년 1,000명이 넘는 건축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 수주환경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경제 구조가 이미 공급사회에서 소비자 사회로 변화되었기 때문 에 김자호 건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상품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영업, 마케팅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축사의 증가에 비해 수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덤핑수주가 성행하고 있 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여년전부터 허가 물량의 감 소와 용도별 허가 건수의 변화의 조짐이 있었고, 이 물리적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의 환경변화 속에 있는데 팽창 성 장에 맞춘 운영을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환경변화 속도에 내부 속도가 못 쫓아 가니까 그 차이 만큼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거부문에 김병현 대한 것이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상업·공공부문 등 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향후 10년 동안에 어느정도 공공부문에 투자할 것이나, 또 앞으로 10 년동안에 주거건물이 아닌 상업건물, 공공건물, 기간산업시 설과 여가시설 등에 투자가 있을 수 있느냐를 한 번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황극복의 방법

김홍수 환경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좀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극복의 방법으로써 사무실 경영자체의 합리화, 즉 환경변화에 따라 서 사무실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기존 체제를 유지 해서는 현재의 불황상태나 선진국형 설계시장에 대응하기 가 힘들다면 사무실 경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저는 불황 위기에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건축사사무소의 인수합병을 2년전부터 추진

해 현재 합병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안정추세에 있 습니다. 인수합병을 해서 관리 비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수주 마케팅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 니다. 결국 큰 사무소와 작은 사무소의 합병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작은 사무소끼리의 합병은 관리비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병의 방법이 완전합병, 독립채 산제 등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 트를 만들어서 회사를 합병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무소이름. 위치, 대표자구성, 업종, 자본금, 실적, 인원관리, 운영, 회 사체제, 합병후의 운영방법, 세금, 직원, 프로젝트수행, 회 계방법, 부도폐업시 회계처리 책임관계, 회사실적, 개인실 적, 공동대표의 퇴사 등 완전합병, 독립채산제 시 분리해서 대표이사에서부터 운영상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 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합병시 주식은 각자 소유 하도록 상호이해 협조하여 우리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음과 회사를 발전시켜야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합병의 전제는 상호 열린마음으로 큰 회사는 베풀고 작은 회사는 도움을 받는다는 마음이 절대 필요하 고, 프로젝트 수주에 노력하여 이익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우선 생각해 봤고, 다음으로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회사 에 취업하여 차세대 대표주자로 비전을 갖고 노력하는 방법 을 생각해 봤습니다.

김흥수 그래서 실제로 합병한 후 효과를 보았습니까?

김종복 합병한 후 회사가 안정을 찾았습 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병을 할 것이나, 안하면 혼 자서 버텨볼 것이나를 생각할 때 어려웠던 점은 합병할 경 우 그동안 15년된 회사이름을 넘긴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 는 애착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괴감한 용기가 필 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이름이 없어지더라도 합병 을 해서 파산을 막고 재도약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선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큰 결심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수 시실 IMF이후로 작은 사무소들 이 합치다든지, 현상설계 등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하는 사 례가 상당히 많았졌습니다. 이것 또한 자생적으로 불황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남호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축사사무 소들이 저희사무실같이 작고 영세합니다. 어느 경영컨설팅 에서 중소기업은 정말 대책이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어떤 전략을 짜서 대응하기에는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이고, 여러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예를들어 공공부분시설이 확대될 것 이라는 예상 등이 작은 사무소한테는 직접적으로 전략을 적 용하기에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IMF이후 일이 적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적절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당황스러웠습니다. 폐간직전의 미국 PA지의 특집에서 다 른 내용인데, 건축계와 비교해서 흔히 예를 드는 것이 법조 계와 의료계입니다. 법조계의 경우 전통적인 일인 판사, 검 사, 변호사의 영역을 넘어서 M&A의 전문가가 된다든지, 기업의 업무에 참여한다든지 다양한 업무를 확장해 나갔고, 의료계의 경우도 19세기까지는 전문분야가 없이 한명의 의 사가 모든 것을 보는 형태였는데, 그 이후에는 단순한 치료 라는 차원을 넘어서 예방의학이란든지, 건강문제라든지 다 양한 업역을 확대해 나가는 경우에 비교해서 볼 때 건축계 는 과거에는 도시계획, 인테리어, 조경, 퍼니쳐까지 포함하 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업역이 축소되는 현상이 결 국은 경쟁력없는 건축시를 양산해 냈고, 결과적으로 보면 단지 좁은 의미에서 건축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축전 체룔 통괄해서 보지 못하는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건축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현재 네명의 건축시가 동업을 하고 있고, 그 이유도 처음부터 업무의 다각화를 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과잉의 덕을 많이 봐서 특 별히 노력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 안은 네명의 건축사가 업무를 분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이후 일이 절반으로 줄고, 네명의 소장의 역할에 잉여가 생 겨서 2명의 소장은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저희 는 처음부터 건축시는 팬만 돌고 책상에 앉아 있는다는 생 각은 일찍부터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나름대로 경영전략을 세우고 다각화전략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그 것은 물론 운영자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의식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련의 작업을 했습니 다. 우선 내부적인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관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었습 니다. 물론 그것은 질관리를 포함한 성과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설계작업외에 목조에 국한한 것이지만 시공에 참여하게 되고, 조경설계와 시공을 저희 사무실에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그룹이 목 조를 하다보니까 목조건축뿐아니라 옥외시설물하고 관련 된 작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경설계와 연계가 됐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내부에서의 경 영합리화라는 문제에서 네명의 소장이 각기 다른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물론 디자인부분은 공유하지만 네명이 각 각 경영, 디자인, 기술, 마케팅을 총괄하면서 맡은 부분에 서는 최고 결정권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부분에서 는 목조건축을 통해서 전문화와 네트워킹으로 업역을 넓혀 나가는 것, 옥외시설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는 아웃소성 개념으로 저희가 디자인만 하면 얼마든지 외부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김흥수 내부조직의 경영합리화에 대해 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기용 우리나라 설계사무소 조직에서 경영의 합리화를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 수를 줄이는 것밖 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조직이 컨설 팅컴퍼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건축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무소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KPF한테 건물을 의뢰해서 프리젠테이션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문으로 참여한 적이 있 었습니다. 그 때 느낀 것이 그 조직의 팀을 맡고 있는 사람 들이 한 일은 컨설팅컴퍼니에서 해온 일을 취합하는 정도의 일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많은 일을 자기가 작은 사무실이든 큰 사무실이든 다 한다

고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없는 다시말해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축사조직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컨설팅컴퍼니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회사들을 여러개 만드는 일,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품질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같은데서 정말로 건축사 들을 위하는 일을 한다면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면서 시공이 될 지를 일일어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창호하나만 예를 들어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개발할까 무지하게 노력은 하지만 시공현장에서 어긋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무실경영의 합리 화는 사람수를 줄여야 됩니다. 사람수를 줄일려면 그러면서 좋은 품질의 건축을 말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컴퍼니가 있어 야 됩니다. 컨설팅컴퍼니는 일반 건축사들은 만들 수가 없 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고용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컨설팅컴퍼니를 여럿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흥수 내부경영합리화 못지않게 중요 한 게 외부적인 여건인데, 컨설팅컴퍼니를 적극적으로 이용 하면서 내부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합 니다. 알루미늄 커튼월같은 경우는 컨설팅회사들이 생겼습 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실들이 열악하다보니까 컨설팅컴퍼 니들도 보수를 제대로 못받는 현실에서 클 수 있는 토양이 안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기용 그런 것들을 서로 길들이고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건축시 장의 특이한 점은 건축주가 대형조직만 찾고있는데도 있습 니다. 지금 어려워도 큰 사무실들은 일이 있습니다. 건축계 와 사회를 위하여서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작아도 질 좋고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 건축주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것 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대형프로젝트들을 중 소규모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용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좋은 기술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 문에 가능한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작은사무실은 찾아주지 않으니까 일이 없어 어렵고, 큰 사무실은 당장 일이 없어도 앞으로의 일을 위해 서 줄일 수가 없는 것이 당면한 난제인 것 같습니다.

김홍수 제가 듣기로는 전문화된 업무영 역음 가진 조직간의 연계시스템은 독일이나 일본이 제일 발 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디자인 오피스는 디자인만 하고, 실시설계는 별도로 해주는 사무실들이 있다고 합니 다. 공사현장 자체도 기계조립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실시설 계를 제작하는 팀들이 연관돼서 해야지만 실시설계도 가능 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 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여건도 미진하고 그 런 시도도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합리화되고 이런 시도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남호소장님 얘기를 듣고 변화 이종정 된 환경에서 해야될 일을 젊은 건축사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 라 현재 설계사무소의 직원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1~3명 이 3천4백82개 시무소로 55.4%. 5명이하가 23.23%로 전체사무실의 78.37%입니다. 6~7명이 9.23%, 8~10명 이 5.47%로 10인이하의 서무소가 93%를 차지하고 있습 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91~100명이 2개사무소, 110명 까지 1개시무소, 111~120명이 1개시무소, 140~150명 이 1개시무소, 150~200명이 1개시무소, 300명이상 1개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100명이상인 사무소가 5개, 50명이 상인 사무소가 12개로 IMF전에는 100명이상인 사무소가 20여곳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무소 직원 수가 급격하게 줄 었다는 사실과 회원의 연령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 다. 현업 건축사 중에서 최연소자가 29세, 최연장자가 89 세이고, 35~45세가 각각 300여명이 돼서 평균나이가 41.5세입니다. 이렇게 연령이 낮아지고 그 연령층이 새로 운 환경변화에 현실적으로 적용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을 저는 위기관리라고 표현하고 싶습 니다. 앞으로 설계사무소는 사무소별로 특화된 기술과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곧 전문화를 뜻하고, 이는 단계별, 장르별, 분야별로 전문화가 돼야 합니다. 단계별은 기획에 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방서작성 등이고, 이런 것들 이 특히 소형사무소에서는 느낌이 와야 합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가야할 것이나 등 성격규정을 해야 합니다. 장르별 은 구조, 적산, 디자인 등으로 구분돼야 하고, 분야별은 우 리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만 소강, 설비, 정비 등으로 구분돼 서 전문화가 돼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계비의 현실화

김흥수 결국은 전문화를 이루어야 하고, 여러개 회사가 모여서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합병하는 하 는 등 적극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하 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보수요율과 설계비의 현 실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요율이 폐 지됨에 따라서 설계비를 청구하는 자체가 평당개념이 아닌 좀 더 업무종류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무소별로 정착 돼서 보편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확하게 업무영역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가 정해 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김병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에서도 1970년후반까지 김병현 AIA에서 만들어 놓은 용역비 요율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과점금지법이 발효가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건축 가의 업무는 그 이행에 따르는 법적·사회적 책임이 크게 다 르기 때문에 쉽게 보수를 수준 이하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일 이 없어 차라리 폐업하는 것이

잘못된 결과에 대한 부담을 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공통 된 인식입니다. 지금 우리 현황에서는 정부에서 법으로 제 시해서 될 것도 아니고 각자 건축사의 양식과 공정한 건축 업무규정에 맡겨야 되는데, 이에는 성숙한 시장과 건축사의 자질개선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돼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 다. 자질이 좋더라도 현재 시장상황이 워낙 나쁘니까 요율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사 회가 좀 더 안정되고 정비가 되면 싸게 한다는 것만으로는 일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간단한 공식에 의한 요율 제시만으로는 별로 도움이 못될 것입니다.

김홍수 미국에서 요율이 없어진 후 가 이드라인같은 것을 만들어서 업무영역을 나누어 거기에 따 른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업무종 류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건축사들이 건축주에게 청 구할 수 있는 기본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용 동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미션 이라고 해서 건축시가 계약을 하면 미션1이나, 미션2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를 하느냐인데,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업역이 세분화돼 있고, 난이도라는 것이 지수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정도가 아닌 도면검수부터 시작 해서 대략 열단계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설계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 적어도 건축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건물은 정말 난이도가 높고 낮 다는 기준정도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하는 업무에 10개 정도의 단계가 있다든 가, 예를들면 투시도를 하느냐 안하느냐까지를 상세하게 건 축사의 일을 열거해서 이만큼을 하면 얼마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국사람들이 우리나 라 시장을 공략하는 좋은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해서 얼마라고 2페이지 정도의 제안 을 하는데 비해서 미국 KPF계약서를 보면 10페이지에 걸 쳐서 투시도를 부탁하면 얼마, 기획하면 얼마, 도면검수하 면 얼마 등 건축주가 필요한 것만 고르면 총 얼마가 나오는 데 그것이 설계비이고, 설계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 고 건축주께서 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런 것 등으 로 봐서 완벽하게 좋은 건물을 지을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나라 건축사들을 신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흥수 어떻게 보면 덤핑구조를 만든 것 자체도 그 전의 요율표가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율표라는 것이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김병현 물론 규정이나 약속도 중요하겠 지만,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실한 설 계를 해서는 기업도 살지를 못하고, 우리 사회가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문인력과 협력업체를 참여시켜야 되고, 그러자면 최소한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 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우 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큰 폭의 용역비 절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흥수 김병현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 럼 미국의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 니다. 부실한 설계를 했다가는 보험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 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미국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같 은 경우는 요율표도 없어진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그럴려면 좀 더 사회적으로 요육자체가 한가지 시스템이 아니고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고 가이트라인 역할 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정 미국에서는 보험가입을 생각자 않고는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나라의 환경이지



만 우리 회원들이 제일 어려워 하는 것이 업무량 감소와 설계 비 요율 문제입니다. 건축사보 수요율은 1967년도 건축사법 이 제정되면서 생겼습니다. 그 때 당시 적용한 것은 공사비 비 율이었습니다. 1종부터 5종까

지 공사비에 적용해서 설계비를 산정했는데, 94년도에 이 것이 실비보상가산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해서 없어진 것입 니다. 미국에서는 1972년도에 독과점에 해당된다고해서 문제가 생겼고, 일본은 1975년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런데 미국에서는 이것(요율)을 AIA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 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에 대해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우리 가 해온 것이 상당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보수요 율은 각 시도별로 복지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설계비를 유지 하여 왔는데, 이것은 업무수행 범위내용에 따라 대기를 받 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수단을 통해 유지하여 오다 공정거 래위원회에 의하여 설계보수대가가 없어지게 되고, 이로인 해 회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수없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설계 사무소의 노하우이고 경쟁력인데, 협회에서 그것을 걸러주 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설계에 대한 것은 받을 길 이 없는 것입니다. 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사가 계획을 하고 법검토가 들어가면 등록을 합니다. 어느 동 몇 번지 무엇을 착수했다는 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거기에 시 간, 대자위치 등이 입력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착수하게 되면 건축주가 나한테 위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의뢰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여건이 갖추어지면 점진적으로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 니다. 그러면 덤핑수주도 방지될 수 있고, 또 설계비가 독 과점이나 공정거래와 관련이 된다손치더라도 설계비 산정 을 다던계로 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희망적이라고 생 각합니다.

김흥수 프랑스같은 경우는 여러단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경우는 전체의 몇%로 되어있 고 금액은 결정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정도 업무이면 전체의 몇%라는 것을 정해만 놓아도 건축주와 설계비를 얘 기할 때 좀 더 설득력있고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런데 지금은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초작업은 사 협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행태 자체를 조 금씩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공사의 경우 요율이 없기 때문에 현상설계의 경우 당선하고도 수지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협회 에서 어느정도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 다. 개인이 싸워서 해결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에서는 발주를 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니름대로 의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터무 니없이 낮은 것이 시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설계비가 하락하는데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회에서 빨리 대처해서 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용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건축사들 이 받을 돈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용문제 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립이 되면 건축주 는 건축사들이 책임도 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 서 우리나라 건축시들의 심각한 문제는 보험의 문제이고, 건축사협회가 앞으로 변화해야 할 방향은 진정으로 건축사 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계도서신고를 오히려 보험비용 으로 옮겨서 구조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같이 설계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혼자 책임까지 떠안 는 나라는 없습니다. 프랑스는 이를테면 Ten Years Responsibility 라고 해서 구조나 큰 골조에 대해서 10년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도서신고를 하면 당연히 보험을 내야되는 것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들이 설 계를 하면 책임도 져주니까 마땅히 용역비도 주어야겠다라 는 것이 인식돼 있는 것입니다.

이종정 사실 협회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서 하고있는 보험 전단계로서의 공제회를 구성하려고 했는 데 회원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설계의 질은 얘기 하지 않고 책임을 안지고도 하는데 왜 책임을 지려고 하느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협회에서 계속 강구하고 있고, 공제회시행요청을 건교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남호 제가 독립하기 전에 미국의 대형 사무소들의 관리시스템을 돌아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준대 로 청구를 하는데 업무단계별 로 작업범위와 비용이 명확하 게 분리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직원이 출근하면 프로젝트매니 저에 의해 그날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메모가 책상

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니까 전체 설계비 대 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30%정도여서 귀국해서 다니던 회사에서 적용해 볼려고 사례를 분석해 보았는데, 10%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직접인건비를 해결한 것을 보 았습니다. 이것은 책임문제와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 내에서는 성사되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작 성사된 일 에서는 인원을 많이 줄인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 고 있지만 단계별로 명확한 영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설계과정의 단계별 구분과 업무정의, 단계별 업무영역, 업무대용당 팬이워, 비용산정 등을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선 행되어야 공식력있는 설계비요율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문제와 관련해서 중 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업무영역의 확대

김홍수 보험이라든지 사무소내부에서 의 관리문제 등을 많이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 니다. 다음은 업무영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역 할도 많고 업종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건축사들 이 천여명씩 배출되는 상황에서 업무영역 자체도 다르게 보 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대량 고도성장 사 회에서는 기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설계일 하기에 급급했지, 다른 업무는 엄두를 못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 려 인테리어부분이라든지의 많은 업무가 축소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김자호 업무영역 확장에 대해서 인테리 어부분, 리노베이션부분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면 서 이것은 인테리어부분이니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 다고 하면 놀랍니다.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면 설계는 공 짜로 하고 인테리어를 해주는데 무슨소리냐고 반문하기 일 쑤입니다. 리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하면 이렇게 됩 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무슨소리냐 자재업체에 맡기면 공짜 로 해준다는데하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리노베이션을 많 이 했는데, 요즘와서 달라진 상황이 예를들어 드라이비트나 커튼웜 업체에서 거꾸로 설계사무소의 역할을 침범해서 이 타일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면 비용이 쌉니다라고 해서 일을 빼앗긴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디자인을 잘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을 건축주한테 설득하고 이해를 돕게 해야되는데 먼저 자재업자가 와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웬만한 사람은 디자인하는 사람보다 자재업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설계비도 전체공사비가 10억일 때 1억을 달라고 하면 아연실색합니다.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로 천태만 상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부분도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고 자해서 인테리어 전문가를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 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인테리어부분도 좀 더 잘해줄려고 인테리어 전문가를 고용했는데, 인테리어전 문가는 설계보다는 시공까지 안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인장이어서 결국은 얼마있다 나갔습니다. 또 건축주는 반대. 로 인테리어설계를 한다니까 다 해주면 좋다라고만 하고 거. 가에서 끝입니다. 설계의 질을 높이려고 업무영역을 확대했 다가 결국은 실패한 사례입니다.

김홍수 그것이 우리나라의 사회 병리현 상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김자호 결국은 아까도 업무범위내에서 미국에서 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IMF이후 체제가 결국 모든 운영방법이 미국식이기 때문에 조직도 미국식으로 바 꿔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급여제도 등 모든 것을 엄격하게 바꿨는데, 지금에 와서 후회하고 느낀 것이 월금

받는 사람은 한국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체제는 미국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일하는 것은 한국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대학교육에서 부터 그 문제가 시작됩니다. 체제가 정립이 되면, 사람도 그 에 따라 교육을 받고 그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 렇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선진국의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찾 으면서 껍데기는 서양이고 내용은 우리 것에서 오는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양순 인테리어부분이 전에는 건축사 보수요율 5종에 속해 있었으나 사실 건축사중에서 90%이 상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 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건축사의 사인이 있어야 디자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의미에 서 건축사가 직접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검토하고 사인을 해주므로써 생기는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 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복 2001년 리노베이션 법규정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시키는 작업을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 니다. 이런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우리 영역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협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분화부분이 심각하게 피부에 와닿는데 우리협회에서 연 구위원회나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건축사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봉사한다거나 일부 협회의 지 원을 받아 활동하여 부분별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흥수 사실 인테리어부분은 시공과 함. 께 항상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사로서는 대처하기 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남호 건설이라는 전과정이 초기의 기 획에서부터 유리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전단계를 볼 때 굉장 히 큰 비용이 오기는데, 그 전단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이 바로 우리 건축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익을 같지 못했다라는 것은 건축사 스스로가 안정할려고 하 는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제 목조건 축에 국한되어 있지만 시공을 함께 하고 있고, 안성에 공장 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부

분에서 실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목조주택의 경우 IMF이전에 는 평당 450만원정도였는데, 지금은 환율이 굉장히 높아졌 는데도 불구하고 250만원정도로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 사람들의 유일한 경쟁방법은 가격밖에 없기 때 문입니다. 결국 가격경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 등에서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 습니다.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을 다양한 분야와 결합시키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것입니 다. 또 한가지는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면서 처음에는 갑자기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재료를 수급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회사에 전체를 일임했는데 문제는 실제 창고에 가보고 들여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엄 청난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가지고 있는 재료는 가장 잘 팔리는 몇가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목조주택이란 것이 일선의 자재회사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져 지어지고 있 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회사와 결별하고 직접 인천의 목재회사를 쫓아다니면서 저희 방식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장재를 쓰는데 외장재 표면을 거 칠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물을 여러 가지로 의뢰해서 샘 플을 받고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 자재회사가 저희한테는 많은 이익을 남기지는 못했는데 그 소재를 개발해서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고마움을 표하면서 협력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분야 한분야들이 디자이너의 안목을 갖고 하게 되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 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조경팀에 두명의 여직 원이 있는데 작업수준을 보면 열악한데 연수익은 1억원정 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가 꼭 설계만을 해야된다 는 생각만을 접으면 얼마든지 많은 분야들이 기다리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건축사가 설계외의 일을 하는것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컨설팅컴퍼니의 필 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더 전문화된 유형이라고 본 다면 조그만 조경회사는 자재회사에 디자인을 이해하는 사 람들이 다양하게 퍼져있다면 좀 더 쉽게 협력자를 구해서 원만한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행조 직이면서 다른 유형의 컨설팅컴퍼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흥수 건축사들의 업무영역자체도 설 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분야에도 진출하 고, 또 위기가 기회라고 보고 열악했던 분야를 개선하는데 건축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남호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공을 함께 하다보니까 운영의 탄력성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 니다. 그래서 IMF이전에 17명의 직원이 현재까지도 유지 하고 있고, 내부에 일이 없을 때 현장에 설계인력을 투입하 기도 하고, 내부에 일이 많으면 외부인력을 파트타임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경기가 나 쁘다고 해서 인력을 감축했을 경우 나중에 기술공백을 메꿀 수 있었습니다. 불황도 문제지만 일없이 몇 년을 보낼 경우 경험없는 경력직원을 양산해 건축계의 기술시스템 붕괴도 우려됩니다. 실제 시공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원가라는 개 념이 분명해서 설계쪽에서는 그런것들이 거의 컨트롤이 안 되었는데, 외부에서는 그런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고, 탄력 성이 있고,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계 비에 대한 협상때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낮은 가격에 대해 거부함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홍수 그런점에서 상당히 좋은 사례로 써 저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분야로 써 여태까지 건축사들이 많은 역할을 못했던 도시계획쪽에 서 활동하고 계신 문홍길소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문홍길 업무영역확대와 관련해서 전문 성을 갖자는 개념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업무영역이 넓어지면 기존에 갖고있던 전문성은 분명 히 떨어집니다. 업역이 무너졌다고해서 그동안에 갖고왔던 논리성과 합리성을 버리면 안될 것입니다. 자유경쟁이 되 면 특히 합리성을 가져야 되는데, 급하다고해서 건축사가 사공까지 한다면 건설회사내 건축사설계진출을 반대했던 건축사협회의 기존 논리성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 역확대부분을 건축사입장에서 확대라고 하면 이 시장은 이 미 충진돼 있기 때문에 확대 당하는 입장에서는 축소가 됩 니다. 예를들면, 인테리어협회가 있고, 그 인테리어협회 입 장에서는 그동안 건축사에게는 라이센스도 주고 열심히 국 가에서 보호를 해주었는데 경기가 나쁘다고해서 라이센스 없는 우리에게까지 업역이 넘어오느냐고 문제제기를 공식 적으로 하게될 것입니다. 예를들면 제가 하고 있는 도시설 계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설계분야는 아예 라이센스 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기술사협회에서 문제로 삼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혼자 방어를 하고 있는데, 품질로서 방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UIA현장에 보면 건축가의 역할에 있어서 그 첫번째가 도시설계이고, 두번

째가 건축설계라고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도시설계분야는 건축가가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소 홀히 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시설계부분은 넓게보면 대규모단지설계입니다. 대규모설계사무실에서는 이미 그 기술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밥그릇싸움 보다도 도시설계나 단지설계는 건축분야에서 상당히 연구 해야될 부분이 많고, 또 도심의 대규모건물을 디자인할때 는 반드시 도시적인 어프로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에 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설계는 내부논리만 가지고 외피다 자인까지 끝내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외부논리가 내부로 도 들어오고 서로가 잘 맞추어지는 건축설계가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위기상황이 어쩌면 그동안에 없었던 합리성과 논리성을 갖추는 하나의 시점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협회차원에서 여러 가 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회의 구성원에는 대규모설계사무 소도 있고 소형사무실도 있는데, 물론 다 잘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편드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낮은 쪽으로 가도록 유 도됐던 보수요율, 품질을 높이 제공하는 건축사가 손해를 보는 것은 합리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언 가 합리적인 구조로 갈 수 있는 방식이 이제는 나와야 되겠 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업역을 넓히다 보니까 제일먼저 요 구되는 것이 관리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기술능력은 많은 사무실에서 갖고 있지만 아직 관리데이터들이 전혀 공유되 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경영마인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체크리스트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은 미국사람들은 대 단히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주에게 무엇인가 를 제시할 때 고객지향주의로 바뀌면서 합리성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태에서 괴감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위기를 돌파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변 화하는 조직들은 사협회를 외면하는 형태가 돼서는 공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제가보기에는 오늘 업역 디자인 등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안타까운 것이 건축설계를 좀 더 잘 해가지고 이 시장을 돌파하자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렇지 못한 것입니다. 사협회가 사실은 스펙트럼이 넓기 때 문에 그 얘기가 못나왔다고 봅니다. 지금도 설계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많은 설계비를 주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사협회 차원 에서 생각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정 업역을 제도권 안에 넣는 측면에 서 업역이 있고, 또하나는 건축을 배워서 우리가 활동할 범 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는 건축 사법이나 제도권에 넣어서 건축사만 할 수 있는 일을 주로 얘기하고 있고, 조남호소장님은 반대로 건축이라는 기본틀 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보는 것입 니다. 리모델링을 예로들면,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 규제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환경과 안전만 보장 이 된다는 최소한의 틀만 유지한다면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법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것은 안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가 축소되니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협회에서 해야될 것 같 습니다. 요즘 건축을 기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업역으로 돌어오는 것보다 조정하여 컨설턴 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의 업역확대가 돼야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장양순 정기용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는 건축사들이 진출할 수 길이 많은데, 인테리어같은



경우도 일정면적 이상은 건축 사를 고용한다든가, 건축사 사 인이 있어야 된다든가, 리모델 링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 다. 그런면에서 우리가 건축사 들을 많이 배출하고 나갈 수 있 는 길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탠포드나 마쓰시다연구소같 이종정 은 데서 나온 21세기 새로운 사업을 보면 건축부문도 상당 수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00층건물 2010년 부터 현실화리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반주택 은 감소추세라고 보는데, 질이 고급화되는 주택은 어떤 형 태를 갖추는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 에 맞는 건축을 연구하는 등 새로운 건축설계에 대한 준비 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 학교교육에서 부터 단체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나오는 설계에 대해서 관심 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기용 조금전 문흥길소장꼐서 제가보

기에는 오늘 토론의 제일 중요한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 다. 그것은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다른말로 바꾸면 건 축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건축을 하고, 국 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려면 건축을 개별적 건물의 서비스 업무에서부터 공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고, 그 공공적인 일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도시설계입니다. 문홍길소장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고 중요성 이 얼만큼 큰지 그것이 이 시점에서 건축시라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패러다임적 전환을 만드는 일 을 하지 않고는 항상 불황의 높에서 허덕거리고 이런 회의 를 계속 해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회의에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30~40년간 건 축사들이 민간시장에서 서비스맨으로 존재해 왔는데, 그것 을 어떻게 건축을 공공의 서비스로 전환을 시키는가가 대단 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선진국의 제도를 가지고 오면 우 리니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건축 설계를 했던 사람은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일이 허가권자 가 전부 관에 있고, 그 사람들은 7~8급 공무원이고, 그 사 람들이 그러면 건축적인 공공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공무원직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등은 사실 모든 공공기관에 도시설계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건물들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3년이 될 지, 5년이 될 지, 10년이 될 지는 모르지만 전국 의 지자체가 240여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건축사를 5~10 명을 고용한다면 2천여명 정도의 건축사들이 거기에서 일 음 해야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민간서비스시장에 서 건축사가 마땅히 해야될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즉 일 랑을 건축사 숫자를 평균적으로 나눠서 그것이 많다. 적다 할 일이 아니라 건축사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항상 불황 에 수세적으로 가지말고 공격적으로 나가야된다고 생각함 니다. 즉 개별적 건축보다는 전체적으로 공공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전 국 민이 건축사를 정말로 존경스럽게 바라보아야 하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난개발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건축사들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 난개발에 수동적 으로 동원된 것이지, 능동적으로 환경의 질에 이바지할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들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또 사회적 요구를 촉발시키 고, 교육공간은 설계비만 작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선 되고 신축돼야 하며, 엄청난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얼마나 교육개혁과 맞아떨어지지 않는지를 제안하고, 또 주 거의 새로운 양식에 대해서도 갈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안하는 등 좋은 도시, 좋은 건축을 건축사들이 만들어 내 면서 스스로 일의 영역을 넓히고, 그러면서 공공성에 이바 지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건축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 람들이다. 민간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시장에도 있 고, 공공기관에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도시계획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일하는 시에 가보았더니 큰 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창구에 있었습 니다. 교수가 창구에서 허가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일이 없느냐 있느냐, 불황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아니라, 전 국토에서 한 두명의 건축사 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사가 도대체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되느냐 그 일중에 개별적인 건 축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공적인 공간, 이를테면 환경의 질에 이바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다라는 것을 도처에서 알려주지 않고는 건축사가 앞으로 존재해야될 이유가 없고, 영국같이 건축사제도 자체를 철폐 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패러다임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나 몇몇 회사가 잘먹고 잘사는 문제가 아니라 건축이 마땅히 왜 이 사회에 존재해야 되는 나를 제대로 챙기면 모든 일들이 다 풀릴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흥길소장이 미국건축사들의 첫 번째 역할이 도시설계이고, 두 번째가 건축설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도시설 계협회를 만들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축가가 도시 설계도 해서 그 용역비도 챙기고, 민간시장에서도 하고, 또 공공기관에도 들어갈려면 제도를 바꿔야 되고, 공무원들의 집들을 완벽하게 바꿔야 되고, 또 그럴려면 건축의 공공성 에 대해서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수___다른 시각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도시설계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 고, 건축과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적으로 시 에서 발주하는 도시계획이 최저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업체들이 덤핑을 하고, 제대로 하는 업체들은 참여 할 수 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사협회의 역할로 돌아와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 문홍김 지금 도시계획기술시가 도시설

계 등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모두 검토를 했는데, 법에는 도시계획기술사가 하게되어 있는 부분은 없 었습니다. 공공부문 용역 입찰관행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 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 지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관에서도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면 PQ입찰에서 전차용역을 평가 해 줍니다. 기존에 해왔던 도시설계가 잘 수행되지 못한 것 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PQ입찰에서 전차용 역을 평가해주고,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잘 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왜 평가하고 점수까지 더 주느냐고 주장 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말 이 된다고 하여 받어들여 졌는데도 불구하고, 공공프로젝트 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이고 공식적인 대안마련 이 시급합니다.

김홍수 공공프로젝트뿐만 아니라 300 세대이상 아파트인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 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만약에 도시계획기술사가 해야되고, 건축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큰 사무실들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건축사 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기술사들이 다 하게될테니 까요. 이런 부분도 건축사협회에서 신경을 안쓰다기는 건축 사들의 공공에 대한 이바지 역할을 꼼짝없이 빼앗기는 현상 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기용 그래서 제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흥길 저는 업역의 확대라고는 절대로 보지 않고, 기존 영역을 재확인한다고 말을 바꾸고 싶습니

다. 건축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 술서비스를 고객에게 좀 더 극 대화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개 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 시설계나 제도가 바뀐 것도 기 존의 도시계획적으로 처방을 해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관



점입니다. 결국 이것을 건축사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기존영역을 재확인한다고 해 야할 것이고, 기존 인접분야에 많은 지원도 해준다. 같이 가

는 것이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그래서 사협회 차원에서 사실은 정기용소장님께서 중요 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량시대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기 때 문에 충격없이는 바꿀 수 없다고 극단적으로 사협회에 기대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목입니다. 지나간 물량 시대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또는 그 시대에 재미를 본 사 람에게는 어떻게 더 바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 기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품질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 나는 주체, 방법전술 등 철저히 그 부분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들도 제대로 된 시장 작동을 할 수 없는, 조남호소장께서 는 시장에 작동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식으로 뭔가 개 발이 되지 않으면 또 한 시대를 그냥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 닐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큰 충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개인들은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거부의 몸짓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함. 니다.

김병현 위기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는 데,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단기적 위기가 아니고 앞으 로의 건축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시작이라고 보고 거 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지 금까지 받아온 교육에서부터나 일반건축 업무에서 너무 공 장에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수준을 넘어가지 못했다고 봅니. 다. 설계도서를 만들어서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 는 전문서비스를 파는 것입니다. 환경문제, 도시문제, 실내 인테리어문제 등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 분야가 없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시각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종정 그동안에 나온 자료를 정리해 본 다면, 우선 사무실별로 특화된 기술과 관리능력이 배양이 돼야하고, 두 번째는 업역과 역할인데, 이것은 폭넓게 참여 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M&A를 포함한 설계업 계의 협력과 인적교류입니다. 컨소시엄 등을 이용한 전문분 아와 공동작업 또는 프리랜서, 파트타임 등을 이용한 효율 적 인력관리입니다. 미국에서는 헤드헌터라고해서 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경쟁력강화입니다. 우 선 사무실의 비전이 설정되고, 업역개발 정립, 용도별 설계 데이터 및 기술 정립, 핵심전문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력 확

보, 미래전략기술 확보, 프로젝트 딜리버리시스템 확립, 조 진사무소 및 운영기법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합니다. 사무실들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위기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호 건축사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된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 전문성을 해치지만 역할 분담을 한 다면 오히려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책 에 대한 것도 한가지의 결론보다는 다양한 레벨에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종복 현재 건축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흥길소장의 도시설계분야, 조남호소장의 시공분야의 말씀은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 을 설계를 시작해서 유지관리까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정도 역할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는 우리의 능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생각 하는 폭을 넓혀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흥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 모집

정부 기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능력 항상훈련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 로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주)한국 오토데스크 공연교육원에서는 오랜 경험과 자료들을 기반으로 자신과 같은 정보들을 공유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효과적인 실무교육의 뒷받침이 되며,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 도록 컴퓨터 설계과정과 모델링 과정을 개설하였다.

디자인 분야(설계, 인테리어, 3D모델링 분야 등)에 재직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의 실무능력 항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차원 높은 교육의 효과를 기대한다.

1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 는 모든 직장인

2. 노동부 지원 규모

※정부지원 직장인 능력개발 과정(60 ∼ 80 %지원)

※교육비 산정 기준 : 괴정별 교육 시간 및 각 사업장 고용보험 규모에 따라 산정

3.교육비 산정

※컴퓨터 설계(CAD)과정 교육비:1인당 94.320원(교재비 포함) 지원금액-우선지 원대상:75,450원, 대규모:66,020원

※모델링 과정 교육비:1인당 99,320원 (교재비 포함)

지원금액-우선지원대상:79,450원, 대규 모:69.520원

※과정별 교육 시간 및 각 사업장 고용보 험 규모에 따라 지원

4. 교육 과목

※컴퓨터 설계(CAD)

-AutoCAD 2000을 기반으로 하여 2000i의 업그레이드 내용교육

-AutoCAD 2000의 2차원 명령어 습득

-캐드 시용자들을 위한 캐드 Skill 향상을 위한 교육

-건축, 기계, 디자인 설계부분의 도면작성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

※모 델 링

~AutoCAD 2000을 기반으로 하여 2000i의 업그레이드 내용교육

-AutoCAD 2000의 3차원 명령어 습득

-AutoCAD 2000을 활용한 Surface 모 델링 교육

-AutoCAD 2000을 활용한 Solid 모델링 교육

건축, 기계, 디자인 설계부분의 3차원 모

델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

5. 교육 기간

- 2001년 1월 8일(월)~12일(금) 'CAD 설계과정
- 2001년 1월 15일(월)~19일(금) '모델 링 과정'
- 2001년 1월 29일(월)~2월 2일(금) 'CAD 설계과정'
- 2001년 2월 5일(월)~2월 9일(금) '모 델링 과정'

6, 문의

-교육문의 : 02-555-0163 담당:주문선 때리

-인터넷 사이트:

http://www.atck.co.kr

-E-mail:webmaster@atck.co.kr

Super Highway Telecommunication Center

오기수/(주)스페이스 · 오 + 김상식/(주)금성 Designed by Oh Ki-Soo + Kim Sang-Sik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 118-3번지와 7필지 서울

공원내

지역 - 지구 자연목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광역근린공원

주요용도 전시시설 대지면적 7.600.0m² 건축면적 $3,081.0m^2$ 연면적 6,597.0m2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첱근 콘트리트조, 철골조

바닥 - 카펫타일 내부마감

> 벽 - 석고보드, 페인트 천장 - 금속제 그릴

외부마감 금속제 패널(라인쟝크), THK24 복층유리

설계담당

96.8 ~ '97.1 설계기간 $^{\circ}98, 2 \sim 2000, 7$ 공사기간 인테리어 (주)시공테크 구조 (주)정일구조 기계 (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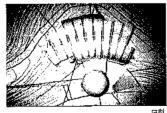
(주)신한전설 전기 시공 (주)신동아종합건설

감리 (주)화실

건축주 한국정보문화센터

박영채(1,2 페이지 스페이스 · 오 제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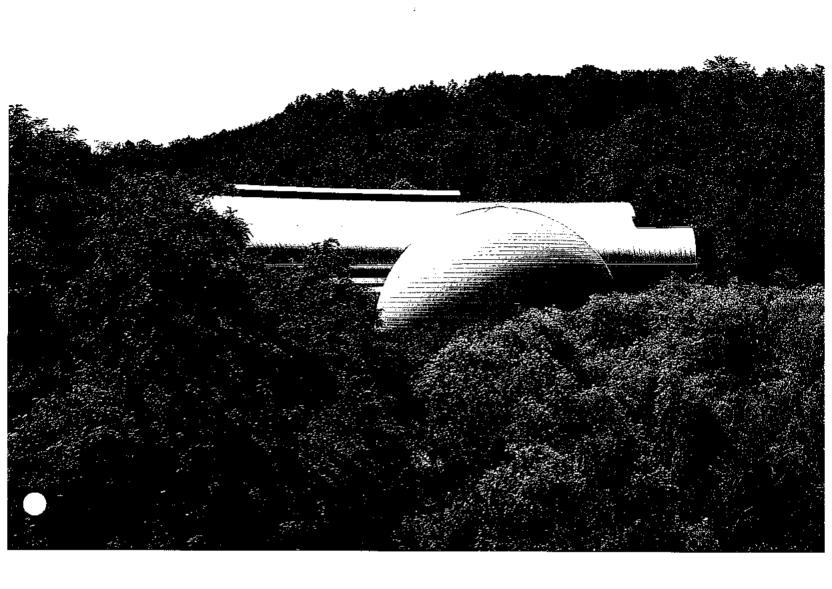
통신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초고속 정보통신관은 미래 정보사회를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국가 사회 정보화를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 : 문화적 효용성 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청소년 및 새로운 세대에게 도래 되는 미래 정보사회의 체험을 습득하여 세계의 변화 이상(理 想)을 심어주는 인식 확산의 장(場)으로서 역할과 내ㆍ외부 국내의 관련 정보 교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로 서 홍보 전시 · 교육 · 정보교류 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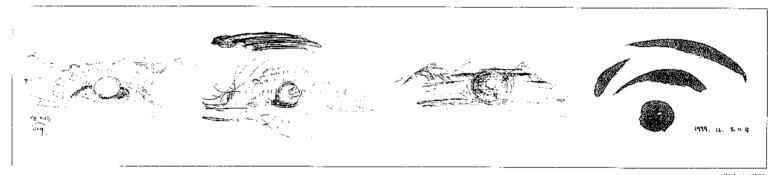
도 각계각층 및 범국민적인 사업으로 확산하는 초고속 정보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우리 나라

이 초고속 정보통신관은 서울 도심에서 15km정도 떨어진 서울대공원 내의 부지에 입지하고 있으 며, 청계산 옥녀봉과 응봉과 위세를 배경으로 전면에 호수를 조망케하는 최적의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완만하고 부 드러운 곡선은 지형에 순용하는 건축디자인의 모티브를 이 루고 있으며, 연관된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차 세대 감성에 호응하는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계획의 착안점으로는 첫째,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환경계획 을 수립하고, 한국특유의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미를 살린 건물형태로서 기존수림 및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건물 배치 계획을 하였다. 둘째, 공원의 주요 축과 연유한 배치를 함으 로써 공원 전체시설과 전시관이 일체되도록 의도하였다. 셋 째, 전시의 가변성 ·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계획과 내 · 외부 공간을 연계시키도록 외벽을 투명체로 디자인하였고, 지붕 의 형태를 율동적으로 처리하여 "파장"의 분위기를 연출하였 다. 넷째, 철, 유리, 금속제를 결합한 최첨단 건축공법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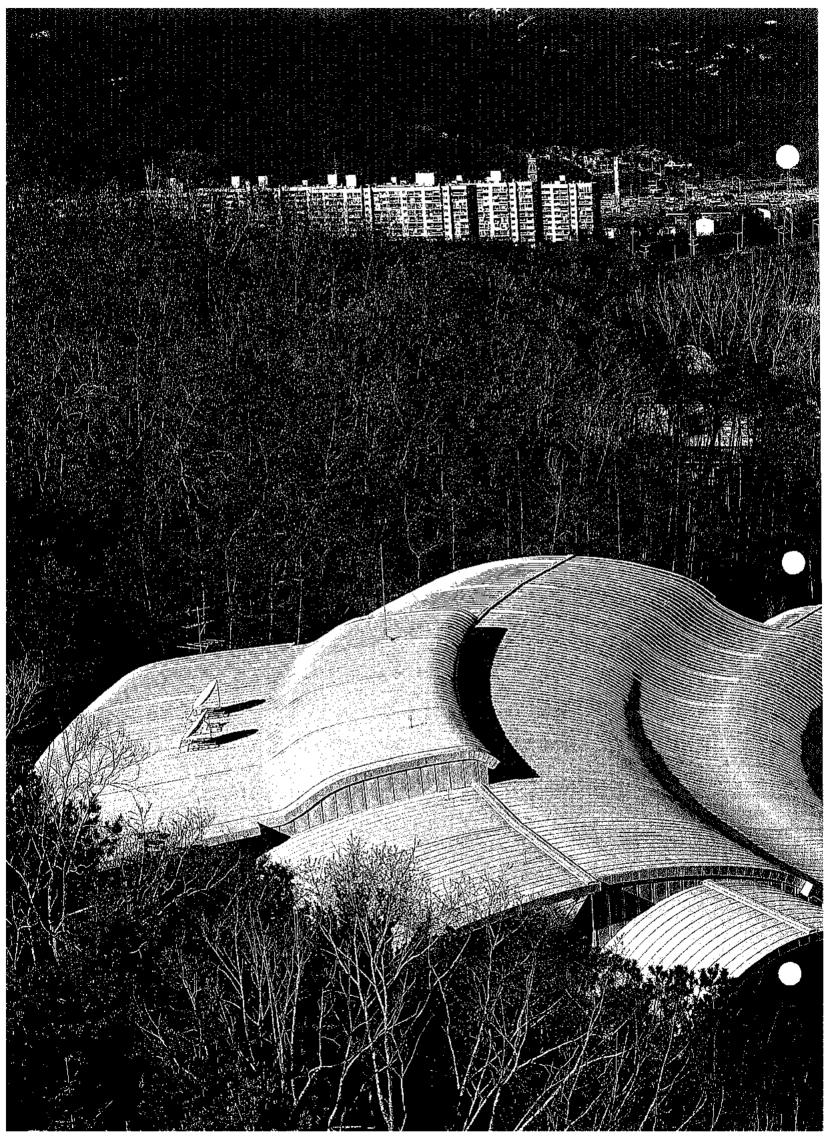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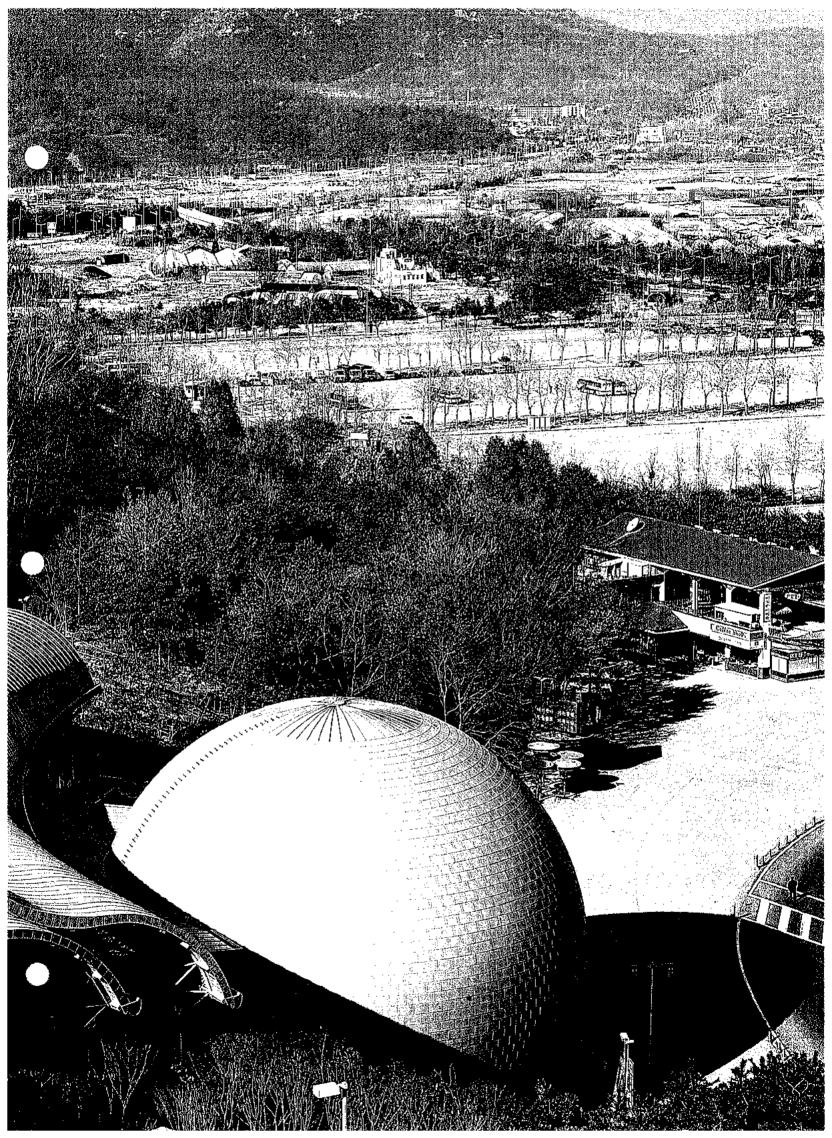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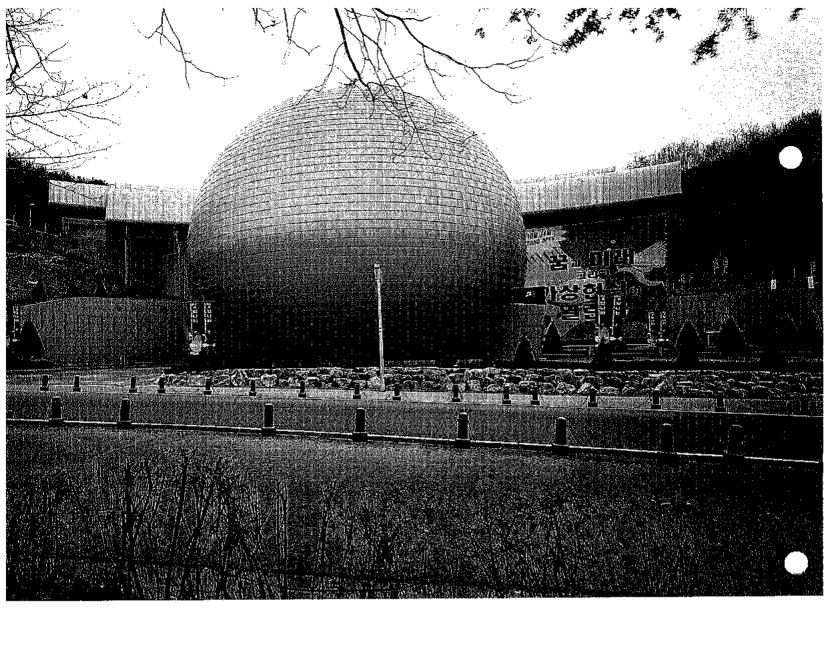
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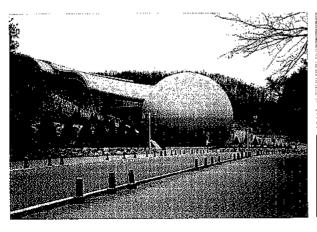
용함으로써 건축의 기반을 이루는 구조와 현대적인 미가 융 합되는 하이테크(Hi-Tech)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존 전시 관과의 차별성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유리로 마감된 외벽 을 통하여 관람 및 일반 보행자에게도 전시내용을 간접 체 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야간에는 다양한 조명연출로 전시관의 외형이 호수면과 조화를 이루어서 옥외광장과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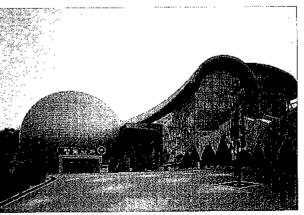
계되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대공원의 랜드마크(landmark) 로서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경사면을 살려 대 지에 개방된 아트리움과 공원과의 연속성을 갖게 하였으며, 일곱째, 전시관과 옥외광장, 전시관과 전시관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여러 정보가 교류하고, 새로운 장소와 만남을 만 들어 내며 다양한 체험이 가능토록 계획하였다. 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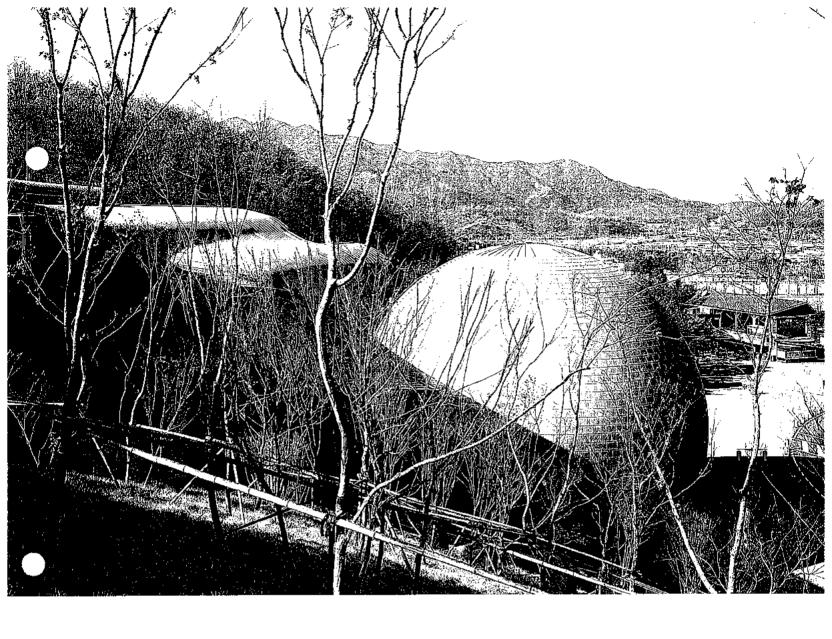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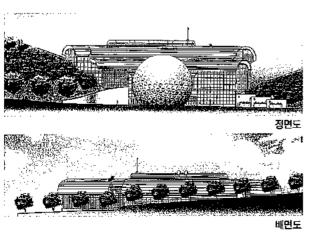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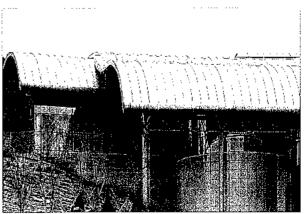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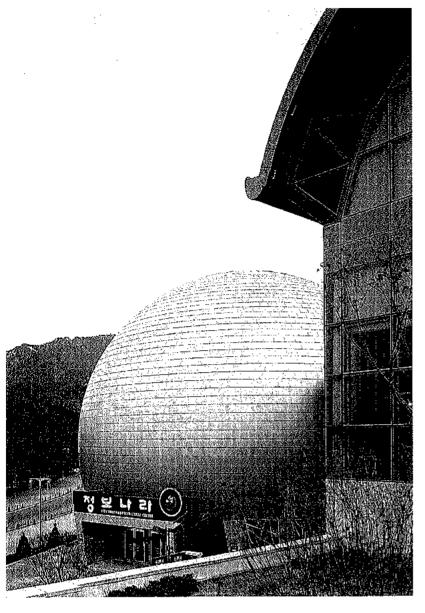












Inside Seoul Grand Park, San 118-3 and Location

seven other plots, Makgae-dong, Kwachon

City, Kyunggi Province

Area Specification Natural Green Area, Development Restriction

District, Broad Area Park

Main Function

Exhibition Facility 7,600.0m²

Site Area **Building Area Total Floor Area**

3,081.0m² 6.597.0m²

Number of Floors

3 with 1 Basement Floor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Steel Structure

Interior Finishings

Floor - Carpet Tile, Wall - Gypsum Board, Paint

Ceiling - Steel Grill

Oh Yong-hwan

Exterior Finishings

Steel Panel(Line Zincs), THK24 Double Glass

Project Architect

August 1996 - January 1997

Design Period Construction Period

Interior

February 1998 - July 2000 Shigong Tech.

Structural Design Mechanical Installations Kusung Enc.

Jungil Structures Electric Installations Shinhan Electrics

Construction

Shindongah Engineering

Management

Client Photograph Information Culture Center of Korea

Park Young-Ch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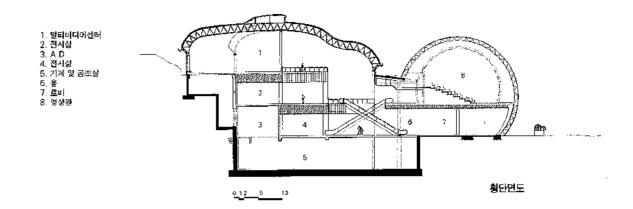
In preparation for the information-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this country has been in execution of vigorous developments concerning super highway telecommunications.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provide a virtual experience of this information-based future to come through its exhibition spaces, to advertise the importance of super highway telecommunication industry in the society of tomorrow, and to prove the social, cultural usefulness of this technology to the people.

It also performs the role of providing the next generation with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society of information and thus expand their viewpoint towards the ideal aspects of the future world, while supporting, as an information center complex with exhibition, education and data exchange space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related fie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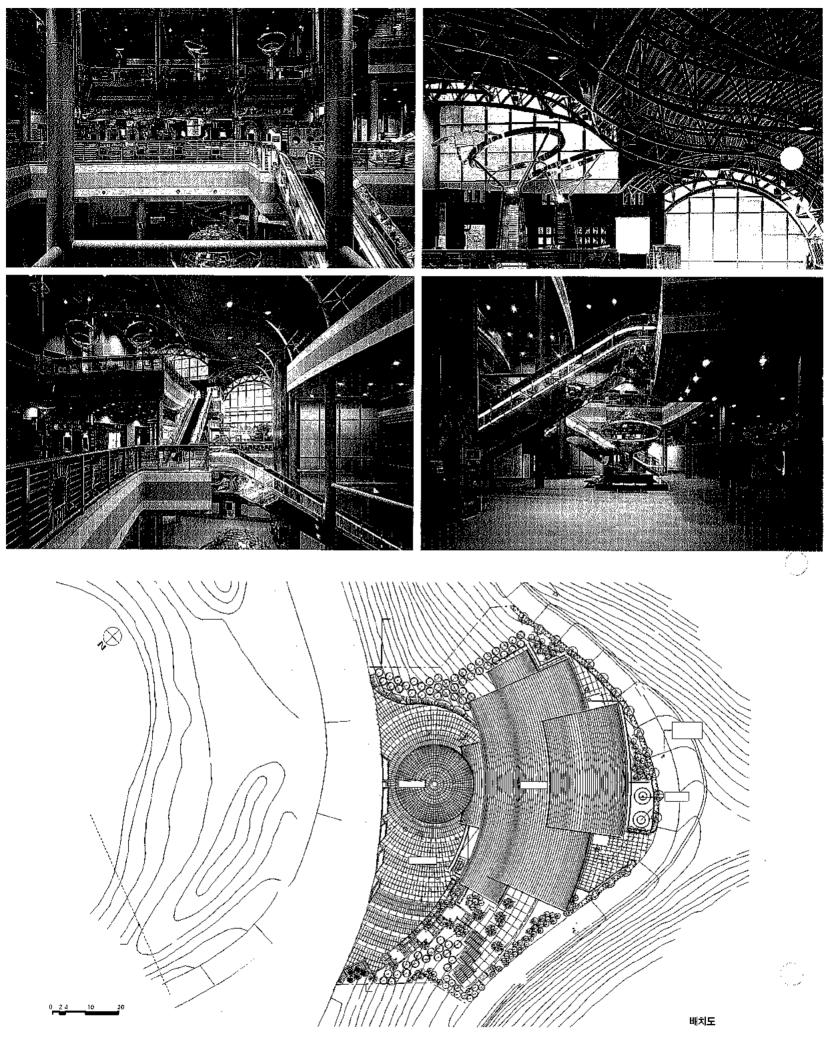
This Center is located inside Seoul Grand Park, 15km outside the center of the capital. With ridges Oknyeo-bong and Ung-bong of Mt. Chunggae as its backdrop, and its front open towards a lake, it is given a beautiful natural con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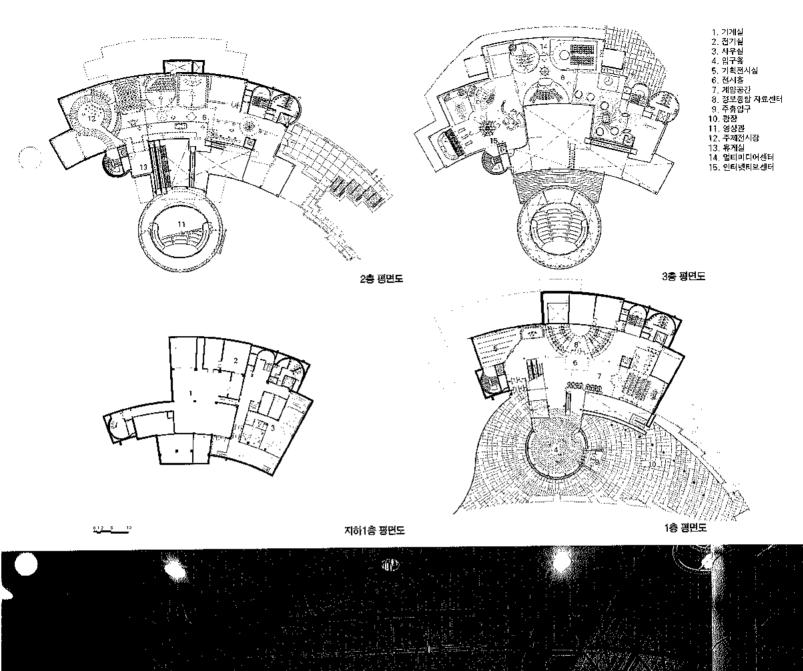
Curving lines, following the geographical contour of its surroundings, were accepted as an architectural motif, and with the adoption of advanced technology of respective fields, a novel form was created that appealed to this era's new sensibility.

The seven principles of its design are: The first was to establish an environmental planning which suited the national sensibility, without altering the natural aspects of the site. A softly bending shape, often seen in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was used in the massing of the building. The second was the integration of the exhibition building and the general facilities of the Park, through superimposing its layout on the Park's existing axis. The third was to consider future change and expansion of exhibition spaces in the structural planning process, and to make the outer skin transparent to form a link between the outside and inside spaces. The shape of the roof followed a rhythmic form to suggest movement of a wave. The fourth was to use state-of-theart construction skills with materials such as steel, glass and metal, differentiating it from the old exhibition building by its hightech image merging the basic structural elements with modern aesthetics. The fifth was the use of the glass wall to enable passers-by to have an indirect experience of the exhibition. At night, the building is lighted in such a way to become harmonized into the scenery of the lake, and provide a landmark image of Park in connection with the outdoor plaza. Sixth, making full use of the slanted site, a link to the Park and atrium open towards the ground is planned, and seventh, an exchange of information is promoted by the network between the exhibition hall and outdoor plaza, and between the exhibition halls. Emphasizing the new placeness of the facility, along with its natural connections, the Center provides its visitors with a variety of meaningful experiences.











Super Highway Telecommunication Center

알·파장, 그 이미지의 표현

Ball & Wavelength and Expression of its Image

건축사 / 오기수(스페이스 오) 대담자 / 이영수(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Lee Young-Soo & Oh Ki-Soo 일시 / 2000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장소 / 스페이스 · 오 사무실**

이영수 먼저 정보나라 신축을 축하드립 니다. 이 건물은 현상설계에 의해서 건축가와 전시팀(시공 테크)이 콘소시엄으로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오기수 이 건물은 건축과 전시기획팀이 합동으로 현상설계에 의해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당시 정보 통신부에서 하나의 샘플로 초고속 정보망에 대한 교육적 효 괴를 거두기 위한 홍보관 성격의 건물로 전시물에 대한 구 체적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전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시기획을 갖고 시작되었던 작품입니다.

이영수 그렇다면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었습니까?

오기수 시실 초기에는 전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었고, 전시의도만 있었기 때문에 전 시팀은 전체 기획만을 제안했었고, 이후 실시설계단계에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 내용은 약간 변질되었 다고 봅니다. 사실 준공된 지금도 전시물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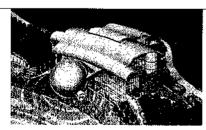


대담광경 (왼쪽:이영수, 오른쪽:오기수)

100% 확정이 인된 상태로 진행중인 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운영에 따라서 전시물이 변경될 부분이 많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영수 이 건물은 대지경사가 심하고 어 릴이대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요소가 많고 단 면상의 어려움이 많아 실시설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현상설계 당시의 작품과 지금 완공된 후의 작품의 큰 차이가 없는지요? 그리고 선생님께 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디자인 개념은 무엇인지요?

오기수 현재 정보나라의 위치가 서울어 린이 대공원 우측 계곡에 위치하면서 입구에 있기 때문에 너무 눈에 띄거나 자연을 훼손한 인상을 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최대한 경사지를 이용한 단면 계획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러한 개념이 설계 심사단계에서 높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상설계 당시의 계획과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 설계 과정에서 흔히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시실 비전문기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작 설계에 도움 이 안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행정상의 경직성 때문에 어려



정보나라



여주대학교 채육관



여주대학교 기숙사







도봉산정거장



바탕골 소극장

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원래보다 건물이 1층정도 낮아졌 고 그 결과 비경제적인 공사가 초래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 Lick

이영수 비교적 초기 계획대로 지어졌다 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초기의 계획의도에 대해서 좀 더 구 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오기수 현상설계를 준비하면서 스케치 했던 내용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대지조건이 매우 경사가 심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대지를 둘러보고 우리나라의 산수 화 같은데서 볼 수 있는 첩첩신중 같은 자연조건에 둥근 달 이 떠있는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같은 대지를 접 하고 나서 느껴지는 매우 간단한 이미지의 도출은, 초생달 모양에 떡방아 찧는 모습의 동요에서 이미지화한 농기구박 불관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 매우 간결하고 단순한 이미 지름 연상하고 그것을 건축적으로 환원하여 풀어나가는 작 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건물의 조형개념인 달의 이미지는 전면에 있는 알이 부화하는 듯한 형태의 형 상인 영상관을 배치하고, 산의 이미지는 정보라는 단어에 서 유추된 파장을 연상시킨 부드러운 3차곡선의 형태를 가 진 전시관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시와 전시방법 을 노출하기 보다는 전시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건물 모양 이 어떠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미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영수 호수를 끼고 있는 좋은 조건 속 에서 호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데 배치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기수 단면개념에 있어서 경사지를 최 대한 이용하고 토목공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 면서 외부에서도 전시가 가능하도록 초기개념에서는 전면 도로 앞에 있는 호수에 면한 나대지도 대지로 보고 전자파 장과 같은 Paving도 같이 해서 정보나라의 마당으로 처리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지 경계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때문 에 광장이 짤려 나간 듯한 배치가 되었고, 따라서 영상관이 도로에 바로 면해서 위치한 것같은 배치가 되었습니다. 변 명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초기 개념과 같이 조금 더 대지 에 대한 할에 즉, 대지를 훼손한다는 의미에서의 확장이 아 니라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배치 되었다면 좀 더 여유 로운 배치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날는 부 분입니다.

이영수 이마 그래서 건물을 처음 접하면 서 마치 도심지에 위치한 것처럼 도로전면에 너무 붙어 있 고 매스가 전체부지에 비해 조금 비대하다는 느낌이 들었 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관과 전시관의 매스연결은 자



상수동주백



서리벌대학 본관동



서부지청







양평주택

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기수 시실 도로면에 있는 영상관과 경 사면의 전시관이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의도는 영상판과 전시관 두 건물이 서로 자율적인 형태를 갖기 위해 전시관이 지금 보다 조금 뒤에 배치되고, 따라서 지금보다 1층정도 높은 단면을 취하고 있었으나 예산상 토목공사가 많을 것을 우려 하고 건물을 낮춰 달라는 발주처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 서 영상관은 그대로 두고 전시관 건물 전체를 전면으로 조 금 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건물이 서로 인접하게 되면 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영수 원형과 부정형의 매스 처리를 위 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기수 이번 작업을 하면서 컴퓨터의 힘 을 새삼 느꼈고, 박스형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컴퓨터 작업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영상관의 원 형형태와 전시관의 파장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곡선의 지붕처리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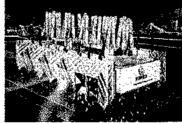
이영수 재료설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기수 특히 전시관의 지붕재료는 아마 이 정도의 규모로서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일제 Line Zincs라는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재료는 납처럼 색깔이 변하고 굴곡이 심한 부분을 껌같은 효과로 변형 기능한 부분을 잡이주기 때문에 이 재료가 아 니였으면 이러한 자연스런 곡면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었 을 겁니다. 아마 프랭크 게리도 이 재료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비가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마도 다른 재료로 이러한 조형효과를 얻을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을 관찰시켜 준 발주처의 노력도 있었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영수 호수 건너편이나 산위에서 바라 보이는 영상관과 전시관의 저붕이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우 주선을 연상시킨다고 할까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 면 평면계획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동선처리에서 일단 3층 으로 예스컬레이터를 타고 율라가서 하층으로 이동하는 동 선을 택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기수 그것은 경사지를 이용하다 보니 까 동선의 간결함을 위해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하는 하 항동선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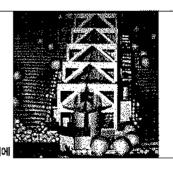




expo93대전상징탑계획인



expo 한국관 K 아트리에









청도농기구 박물판

이영수 이 건물은 건축가와 전시팀이 협 력한 건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두 영역의 일인지가 분명 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건물과 인테리어가 그리 잘 조화된 건물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 인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오기수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건축가가 전체 Director가 되어야 일관성 있는 건물과 전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부분은 내 영역밖의 일이였기 때문에 서로 켜뮤니케이션이 되지 않 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지붕 트러스의 경우도 전시물을 위해서 구조는 가능한 노출안되게 처리하길 원했 고 색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재료선정에 있어서 반사가 있는 반짝이는 재료를 지앙했으나 그렇지 못했고, 소 리나 하드웨어 처리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그리 만족스런 인테리어가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욱이 감리자가 건축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 것 같습니다.

이영수 이곳에서 가장 형태적으로나 공 가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곳은 영상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등근천정에서 보여지는 3차원적인 영상은 신비롭기까지 합 니다.

오기수 27m 지름의 영상관은 약 150명

을 <mark>수용</mark>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건물입니다. 더 커지면 영상처리에서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야기되죠. 원 래 의도는 영상관 외부통로부분을 유리로 처리해서 외부 전 경이 노출되는 좀 더 개방적인 공간을 시도했으나 아까 말 씀드렸던 단면상의 수정에 의해 좀 더 드라마틱한 공간의 연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영수 끝으로 정보나라가 완공된 후 현 재 사용되고 있는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아쉽 거나 미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기수 건물은 그 시간적 Cycle이 일반 적으로 100년을 볼 수 있지만 전시물의 경우 그 시간적 Cycle이 매우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요구 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심지어 다른 용도로까지 변형될 수 있는 기변성이 높은 공간계획은 물론 내부공간의 확충까 지도 고려한 구조계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 한 전시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계획했다고 생각함 니다. 다만 개관한 이후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어린이들의 오락장소로 변질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시 프로그램과 운영상에서 앞으로 관람객, 특히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



홍대 국제정보통신센터



홍대 기숙사 계획안



홍대 조치원 분교

Super Highway Telecommunication Center

입자와 파동

Particle and Undulation

양상현 /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Yang Sang-Hyun

과천 서울대공원은 참 흥미로운 곳이다. 서울랜드라는 거대한 놀이공원이 있어서 아이들의 성화에 못이긴 부모들의 힘겨운 순례지가 되는가 하면 청계산 깊숙이 자리잡은 현대미술관이 신혼 부부의 그럴싸한 사진 배경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 뿐이라. 경마장에다가 동물원도 있고 거대한 호수까지 펼쳐져 주말 나들이에 더 없는 장소가 된다. 길만 막히지 않는다면.

그 곳에 "정보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볼거리가 하나 더 들어섰다.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정보사회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곳이다. "미래정보사회를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공간으로 기획"되었다.

형태 : 구와 튜브, 입자와 파동

주차장을 지나 서울랜드 쪽으로 올라가는

The Seoul Grand Park in Kwachon is a place of wonder - with the insistence of children parents reluctantly bring them to Seoul Land, a theme park within the Grand Park, while the Museum for Contemporary Art, located deep in Mt. Chunggae, provides beautiful backdrop for the newlywed's photographs. With the addition of a race track, a zoo, and a large lake, there is little more one could wish as a destination of a weekend's visit. That is, without



능선의 형태를 수용한 자봉 꼭선



구와 튜브의 결합부

리프트 승강장을 돌아가면 이 건물이 보인다. 커다란 구(球)형의 입체와 길게 누운 튜브 모양의 매스가 건물의 주된 외관을 형성한다. 이 두개의 조형은 아이 손에 이끌려서울대공원을 가 본 이라면 친숙하게 떠올릴 수 있는 형태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서울대공원 입구의 표본전시관(종합안내소)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서울랜드 내에 있는 '돔 영화관'이 그것이다. 서울대공원 내에 있는 대표적 건축형태를 차용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친숙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구의 비일상적인 조형 이미지는 리프트 승강장 쪽으로부터의 진압시에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며, 내부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

그 형태적 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이상적 조형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구는 평단한 밑면을 갖지 못하므로 중력의 지배를 받는 지구상의 건축물로 실현되기에는 일정한 장애를 지난다. 그러나 공상과학 영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형태가 또한 구임을 상상한다면 미래사회를 암시하는 형태로 구를 채택한 건축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구는 또한 입자의 표현으로서 물질의 기초를 이

all that traffic jam.

This place now has a new addition for the teenagers and children. It is a place of, as it claims, virtual experience on the approaching information-based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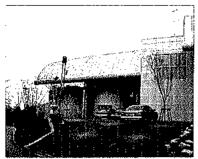
The Form: Sphere and Tube, Particle and

Undulation

Approaching the lift station to the Seoul Land past the parking lot, one comes across a building with the peculiar shape of a grand sphere and a stretched tube. These forms are not strange to those who have been to a theme park, from which the Super Highway Telecommunication Center borrows its motif. This use of extraordinary yet intimate shapes from the Park excites curiosity and imagination from the visitors.

For all its formal perfection, a sphere is at once a symbol of an ideal shape and bound to certain restrictions in actual building - it is difficult to ground it within the field of gravity. However,

거북 유명이 청례 구석



루는 단위형태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그것이 전자 알갱이이든, 빛을 이루는 소립자든지 간에 말이다.

구의 배후는 청계산 자락에서부터 흘러오 는 자연스러운 경사를 따라 동심원상의 곡선을 이루는 튜 보 모양의 매스가 둘러 싸고 있다. 튜브의 지붕이 '완만하 고 부드러운 곡선 으로 자연지형의 형태를 수용하도록 계 획하였다는 건축가의 의도는 건물의 좌측 경사면에서 보면 설득력을 얻게된다. 3층의 매스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낮아. 지는 지붕곡선은 건물 우측으로 흘러가는 능선의 모습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있다.

앞서의 구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나타 낸다면 구를 둘러싸고 있는 튜브의 형태는 움직이는 파동 을 표현한다. 빛의 속성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 다면 이 두 가지 속성이 정보나라의 형태요소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빛이 입자와 파동의 결합이라는 설정은 분 명 흥미롭지만 이것이 구와 튜브의 조합을 순조롭게 보장 하지는 못한다. 구와 잘려진 튜브라고 하는 강력한 형태 요

it is this very shape favored by sci-fi filmmakers, and it is in this respect the architect's decision to use this form in this future inspiring facility can be understood. A sphere also symbolizes a particle, an element that compose this physical world.

Surrounding this sphere is a volume of concentrically undulating tube, whose underlying idea to follow the geography of Mt. Chunggae is most clearly displayed when seen from the left hill side of the building.

Whereas the sphere stands for the particles that make up the materials, the shape of a tube expresses the movement of a wave. Light is believed to be simultaneously particle and undulation, which are both used as a model for formal elements in this Telecommunication Center.

This, however, does not mean that the two shapes naturally come together in realized forms. As strong forms by themselves, it is often exclusive of the other, and, as we can see in



내부꿈간으로 침입해 들어오 는 외부의 경관

소들은 쉽사리 결합될 수 없는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불례 의 뉴튼기념비의 경우 구형의 매스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스스로 우주의 중심과 연결된다.) 이 두개의 요소를 하나의 조합으로 묶어내는 일은 분명 까다로운 일이다. 구와 튜브 를 결합하고 있는 것은 어정쩡한 유리박스와 육중하게 돌 출된 수평의 지붕이다. 이렇게 결합된 두개의 매스의 동거 는 적절하지 못하다. 서로를 불편하게 묶고 있는 유리박스 가 없다면 구는 금방이라도 튕겨져 나와 순환도로를 따라. 굴러 내려올 것 같다.

건물의 정면이 배타적인 매스의 조합으로 인하여 위압적인 구성을 보여준다면 관리자들의 출입동선 으로 쓰이는 후면의 모습은 다양한 매스로 인하여 오히려 흥미로운 결합을 보여준다. 뻗어나간 튜브의 지붕아래 편 안하게 놓인 원통형의 매스(3층의 화장실과 계단), 육면체. 그 안에 적절한 비례로 뚫린 개구부들은 전면이 지닌 딱딱 함을 상쇄해주고 있다. 불행한 것은 이 쪽의 입면이 일반 관람객에게는 인지될 수 없는 후면이라는 점이다.

Bouli e's Newton Monument, a choice from the two independently emblematizes the center of the universe by itself. Managing a coexistence of the two is certainly a difficult task, and the solution of the Center to link them through a glass box and awkwardly projected roof also seems unsatisfactory. Without the straining glass the sphere looks as though it will fall off the building and roll towards the circulating road.

On the other hand, the rear side of the Center, where the entrance for the employees is, is more joyful with its play of various masses. Under the tubular roof a volume of cylinder containing the restrooms and staircases of the three floors - and a hexahedral bulk, with carefully imposed openings, easily create a natural-looking combination that is quite opposite of its somewhat forced facade. Unfortunately, this view of the back side is not usually attained by the visitors.

The Material: Steel Panel and Glass





재료 : 금속판과 유리

튜브의 지붕면과 구의 표면은 라인징크로 마감되었다. 금속제 패널이 지니는 육중함은 미래의 정보사 회가 지니는 속도감과 다양성을 수용하기에는 사뭇 버거워 보인다. 보다 반짝이는 경쾌한 재료가 선정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유리로 마감된 외벽을 통하여 관람 및 일반 보행자에게도 전시내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건축가의 의도는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 다. 전시관의 특성상 내부공간의 벽면은 어둡게 구성되며 이 건물의 유리벽면 역시 휴게실 등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 는 블라인드로 모두 막혀 있다. 내부의 활기는 외부로 전달 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전시장에서 언뜻언뜻 보이는 외 부의 경관은 미래의 사이버 세상을 가상한 이미지들로 감싸 진 내부공간의 분위기를 곤혹스럽게 깨뜨리고 있다. 영화관 에서 상영 도중 화장실에 갔을 때 느끼는, 영화 속 세상과 현실과의 충돌에서 오는 이질감처럼 말이다.

내부공간 : 디지털 or 아날로그

The roof of the tube and the surface of the sphere are finished with line zink. The heaviness of the steel panels is somewhat in disaccord with a sense of velocity one expects in the infornation-based society to come. Perhaps a more light material should have been suitable in this case. Also, the intention of the architect to enable the passers-by to have a glance at the exhibition spaces through the glass wall is not realized that well. As far as the



나부의 어머지는 <u>외부에서는</u> 경의 경합되지 않는다



거목내부-가상공기의 이미지



관람객은 구의 아래쪽 일부에 설치된 입구 를 관통하여 진입하게 된다. 구가 갖는 형태의 신비로움에 비하여 돌출된 입구는 의아하리만치 평범하다. 내부공간은 주된 전시공간으로 사용되는 1, 2, 3층이 모두 전면을 향하 여 개방되어 단일한 공간을 형성한다. 에스컬레이터 등의 수직통선이 놓여있는 전면부는 지붕에서 1층 바닥에 이르 기까지 뚫려 있어 시원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교차하는 수 직동선을 오르내리는 관람객들과 각 전시관을 바삐 움직이 는 아이들의 들뜬 움직임을 한눈에 바라보는 일은 흥분 섞 인 즐거움을 던져 주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관람객은 에 스컬레이터를 통하여 3층으로 인도된다. 3층은 뒷면의 경 사지를 이용하고 있어서 가장 넓은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있 다. 관람객은 3층의 전시실을 순회한 후 아래층으로 내려가 면서 전시관을 돌아보도록 되어 있다.

내부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내 도우 미들의 번쩍거리는 의상처럼 '디지털' 세상의 미래적 느낌 을 주도록 의도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색조는 푸른색을 주 조로 하여 경쾌한 느낌을 제공한다. 실내의 각 부스에 부착

conditions for the exhibition areas go, they are dark and need partitions for display. With much of the glass walls covered with shades, openings to the inside/outside are rare. The lively atmosphere of the indoor hardly get a chance to manifest itself to the outside, while the outer world's banal view from the inside often obstructive to the verisimilitude of the indoor cyberspace.

Indoor Space: Digital or Analogue

The visitors enter the Center through an entrance placed at the lower part of the sphere. The entrance itself is curiously too ordinary compared to the outlandish use of the sphere. The interior space is created as a single volume with all three floors open towards the enormous center space, where the vertical movements are made via the elevator. This provides an exciting scene as one observes the whole performance of the facility from visitors moving through intersecting paths to motivated children running from hall to hall. From the entrance, the escalator invites the visitor to the thi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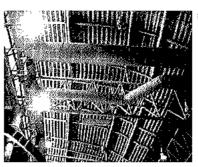
된 조형요소와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등은 스테인레스스 틸로 마감되어 매끄럽게 처리되고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아래에 설치된 조명은 수직동선의 상승감을 부각 시킨다, 자칫 무심해질 수 있는 계단실의 벽면도 정보사회 의 이미지들과 산뜻한 조명으로 채워져 위, 아래충 사이를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흥미를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이러한 금속성의 경쾌한 홍겨움은 시선을 올려 천장면에 이르면 이쉽게 깨어지고야 만다. 천 장면의 하부는 철재골판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설비용 덕 트들은 둔중하게 노출되어 천장면을 누비고 있다. 지붕을 지지하는 노출된 트러스는 육중하게 보이며, 기둥 역시 날 렵하지 않다. 천장부의 색조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조로 단일하게 처리되었다. 각 구성 요소가 보다 경쾌하거나 날 렵하였다면, 그래서 그 색상과 재질을 세심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더라면, 노출된 배관은 디지털 기판의 회로와도 같 은 기계미를 드러낼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이쉽게도 기 등과 천장면의 둔탁한 처리는 이 건물의 프로그램이 지향 하는 '디지털' 적인 의도와는 달리 한 시대쯤 전의 공장과도

floor, which by use of the slanted condition of the site has the largest exhibition space. From this area, we are then connected to the exhibitions of the lower floors.

The general atmosphere of the indoor space has that 'digital' touch one can feel in the shining costumes of the attendants. Blue is the overall tone of color, emitting a cheerful feel. The formal elements of the booths, escalators and the handrailings are made of slick stainless steel, while the lightings under the escalator handrail enhances the image of diagonal movement. The wall of the staircase, often a spot of neglect, is filled with images of the future society that maintain the interests of the visitors during passing.

But the joyfulness of steel materials comes abruptly to an end as one views the ceiling of the building. They are finished with corrugated steel plates, which are then covered with a lower layer of bulky installation ducts. The truss structure supporting



같은 '아날로그' 적인 면모를 내보이고 있다. 정보사회의 미 래상을 제시하겠다는 꿈에도 불구하고 번쩍이는 가상의 뒤 에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이 지니는 우중충함을 어 쩔 수 없이 드러내는 일면이 아닐 수 없다.

이 건축이 갖는 아쉬움에 대한 지적의 상당 한 부분은 건축가의 몫이 아니다. 자주 변경되는 건축주의 프로그램과 시공비와 경제성에 대한 고려, 공사기간의 빠 듯함 등을 먼저 언급해야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지가 갖는 지형적 특성에 대한 건축가의 해석과 서울 대공원의 전체적 이미지를 감안한 형태 구성 등에 쏟아 부 은 고심의 흔적은 정보나라가 갖는 미덕이 될 것이다. 圖

the ceiling also looks too heavy, as does the columns. The dark, monochromic color of the ceiling further dims our view. If the elements were a bit lighter, with a more subtle consideration on the colors and materials, the ducts could have took on an image as a circuit from a digital chip. Alas, with the present condition it is more 'analogue' than 'digital' - reminding us of a factory from the past era, it inadvertently reveals that behind the fancy images of a virtual tomorrow there is inevitably the gloomy world of reality we live in.

The architect is not to be held responsible for most of the less successful points mentioned in this criticism. The continuous changes in program on the part of the client, the constraints of construction cost and time must have heavily influenced the design process. Nevertheless the Telecommunication Center is distinguished by the architect's analysis on the surrounding nature and the integration of Seoul Grand Park's formal motifs into its own design. 🗟

문호리주택 Wi - Residence

임재용 / 건축사사무소 O.C.A Designed by Lim Jae-Yong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양주군 서종면 문호리 262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 져역지구

대지면적 685m² 건축면적 263m²

연면적 380m² 건폐율 38.4%

55.5% 용적률 규모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조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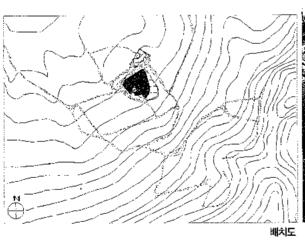
벽 - 남원백석버너구이,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마감

지붕 - 동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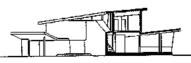
시공자 초원산업개발(서영철)

설계담당 김형진(프로젝트디자이너), 문회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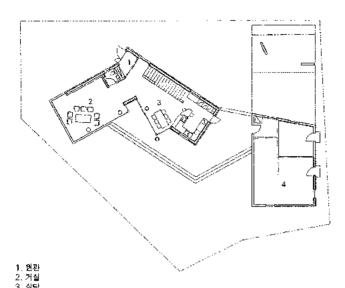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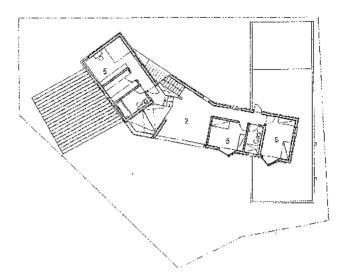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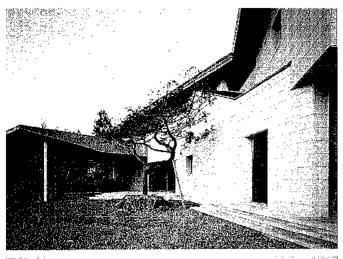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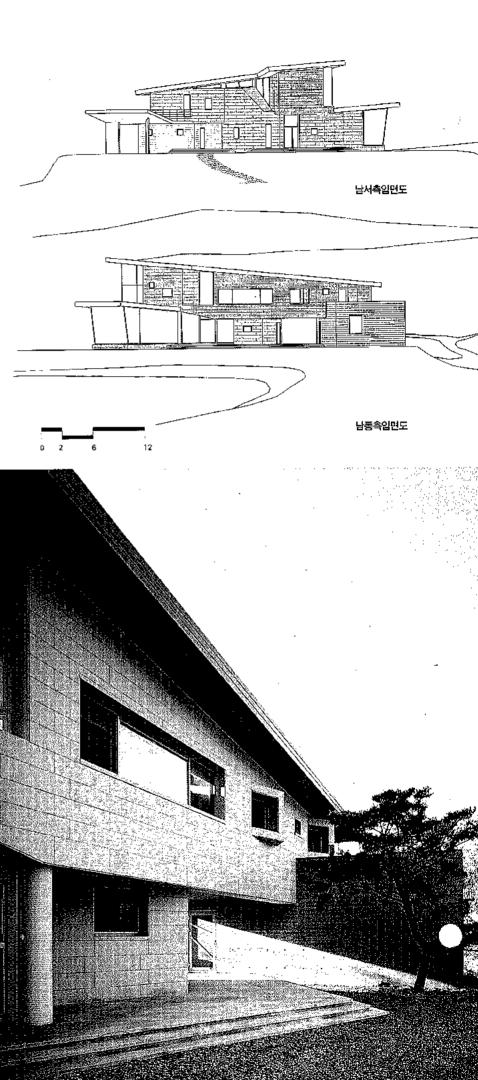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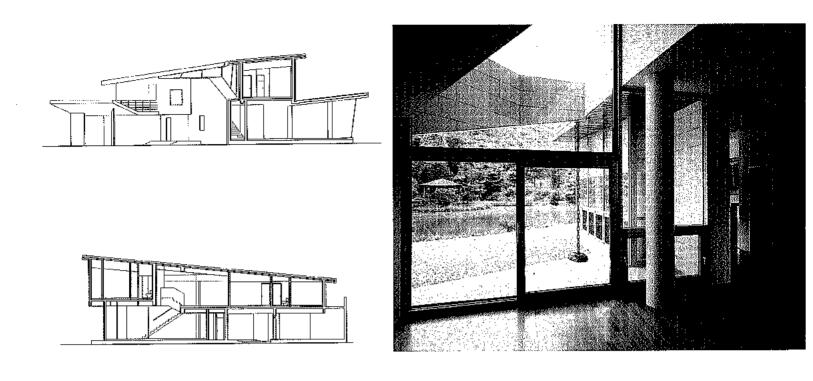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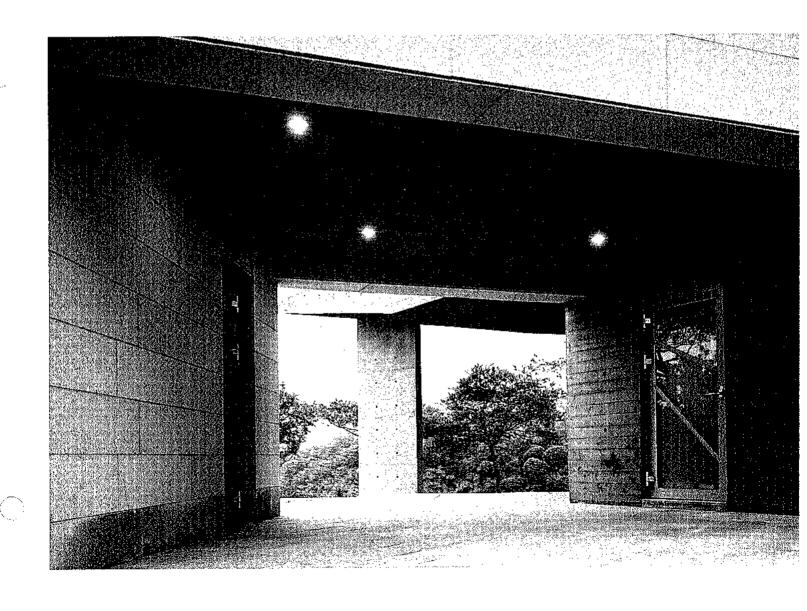
대지를 처음 방문했을 때 건축주가 단지 전체를 담은 조경가의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아 주 인상적이었다. 더욱 놀란 것은 10여년 동안 그 조 경가의 설계대로 단지를 가꾸어온 건축주의 의지였 다. 건축주는 이 단지를 무분별하게 형성되는 기존의 전원단지와는 다르게 개발하기를 원했다. 택지를 조 성하여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상태 그대로 분양 하여 건축가로 하여금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을 하 도록 유도하여 왔다. 그 단지 내에 건축주가 살기 원 하는 땅은 정자가 있는 연못가의 부근이다. 대지 앞 에 바로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주위가 다 열려 있는 땅이어서 어디서 가닥을 잡아야 할지 어려운 땅이었 다. 산의 흐름이 연못 주위로 흘러내리다 평지로 바 뀌는 지점에 바로 계획대지가 위치해 있다.

흔적 남기기

이러한 산세의 흐름을 두 개의 지붕 판으로 대지 내에서 이어보려고 시도하였다. 산 중 턱에서 내려와 연못 주위를 지나 대지를 통하여 아 래 동네로 연결되던 기존의 길의 흐름은 창고와 주 택 사이의 틈을 통하여 연결하였다. 일층의 거실 및 식당 공간은 모두 유리로 처리되어 주변의 자연이 내부로 바로 흘러들도록 하였다. (글/임재용)







연합철강 빌딩

Union Steel Building

김자호 · 오동희 / (주)간 · 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a-Ho & Oh Dong-Hee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 용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지역, 1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규모 지하 6층, 지상 19층

대지면적 1.672.4n² 건축면적 1.047.65m² 연면적 26,388.79nf 건폐율 62.64% 용적률 1,058.82% ᅲ조 SRC.SC조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 커튼월, 저충부 화강석버너 및

내부마감 저층부/스테인레스(에칭, 엠보싱, 헤어라인)

고층부/SGP패널 및 스틸시스템 천정판

공사기간 1995, 11~2000, 8,

설계참여 이상기, 한희동, 고정권, 신정아, 장선경, 이윤형,

시규지

구조설계 정일구조엔지니어링(이호찬, 김재홍) 기계설계 (주)우원 (김진호, 유재권, 강윤석, 이미경) 전기설계 (주)한양전설(이덕영, 이권식, 김훈태)

조경설계 (주)간 · 삼종합건축 조경팀

시공 동국산업(주)(이병민, 김종립, 백근영, 김종학,

한성구, 권윤수, 백옥)

감독청 연합철강(박노식, 이일영, 정동회, 류한영, 유광호)

사진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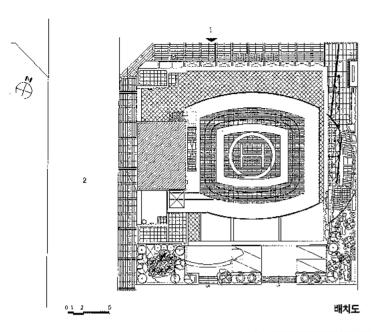
유동성의 건축을 바라며!

해외의 건축물을 통해 건축기술의 발전단계 를 비교해 보곤 했다. 불과 10년전만 하여도 건축기술이라. 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키워드가 되지 못하였고, 그저 좇아서 흉내 내기식의 건축이었을뿐 건축시스템은 발 전되지 못한 단계였다. 10년전부터 추구해온 간삼건축의 다 자인 집단의 사무소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포스코센 터(Posco Center)를 통해 일단 구현되었으며, 이후 코오롱 타워(Kolon Tower)에서 또한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였 을뿐 아니라, 이에 덧붙여 기술의 표현적 의미까지 확장되어 지고 있다.

연합철강사옥은 설계의 시기를 따진다면 코 오롱타워가 한창 공사되고 있던 때에 설계가 되었던 프로젝 트로서 비교적 자신감이 바탕에 깔린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즉, 20세기 후반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건축의 기술, 정 보화 및 인간성의 회복 그리고 에너지 등의 화두에 대해 그 제안방법으로 Flexible, Move, Digital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에 두고 건축물을 해결해 보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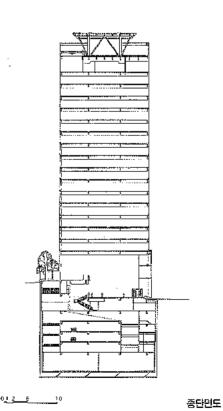
건축의 단면구성방법 및 평면구성 또한 위의 개념의 바탕에서 출발함으로써 저층부 아트리움 등을 최대 한 공간의 공유가 되게하여 도시와 개별건물간에 어반스트 리트(urban street)로서 상호 인터페이스되도록 하였으며, 기준층은 24m 폭의 대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재공함으로써 Flexibility의 극대화를 꾀하였다.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모든 동선의 "유통성"의 확보이다. 즉 엘리베이터는 안과 밖으로 그 움직임이 상호 인지될 뿐만 아니라, 이동의 인지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빛이 투과된 유리상지속에 두 어 계획하였으며, 계단 또한 가장 전망이 좋은 코너부분을 할애하였다.

연합철강은 테헤란로에 대한 조용한 반응일 뿐이다. 도로에서의 시각적인 유인성도 그리 크지 않다. 그 러나 그 건축의 내용에서 표현하고자한 건축의 이슈는 2000 년대 초반에도 적용되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건물 의 정적인 의미가 선적이고 흐름으로서 인식되기를 기대한 다. (글/요동희)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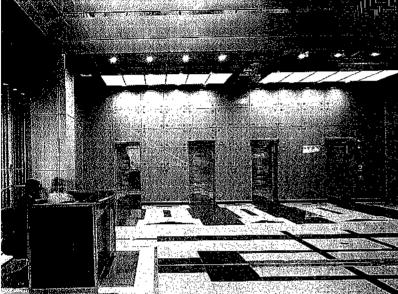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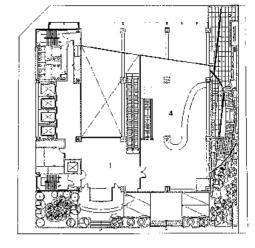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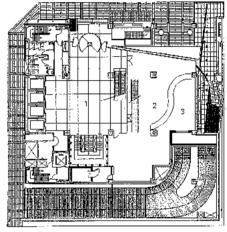
1. 로비 2. 책장 3. 영업장 4. 제2험용 6. 사무실 7. 공조실 8. 아뜨리움 9. 강당 10.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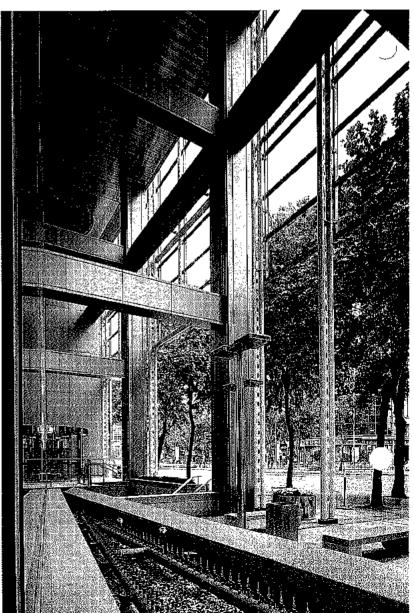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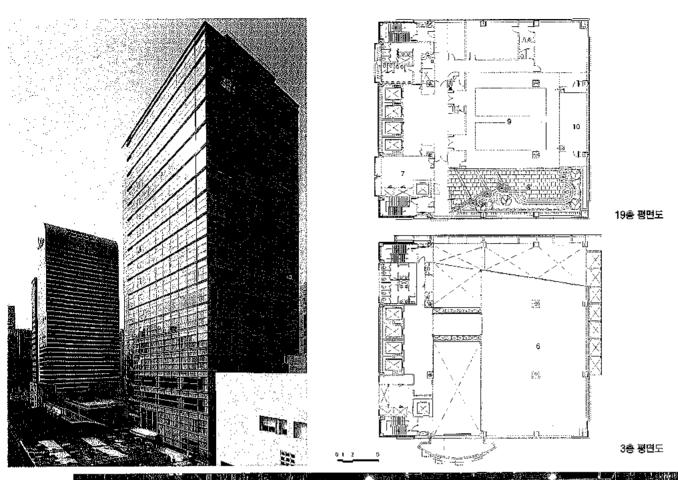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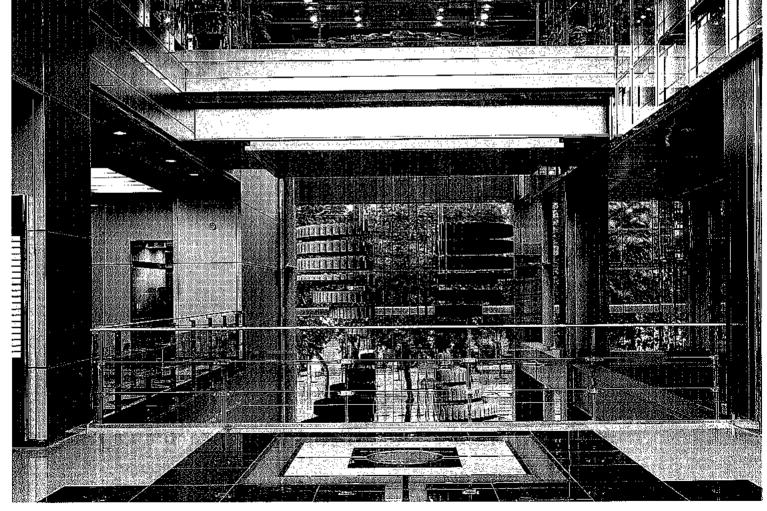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동양 파인크릭 컨트리 클럽하우스

Dongyang Pine Creek Country Clubhouse

이상현 / (주)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ang-Hyu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 산56의 72번지

지역 준농림지역 주용도 운동시설

대지면적 1,543,605.00㎡ (27홀)

건축면적 2,626.56m2 연면적 4,713.59m² 규모 지상2층 주차대수 275대 철근콘크리<u>트조</u> 구조방식

외벽-T30 샌드스톤 / 외벽단얼 TOTAL SYS-외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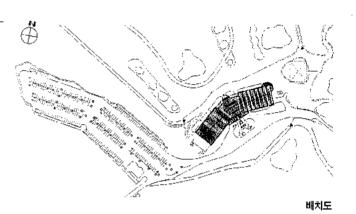
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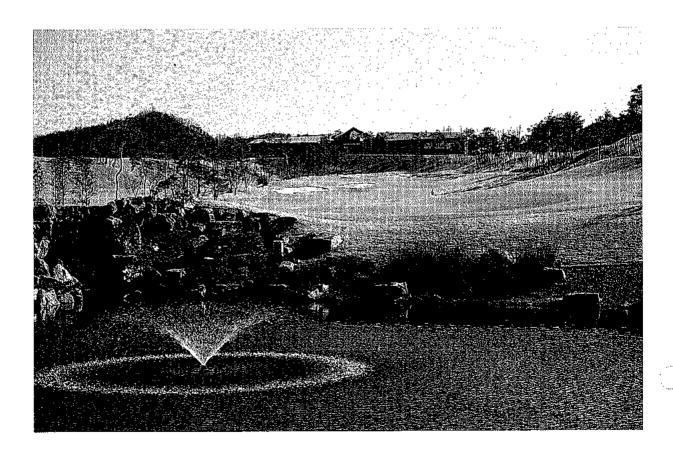
창호 - T16칼리복층유리 / T18파스텔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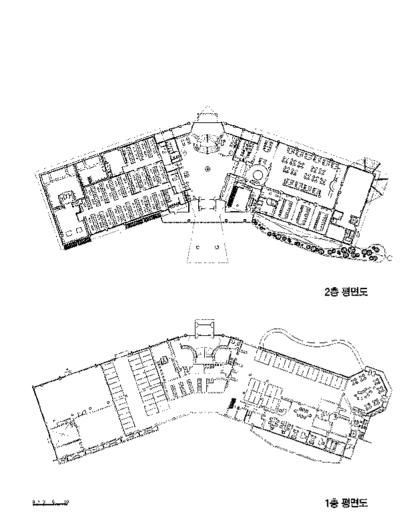
지붕 - 동판거멀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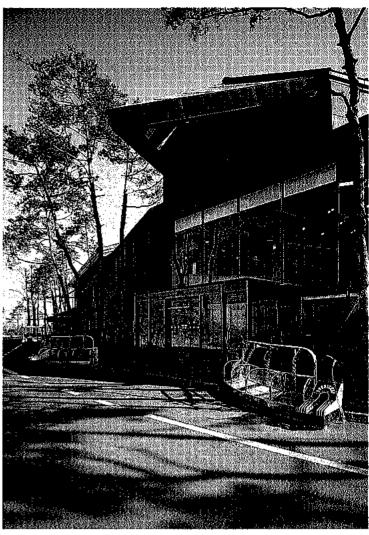
임현준, 우수정, 김규태, 강필중, 김대중, 이혜정 설계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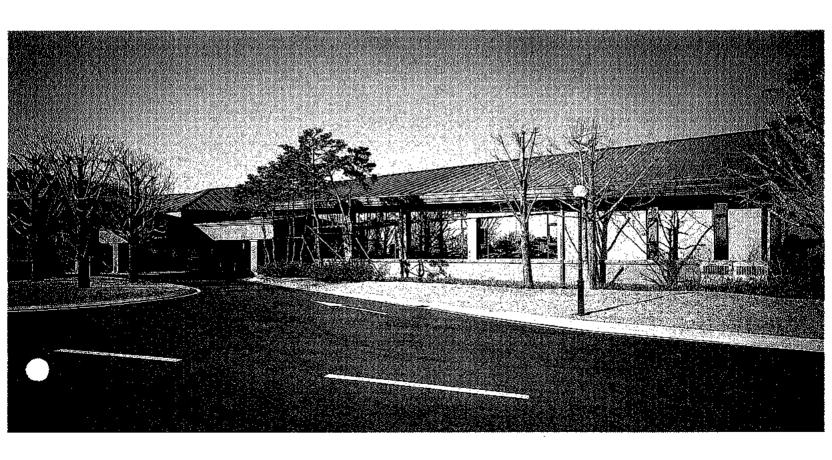
사진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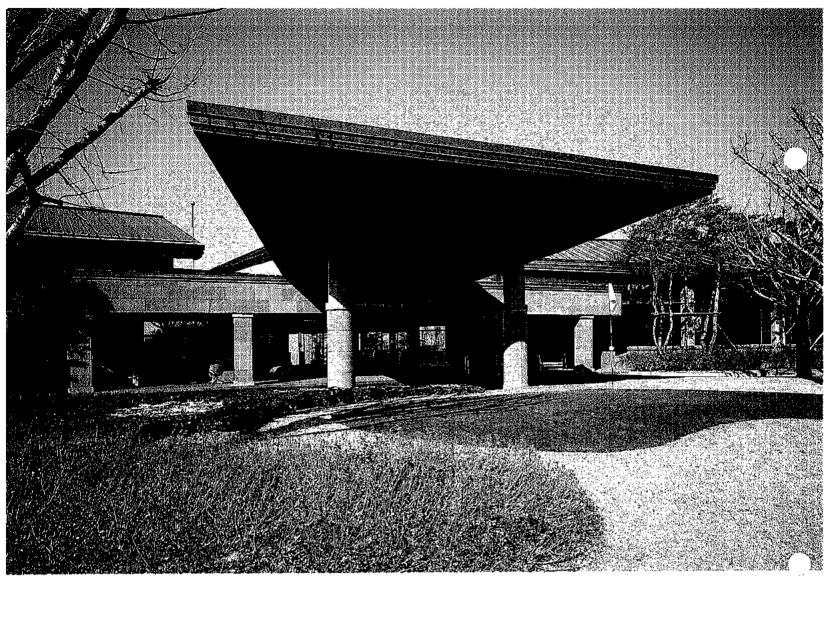












복잡한 도시 탈출!

드넓은 대지에 녹음이 펼쳐지고, 바람이 살랑이며. 진진한 호수엔 물결이 인다. 더불어 하늘에는 한 마리 새가 비행을 한다. 보다 멀리, 보다 높이, 보다 넓은 세상으로의 비상을 꿈꾸 며.....

우리는 대자연 안에서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고 삶 의 여유를 찾는다. 골프라는 스포츠가 인기가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대자연과 함께하는 이유가 아닐까...... 자유롭게 날개를 펴고 자연 과 함께 비상하는 모습! 여유로운 가운데 목표를 향해 비행하는 새 의 모습을 골퍼들은 동경한다. 그 새에게서 여유와 비행을 배우 며...... 골프공이 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으는 한 마리 세가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골퍼들의 희망을 담은 건 물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자연을 느끼고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공 간을 테마로.....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

기존 대지의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해 SKIP-FLOOR 도입시켜 자연지형을 최대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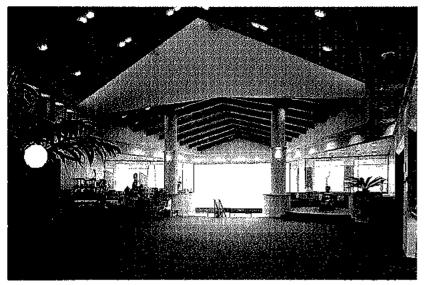
레벨(2층)과 스타트레벨(1층)의 입체화로 골퍼동선을 단축시켰다. 또한 주출입구/주차장간의 차량/골퍼의 효율적동선을 고려하여 over bridge 설치 및 차량회전 위한 전면광장을 두어 목적이 다른 동선간에 서로 교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했다.

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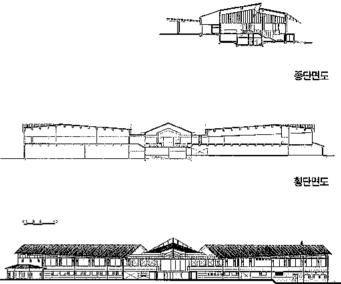
클럽하우스의 주 기능은 옷갈아 입고, 운동후 씻고 간단한 식사와 부대지원시설로 구성된다. 이런 기능적 공간에 자연 과의 교감공간을 고려하여 골퍼와 관련된 모든 공간(식당, 라운지, 단체장, 욕실 등)은 2층부분, 가능한 코스 쪽 전망을 향하도록 배치 하였고, 특히 현관을 통해 로비로 들어서면 2개층의 높이의 전면 대 형창에 푸른 잔디코스와 송전저수지가 커다란 한 폭의 그림처럼 다 가서면서 시원한 개방감을 주었다.

동선계획

클럽하우스 내부에서 중요시되는 문제는 이용자 동 선과 서비스 동선(캐디,관리,카트)의 분리이다. 이용자영역은 주로 2층(진입레벨)에, 서비스영역은 1층에 배치하여 이용자 동선의 방 해 요소를 제거하고, 코스별 진입이 용이하도록 고려했다. 또한 건







물 중앙부에 큰 홀을 두어 이용자동선 즉 프론트-식당-로커-프 로숍-스타트로비-필드로 연결되는 진입통선과 필드-로커-식당-주출입구로 연결되는 퇴장동선을 원활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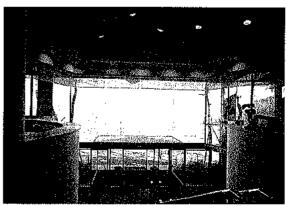
매스계획

골프장 진입로-클럽하우스-3코스의 양방향에서 의 중심적 장소성 부각과 시각분석을 통한 매스도출, 대자연에 순용하는 형태계획, 클럽하우스의 격조있는 조형미 3박자가 맞 아 떨어지기란 힘든 작업이다. 우린 자연이라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하여 골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 다. 한 마리의 봉황새가 비상하는 듯한 모습! 골퍼들의 희망을 우리는 건축적으로 담아보고자 은은하고 진실하게 다가가 클럽 하우스의 3박자에 조금이나마 근접하고자 하였다.

기번적 공간구성

주말과 주중/ 남,여 골퍼의 증감에 대응한 기변 칸막이 설치로 락카실과 단체실의 유동적인 공간구성을 꾀하였 다. 🕲





정면도

철 박물관

M.O.S.A.(Museum of Steel Arts)

이경훈 / 단국대 교수 + 김우영 / (주)김이종합건축 Designed by Lee Gyeong-Hoon & Kim Woo-Young

건축개요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산 51-8 대자위치

지역지구 농림, 준농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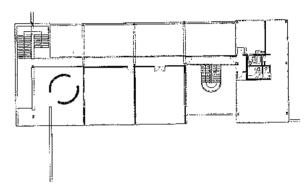
건물규모 지상 2층, 주차 12대 9,990.00 n² 대지면잭

건축면적 456.87 n² 연면적 786.0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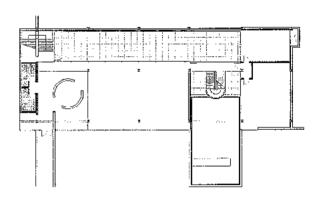
4,57% 건폐율 용적률 7.87%

첱골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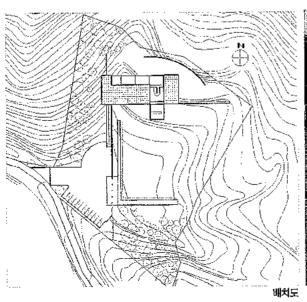
철골 + 폐어 글라스 외부미감 설계담당 김오른, 김순식, <mark>윤용</mark>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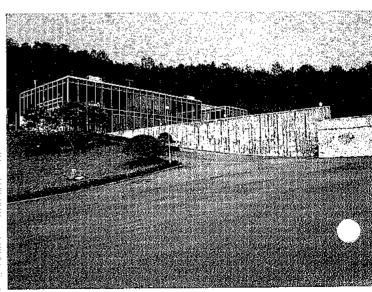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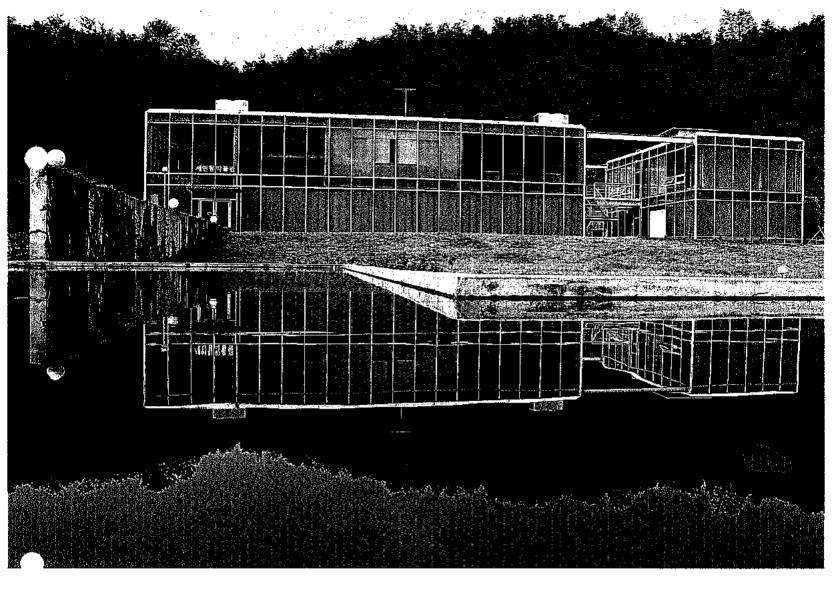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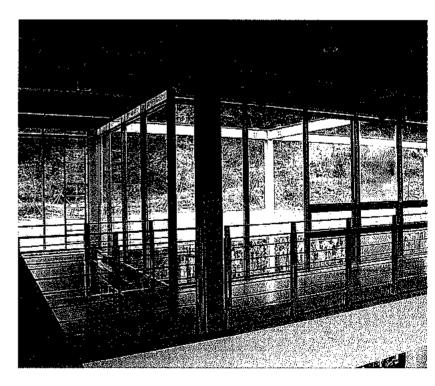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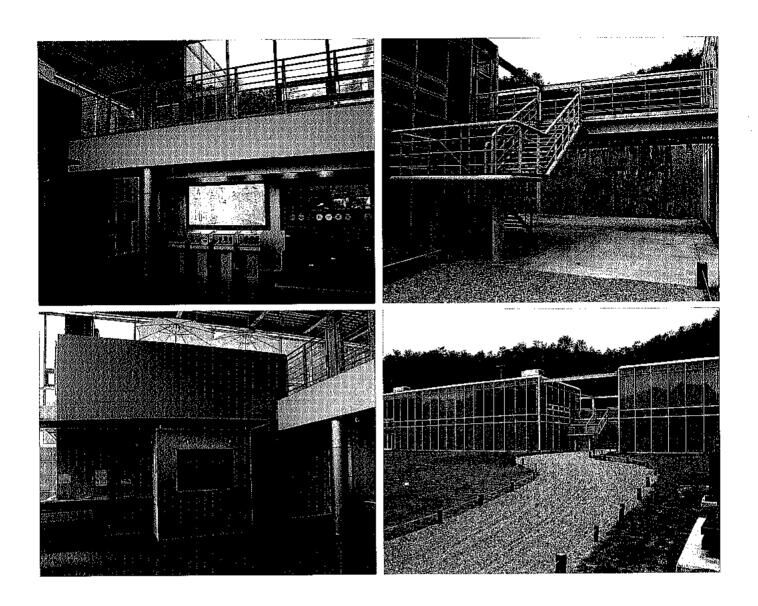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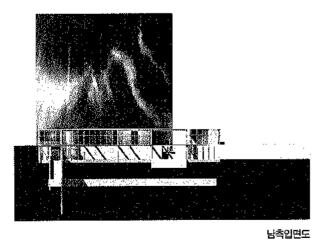


우리는 절제된 형식 속의 내재된 힘을 선호하기에 건물이 자연과 대비되어 보임과 동시에 자연을 다시 보게 하는 하 나의 틀이 되었으면 하였다. 지역의 성격상 관람이 발생할 장소에 대한 관람객의 경험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장치들을 통한 인트로와 엔딩의 장면들을 마련하였다. 내용적으로는 긴 벽을 따라 진입하여 잔잔하고 얕은 물위에 박물관의 전경을 얹혀 보던 관람객이 그 관 람의 끝에 맞이하게 되는 하늘로 열린 중정 공간과 다시 한번 나타 나는 물의 정원을 통해 처음의 기억을 되살려 내며, 이 장소의 건축 적 체험을 간직하도록 하는 플롯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으로 박물관 공간들은 분리와 연결의 도구들 을 통한 복선적 플롯으로 구성되었으며, 외관은 철과 동시대의 재 료인 유리를 통해 투명함과 깨끗함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있다. 단순한 구조의 프레임 디테일은 다분히 건축가가 만들어낸 방식이 므로 그 자체적으로 형태와 재료의 측면에서 '다름'이 읽혀지도록 하였다. 절제 속에서 마련한 물의 정원을 포함한 몇 가지 핵심적인 건축적 장치들이 외부적 시정으로 완공 후 너무나 쉽게 사라져 배 린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서속입면도

발렉스코리아 평택공장

Valex Korea of Pyeongtaek

김희진 / 건축사사무소 캠프 Designed by Kim Hee-Ji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어연 한산공업단지 2B-2L

지역 공업지역

용도

공장 및 사무, 부대시설

대지면적 16,530,0ni

건축면적 3,678.86m² 연면적 3,847.92m²

견폐율 22.26%

용적률 23,28%

규모 공장 - 지상1층

사무통 및 부대시설 - 지하1층 , 지상2층

구조

외부마감 동선 NEWTRA PANNEL, OMEGA RO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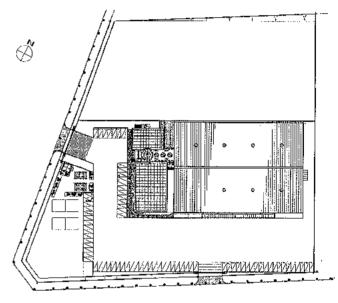
발렉스 코리아(주) 건축주

건축설계 박홍문,장윤석,양민석,오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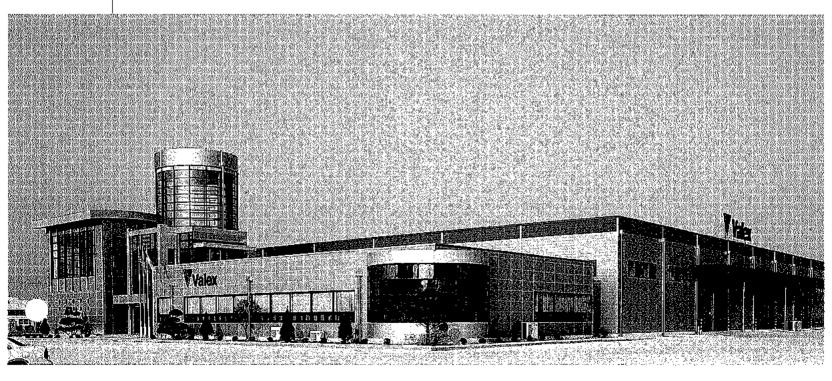
민영 건축사사무소 구조설계 (주)새한설계쿈설탄트 전기설계 설비설계 (주)청우이엔지

시공 다우산업개발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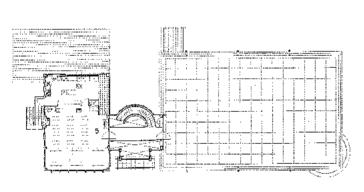
사진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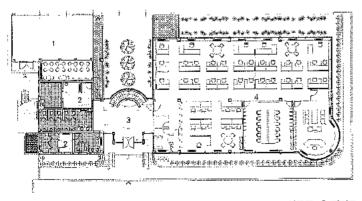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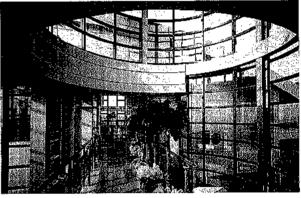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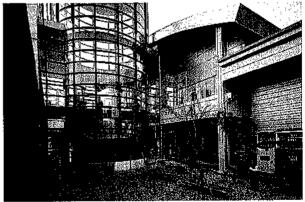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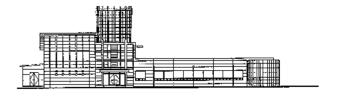
시무통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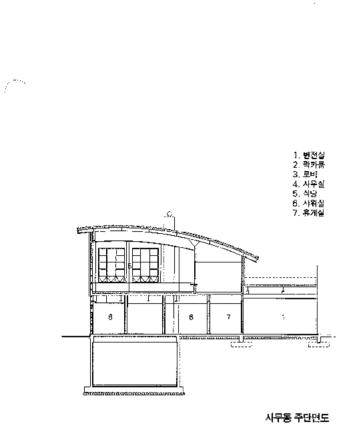
사무통1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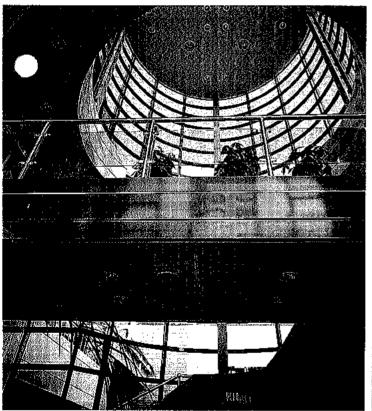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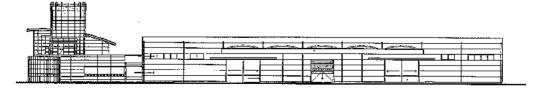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바이오시스 공장

Biosys Factory

김상경 / (주)KSK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Kyung

건축개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인리 687-5 대지위치

지역지구 준 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

13.306.20m² 대지면적 건축면적 1,051.94m² 1,422.86m² 연면적 31.82% 견폐율 39.90% 용적률

용도 공장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토조** 구조

외부마감 외벽 - CRC Board 위 볼소수지 코팅 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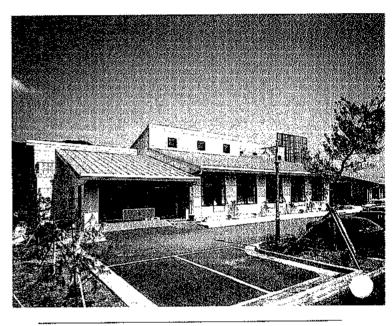
창호 - 불소수지 코팅 알미늄바, 칼라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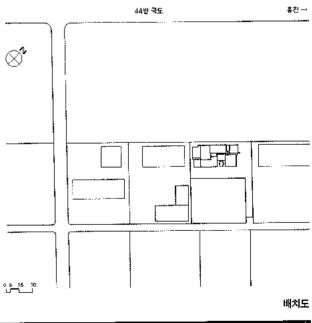
지붕 - 아연도 강판 위 불소수지 코팅 마감

시공 신우건설산업(주)

1. 공장 2. 사무실 3. 로비 4. 회의실 5. 식당 6. 자재참고 7. 진입정원 8. 연구실 9.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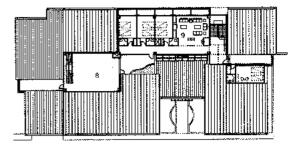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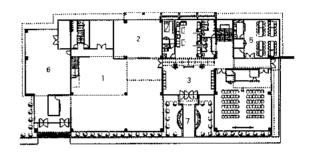
바이오시스는 생체실호의 의료기거장비를 전문적으로 개 발, 제조, 공급하는 회사로서 (주)메디슨과 합작 투자한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이다. 본 건축은 바이오시스의 공장기능이 주용도이며, 부속기 능으로 Lobby Lounge / 상담실, 연구실, 세미나실, 휴게실 그리고 기숙 사동 작은 공간의 복합기능을 경사진 1개의 Mass안에 효율적으로 수용 되도록 설계하였다.

설계의 주안점은 단조롭고 지루하기 쉬운 공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벤처기업으로서의 창의적이며 사용자들에게 쾌적함을 주는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Idea에서 출발하여 편안하고 쾌적 한 공간과 형태를 구성하여 구체화시켰다. 주변상황이 산과 open space 가 있는 비교적 여유있는 자연환경과 가까이 있으므로 주위의 자연과 전 망을 내부의 경사진 공간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하였다. 외부형태에서는 경사지붕의 자연스러운 수평적인 충첩과 수직적인 계단 우리 Tower와의 대조등 Dynamic Form을 강조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 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서 홍천의 국도에서 바라볼 때에도 본 건축의 개 성 및 방향성을 강조하여 장소성을 창조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공장 이 주는 Image에서 탈피하여 21세기 고도의 기술을 창조하는 벤처기업 의 공장 건축으로서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건축으로 구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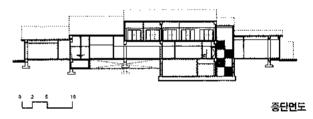
특히 지붕의 재료를 아연도 강판위 불소수지 코팅한 Metal Roof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우리 자붕의 분위기를 현대화하였고. 외벽은 기존 골조기둥위에 경량 Channel의 Stud를 세워 건식공법으로 외벽 시공을 한 후에 C.R.C Panel(Compressed Cellulose Reinforced Cement) Board : 시멘트 압축성형 보도)위 볼소수지 코팅 으로 마감하여 공기단축 및 시공의 간편성을 시도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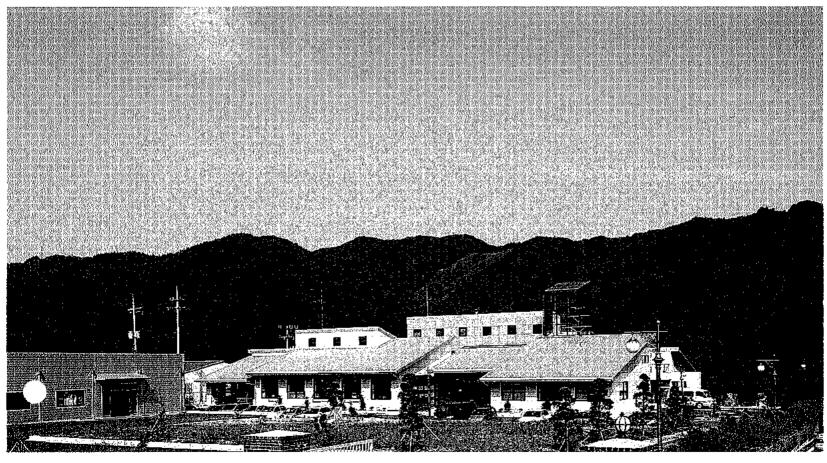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백범 기념관

Back Bum Memorial Hall

김춘배 / 건축사사무소 건축이상 by Kim Choon-Bae

프롤로그(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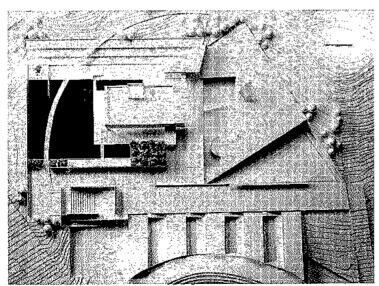
백범기념관 설계경기가 끝난지 6개월이 넘었다. 설계경기를 여러번 해보았지만 이번에는 특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속을 맴돌았다. 이제 차분하게 계획안을 리뷰하는 심정으로 여러번의 망설임 끝에 이 글을 정리하 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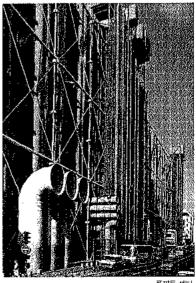
대지 해석

25년만에 효창공원에 갔다. 백범의 묘소가 그곳에 있는지는 이번 설계경기가 아니었으면 알 수 없었 을 것이다. 그곳은 나에게 단지 효창구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장소일 뿐이었다. 백범...... 백범의 정신을 누르기 위해 효창구장을 만들었다고 들었다. 건축규모에 비해 땅은 충분히 컸다. 공원의 일부로서 김구 묘역 바로 아래의 대 지였다. 주 진입로에서 보면 김구묘역 및 대지위치는 가장 깊숙한 곳에 봄날 햇빛을 받으며 조용히 있었다.

기념관 건축과 백범 정신

E. H. CAR리는 역사학자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라고 하였다. 기념관 건축은 과거 역사 속의 인물을 오늘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기억하기 위한 장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건축적 표현은 파리의 종피





두 센터나 카네기홀일 수도 있고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다 묘역일 수도 있다. 기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경건하 게 옷깃을 여미며 머물게 할 것인가, 그 이름 하에 지어진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기억하 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건축적 접근 방법은 달라질 것이다.

프로그램의 해석과 백범 정신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전시 및 자료 연구기 능. 대회의장 및 집회강의 기능, 샤무 관리부분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공원법에 따른 건축 면적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 하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대지의 경계가 새롭게 건축적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해석을 적극적 으로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대지를 넓게 쓰고 새 로운 접근으로서 대지를 해석하기 위해 500명수용의 대회 의장은 음악회 등의 수용이 가능한 다목적 콘서트홀로 계획 하는 쪽으로 개념을 설정했다. 백범정신에 대해서 많은 고 민을 하였다. 동학혁명에서 시작되어 일제하의 항일무장투 쟁 및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후의 조국분단에 맞서 하나된 통일조국을 위한 신념에 찬 일생을 생각할때 '고난'을 맞서 싸운 백범정신이 하나의 특별한 설계개념으로 떠올랐다.

계획방향

백범기념관이 효창공원에 있는 하나의 건축 물이 아니고 백범기념공간으로 인하여 효창공원을 재탄생 시킨다는 생각으로 주제를 백범기념으로 하되 그밖에 여러 다른 요소들이 복합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공원' 이 중심이 되도록 만든다.

백범 묘와 관계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김구 묘를 기념관 내 부로 이전하는 방법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후에 묘역과 기념관 장소와의 관계설정을 위해 대지경계선을 건축화하 고 백범의 고난을 상징화시켜 기울어진 벽을 통해 묘역을 지향케 하여 영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를 설정하였다.

어프로치(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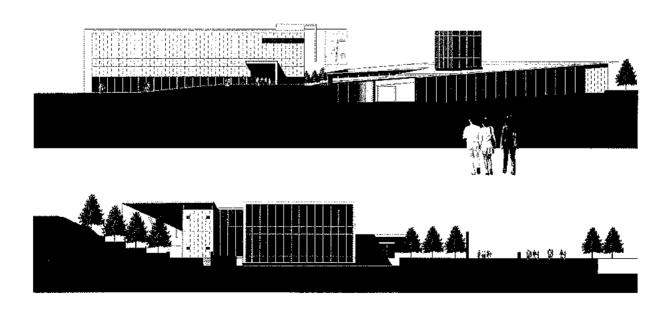
큰 줄거리의 기존의 접근통선을 유지하고 다수의 관람객을 위해 접근통선을 의도적으로 순환통선으 로 연출하여 구성하고, 상시 공원의 일부로서 역할을 위해 다양한 쪽에서 접근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묘역 밑의 공 원 내 순환보도를 없애 묘역을 성역화 시키고 기념관영역으 로 적극적인 동선을 만들어 중심적인 장소로서 계획하였다.

공간구성

대회의장을 기념콘서트홀로서 중심에 위치 시키고, 무대부분을 수공간 쪽에 위치시켜 열릴 수 있도록 하고 음악회를 상시 열어 '울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 였다. 진입 전시홀과 콘서트홀, 수공간, 그리고 고난의 벽을 하나의 투명성을 갖는 축으로 구성하였다.

랜드스케입(LANDSCAPE)

구체적인 조경계획으로는 VISTA와 축선을



강조한 배식계획을 하고 관람순서와 동선에 따른 관람객의 심리변화를 고려한 옥외공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서적 인 측면을 반영하였다. 기념콘서트홀이 있는 지상건축물은 단순한 오브제로 설정하고 전체구성을 랜드스케잌 (Landscape) 관점에서 큰 스케일로 배치하였다. 현재 관 람계단형태로 구분된 후면 상하 지형의 영역구분은 전통적 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건축물과 수공간의 구성을 전통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POCKET PARK

진입부분의 아외전시 POCKET PARK는 백범공원과 효창구장간의 완충과 확장이라는 개념을 구체 화시켜 선열들의 추모와 야외전시 및 휴식공간이 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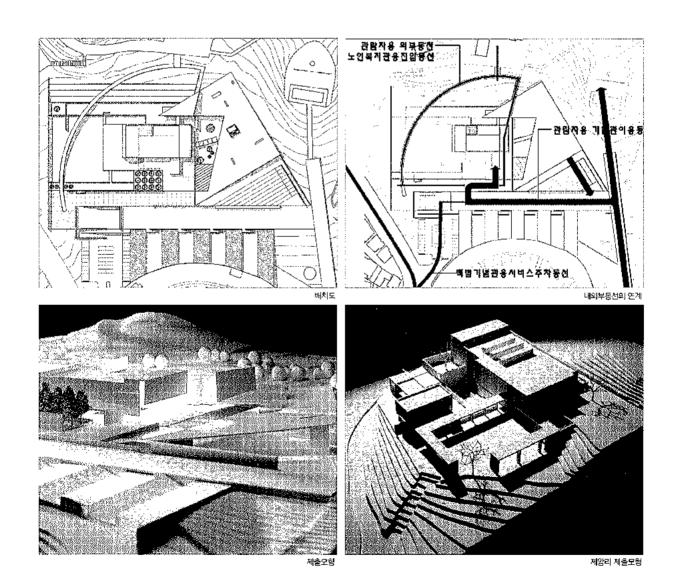
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배치개념에서 전체의 바탕을 이루는 패턴(Pattern)으로서 읽힐 수 있도록 했다.

에필로그(EPILOGUE)

성철스님 시리탑 현상설계, 제암리 3·1운 동 기념관 현상설계에 참여해 '기념', '기념을 위한 장소'에 대한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해본 기억이 있다.

기념관에는 기념이 없다.

백범의 일생은 민족의 고난의 근대사이다. 그 정신을 전해 줄 수 있는 '즐거운 장소'로서의 기념관은 결국 '조용한 곳' 으로 남을 듯하다. 圖



UIA 실무용역 위원회(PPC) 참관기

Report of 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

이근창 / 보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주)엄앤드이종합건축 by Lee Geun-Chang

올해 제9차 UIA 실무용역위원회(PPC : 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가 이집트 수도 Cairo, Nile Hilton Hotel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각 지역에서 27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겨운데 11월22일 이집트 건 축사협회가 제공하는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본 협회는 UIA 제93차 이사회에서 한국건축가협회와 공동으로 FIKA(ad hoc body 명칭)를 구성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UIA 회의에 참여 하는 것이다. 실무용역위원회는 1994년에 UIA 산하에, 세계무역기구(WTO)가 건축 설계 부분을 포함한 전문직능 자격을 무역 자유화 대상으로 지정한 후 그로부터 건축 설계 실무용역에 관하여 국가간 상호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안 을 제정토록 위임받아, 발족한 위원회이다. 위원회에서는 6년간의 긴 논의를 거쳐 "건축실무 용역에 판한 국제 표준 권고 안"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과 7개의 관련 부분의 지침 안을 작성하였다. 지침 안 내용에는 전문성에 관한 정의와 16개항의 정책 방 향과 이에 대한 상세한 배경, 정의, 원칙 등이 기술되어 있다. 본 권고 안은 1999년 북경 UIA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여 각 회원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 보고 서(건축사 자격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작성되어 올해 3월에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바 있다.

회의 진행은 첫날 오전에는 9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에서 회의 집행 순서와내용들을 사전 조율 하는 모임 이후 UIA Sgoutas 회장의 본 위원회의 중요성과 UIA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과 물"등 각종 program 에 적극 참여를 부탁하는 인사말을 필두로 시작되었다. Sgoutas 회장은 지속적인 회원국가의 교류를 통해 권고 안 이 발전적으로 개진되기를 바라며 모든 내용은 건축시가 되려는 각 개인의 능력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국 또는 미개발국간의 상호 이해를 고려한 공통된 사항을 담고 각 국의 고유 문화와 사 회의 특성을 고려하되 공중의 안전과 복지를 근간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UIA의 정신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UIA-UNESCO간에 합의 된 건축교육의 질과 적정성 인정 위원회("UNESCO-UIA Charter for Architectural Education "Committee for a Validation of Conformity and Quality in Architectural Education)의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였다. 본 위원회는 자문단을 포함하여 57명의 집행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는 각 지역별 2명(한국이 속해있는 4지역에는 호주의 Louis Cox와 일본의 Hozumi교수)을 합하여 17명의 자문단이 구성되어있다. 이어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었던 제8차 의사록 승인과 의제채택이 있은 후 본 회의가 진행 되었다.

교육에 관한 UIA 방침은(UIA Policy on Education) 터기의 Necdet Teymer 씨에 의해 발표되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5개 세부규정들은 북경에서 체택된 7개 사항에 추가하여 2002년 Berlin 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각 인건에 대한 보고서는 초인(Report of Drafting Panel for the Recommended Guideline)이며 이에 대한 최종만은 계속적인 혐의를 용해 수정, 결정된다. (필자 주)

었다.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방침의 기준은 UIA/UNESCO 건축교육협 약에 의거 인가 / 인증 / 승인 된 대학교육기관에서 최소 5 년간 각국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서로의 동질성을 인정하 는 신축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이미 UIA 규약과 지침(Accord & Guideline)에서 논의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더 구체적인 목표 설정, 역할, 책임, 한 계, 조작, 내용 등을 대학교육에서부터 지속 교육까지 다른 려고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 틀로는 교육체계구축. UIA 규약과 UIA/UNESCO 협약의 실행 전략, 학교평가지 침 작성, 건축교육 발전방향 등을 정해야 한다. 건축교육은 전문 설계자 또는 시공 실행자(Designers / Builders)로써 창작적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과 사회성, 친 환경적인 감각 그리고 지적인 성숙도를 갖춘 국제 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목표와 방향, 내용, 방법과 매개 체, 운영, 구조와 자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 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발표 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전 교육 및 비전문가에 대한 건축이해를 위한 교육과 건축사 지속교육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자는 의견과 Builders를 위 한 교육 내용이 상세히 기술될 것이 요청되었다. 별도의 의 견은 추후 서면으로 제시키로 하였다.

전문협회의 역할(Role of Professional Institutes)은 프랑스 Herve Nourissat씨에 의해 프랑스어 로 발표되었다. 주요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개의 경우 전문협회들은 정부기관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으나 건축 전문 단체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제도 의 개선과 지식의 향상하는데 힘써야 한다. 현재 각국은 전 문협회가 정부 산하 기관으로 있기도 하고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곳도 있으며 아주 협회가 구성되지 않고 나라도 있다. 추후 협회를 구성하려는 국가는 UIA 규정에 적합하도록 구 성할 것을 추천한다. 건축전문협회는 건축사가 공공에 의해 서 평가되기 때문에 학문부분과 실무부분을 동시에 만족시 킬 수 있도록 전문지발간, 강의 및 경쟁, 관광 등을 통해 일 반적인 전문성을 개발하여 공공의 이익과 건축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현재 전문협회의 구성을 보면 독자적인 기 구, Angle Saxon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래된 Self · Regulating Institutes, 법과 규정에 의해 발족된 Orders, Unions, 그리고 ARCASIA를 포함한 지역별 건축관련 단 체, 혼합구조체(mixed structure) 예를 들면 영국의 RIBA 와 ARB에 의해 구성된 JVP 미국의 AIA, NCARB와

NASA에 의해 구성된 NAAB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종류 의 전문 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GATS의 목표인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기본 이념에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장 벽을 제거하는데 동등한 조건과 상호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불평등한 사항이 있으면 안되며 둘째, 진입장벽이나 불평등한 제한조건들이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셋째, 건 축전문협회가 자유스러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여 건축사와 사용자(고객)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구가 되어. 야 한다. 발표 후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기본 틀에 동감을 하 였다.

초청국에서의 용역(Practice in a Host Nation)은 현재 PPC 공동 의장인 미국의 James Scheeler씨가 발표하였다. 건축사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 서 용역을 수행할 때에는 현지의 법적, 환경적, 사회적, 문 화 및 유적의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여 현지 건축사 와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서로의 협력관계는 UIA의 윤리규정과 현지상황과 제반 법규를 고려하여 상대 자끼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시는 용역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지 국가에 등록하여야 하나 건축주에 의해 현지에 등록되지 않은 타국의 건축사에게 의 뢰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데 있다. 이는 추후 이러 한 상황에 대해 서로간의 시간 낭비와 노력을 최소한하고 국가간 상호 인정이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 황에서의 기본 등을 작성하는데 있다. UIA의 윤리 규약에 의하면 외국용역업자는 프로젝트가 있는 국가의 전문가와 꼭 함께 업무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우선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용역에 대한 책임한계(liability), 보험, 적용법률, 현지법에 의한 사 업자등록, 세금,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계약 조건 등, 둘째, 공공에 대한 책임한계, 건축사의 행위와 용역에 대한 법 적 용. 셋째, 외국건축사의 현지법 적용여부 단, 현재 건축사 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의 논의는 유보하기로 한다. 국제 현상설계에 의한 경우에는 현지 건축사와 공동으로 제출해 야 하는 의무는 없다.

발표 후 국제 기금에 의한 프로젝트에 대한 적용방안, 국제현상인 경우의 적용여부와 상호인정이 이루 어진 나라에서의 적용사례 등이 질문되었고 발표자는 질문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주면 다음 회의에 적용 또는 답변 해주기로 했다.

둘째 날 회의에서는 지적소유권 및 저작권 (Intellectual Property/Copyright)에 관하여 독일의 Tillman Prinz의 발표가 있었다.

UIA에서는 건축사 작품에 대한 지적소유전 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 이다. 예술적인 작품의 사용과 참작에 대한 정보수집과 교 류 방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작가의 권리와 공중의 이익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예술 창작품을 보호하 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작가라 함은 그 작품을 만들어낸 자 연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작가는 작품을 창작 한 개인 또는 고용인하나 저작권은 상업적 재산권임으로 작 가에 의해 그 권리를 승계 할 수 있다. 보호대상은 저작권 등록을 하였거나 법적 지위권을 갖는 자에 의해 작성된 1) 일정 수준이상의 건축작품 2) 설계도서(시방서 전문가의 의 견서 포함) 3) 시공된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작품보호에 따 른 국가별 도덕기준에 따라 다른 부분을 인정하자, 이를 지 키지 않는 자는 회원국의 관련 협의에서 제재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축되어진 이후에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제3의 건축사가 보수 : 개선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원 건축사의 설 계 의도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작 가의 설계의도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건축주의 요구사항 과 작가의 설계의도가 같이 만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저작 권 보호기간은 작가의 사망이후 최소 50년간으로 한다. 발 표 후 창작과 모방 등의 개념정리를 위한 논의와 더불어 저 작권 보호법이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에서의 해석과 적용 등에 대한 규명이 있었으며 차기 초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에 대한 지적사항이 요청되었다. 이어 싱가폴의 Edward D Silva 의 실무 범위(Scope of Practice)와 실무형태 (Foam of Practice)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건축사 실무의 범위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완 공되어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제공할 때까지 아주 상세하게 규명되었고 국가의 특성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거나 관련 협 회에서 내규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에서 공히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실무 부분과 추가 업무, 특수 업 무로 구분하여 상대국과의 건축사 상호 인정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기로 하였다. 핵심업무리 함은 건축설계와 직접관련 이 있는 계획·기본· 실시설계 등과 더불어 인·허가. project 관리 등을 말하며 추가업무라 함은 사업성검토를 포함하여 감리·중재·보증 등 설계업무와 직접관련은 없 지만 건축주가 추가로 요청하는 업무이며, 특별업무란 도시 계획 설계 · 조경설계 · 실내설계 · 환경 검토 등 설계와 관 련된 특수 분야의 업무를 칭한다. 건축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UIA의 윤리규정에 맞도록 수행해야하며 설

계에 대한 책임자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실무형태는 사회의 이익을 우선으로 건축사의 역할을 근간으로 다양한 현지 국 의 여건에 따라 구성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무형태는 소유와 관련 없이 각 개인 건축사의 업무에 더 비중을 두어 야하며 대별하면 단독운영, 파트너십으로 운영, 한정된 파 트너십 운영, 무한 주식회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실 무 수행 형태로는 단체(group), 협력업체(collaborate), 공동(consortium), 대학자체 참여(university based project office), 반계회사로 참여(subsidiaries)다분야 참 여(multi-disciplinary)로 구분한다. 또 다른 형태로는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나 협회가 실무에 참여하는 경우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의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였다. 발 표 후 일본에서 건설시가 건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실태 에 대한 기 배포된 유인물이 간략히 설명되었다.

오후에는 독일의 Tillman Prinz씨로부터 UIA 규약이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를 발표하였다. 통계자료는 website www.coac.net / internaciona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 회원국중 55개국 이 적용 상황을 보고하였다. 2001년 PPC 회의 개최 국은 일본이 신청한 후 Costa rica에 양보함으로 결정되었으며 2002년 회의 는 UIA 총회와 동시에 개최자는 독일의 의견 이 있었으나 추후 결정키로 하였다. 일본교육제도의 현주소 와 개정방안에 대한 일본건축학회 Ryoichi Shimada 교수 가 총괄건축교육(Holistic Architectural Education)에 설 명이 있었으나 회원국의 호응을 받지는 못했다. 개정방안으 로는 현재 4년째 건축 전반적인 교육에 국제적인 기준에 적 합한 2년째 건축 전문교육을 시행하려는데 틀을 맞추고 있 었다.

PPC 회의는 UIA를 대변하여 권장 안을 작 성하고 있으나 각국의 특성과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며, 유 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부사항들이 논의하고 있음으로 국 내의 입장과 의견이 정리되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이에 따른 국내 건축 계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특히 논의 사항 자체가 실무 부분과 법적 제도 간의 조 율이 불가결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 전문가의 양성 과 지속적인 참여로 참가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정립하여 각국의 흐름과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자유 무역 체제하에 장래 건축사들 이 세계시장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열 어주는 지혜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圖

아이엠에프와 기타

Guitar and I.M.F.

김인환 / TAS건축사사무소 by Kim In-Hwan

예전에 어느 의사가족으로부터 "의사를 하려면 종교생활에 의지하든지 아니면 뭔가 자신을 몰두시 킵 수 있는 취미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그것은 매일같이 아프고 찡그린 사람만 대하며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다뤄야 하는 긴장된 생활을 해야하는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종교나 취미 생활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비단 의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잡하고 힘든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현 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의미에서 취미생활은 본업 이상으로 중요한 데 필자는 그 동안 기타(GUITAR)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기타(GUITAR)와 나

흔히 내가 기타를 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나이에 기타를 치느냐고 의아해하면서도 사치스 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러나 기타를 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퇴근 후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는 시간에 이왕이면 생산적인 일(?)을 하자는 생각에서 열심히 하다보니 연주회도 갖게되고 유명한 기타라스트들에게서 사사 를 하기도 하였다.

내가 기타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30여년 전인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으로 만약 그 당시 에 지금처럼 기타악보나 책 같은 자료가 많았다거나 체계적으로 기타를 가르치는 학원 등이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 쯤 내 직업이 기타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기타를 알고서 기타에 기울인 내 노력은 전문인에 버 금 갈 정도가 아닌가 싶다. 대학시절에는 지나차게 기타에 열중하여 유급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학교성적에 지장 을 받았고, 군대생활 중에는 손톱은 잘려 나갔지만 휴식시간에 바닷가에 앉아 기타를 치면서 기타인의 꿈을 키워 보기도 했다. 그리고 한때 회사업무로 외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몇 년을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이국에서의 외로움 과 작막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타의 힘이 컸다. 사회생활하는 동안에는 학창생활처럼 기타와 함께 할 시간 은 없었지만 항상 기타는 내 곁에 있었고 틈이 날 때마다 몇 시간씩 함께 하며 시름을 달래기도하고 쌓인 스트레스 를 풀기도 하였다. 또, 이 기타는 그 동안 나의 좋은 동반자이기도 하였지만 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는데 우리 가족들의 노래반주로 기타가 애용되 었고 특히 딸이 어렸을 때는 내 기타반주 없이는 노래를 부 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창시절의 소망으로—, 만약 결혼을 하게되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꼭 기타를 알게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아내와 아이들에 게 기울인 노력은 내가 생각해 보아도 대단하지 않았다 싶 다. 즉. 연애시절부터의 아내에게 기타나 음악이야기로 감 명(?)시킨 탓인지 그 어려운 사랑이 이루어졌고, 결혼선물 로 아내에게 당시의 사정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의 수 제기타를 선물하여 매일 기타를 가르쳤고, 또 딸이 중학생 이었을 때는 훌륭한 여류기타리스트를 만들어 보겠다고 유 명한 기타리스트에게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시사를 받게도 하였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내가 공부하는 선생님에게서 나와 같이 기타공부를 시키기도 했으며, 특히 딸이 중학교 에 다닐 때에는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명예교사로 2년간 학생들에게 클래식 기타를 가르치기도 하는 등 가족들에게. 기타에 관한 한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중 나의 기타에 커다란 전기가 있었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몇 사람의 유 명한 기타리스트들로부터 사사를 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교육은 내가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나만의 기타에서 음악 적 표현과 분석 그리고 각종 연주법 등으로 나의 기타실력 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때는 내 본업보다도 기타에 더 열중하여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기분으로 삶 의 의욕이 생겨나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고, 서울 YMCA회관에서의 연주회와 주변으로부터의 요청으로 초 청 연주회를 갖았는데 이러한 것은 내 일생에 있어 획기적 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건축과 기타(GUITAR)

건축설계를 한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 니다. 설계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일로 많은 생각과 함 께 풍부한 상상력이 요구되는 일인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건축설계사무소를 한다는 일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설계를 하는 본래의 업무 외에도 수주를 위해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하고, 때 때로 자금이 부족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욱이 요즘과 같은 LMLF상황에서야.

때때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의 안 타까움과 사무소의 여러 잡다한 일들로 잠 못 이루는 밤과 직원들 급여와 임대료 등 각종 자금문제는 우리를 얼마나 인타깝게 하는가, 이러한 때 기타는 나에게 참으로 좋은 친 구였고, 기타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고, 기타는 나에 게 영원한 동반자였다.

사람에게 무언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삶 의 활력소가 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심난해 있어도 집에 가서 기타를 치겠다는 생각을 하면 흐뭇해져서 곧 그런 일을 잊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때 술이나 담배가 해결방안이 되기도 하겠지만 기타만큼 자신을 몰두시켜 정 신을 뺏지는 못할 것 같다. 즉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기타음악을 듣다보면 어느새 마음도 안정되고 생각이 저절 로 정리되어지는 느낌을 받고 악보와 기타에 몰두하다 보면 온갖 잡념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져서 곤한 잠을 잘 수 있어 나의 일에 큰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의사뿐 아니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꼭 종교 생활이나 자신을 몰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권 하고 싶다. 특히 나는 언젠가 둥글고 아름다운 기타의 형상 을 이미지 화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그런 건물을 지을 능력이 있다. 면 그야말로 남의 간섭받지 않고, 남의 눈치 안 보고, 남의 신경 쓰지 않고, 설계비에 전혀 신경 안 쓰면서, 내 마음대 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맞는 그런 건물 "제 발" 한번만이라도 짓고 싶다. 그 곳에는 오묘하고 델리케이 트하며 아름다운 기타음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기타전용 연주홀과 기타서적과 악보를 취급하는 기타전문 서점과, 각 종기타와 악세사리를 취급하는 기타전문 악기점과 그리고 기타인의 만남의 장소 등 명실공히 기타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기타하우스(Guitar House)를 내가 "직접설계" 하 여 내가 "직접건축" 하고 싶다. 그러나! 그러나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많은 돈, 그런 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건축설계(?)나 하고 있고 기타나 두드리고 있어서야 어느 세월에 그런 건물을 지어볼까.

I.M.F와 기타

지금은 아이 엠 에프라는 것을 뼛속 깊이 실 감하고 있지만 그 철천지 같은 I.M.F가 시작되던 2년 전에 나는 건축설계 외에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금 생각 해 보아도 이런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돈 버는 일이라는데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게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I,M,F가 시작되면 서 사무소의 일이 줄어들자 직원들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로 하고 무엇을 해볼 것인가 상의 하다가 우리의 경험과 특 기를 살려 "건축실무학원"을 창업해 보기로 한 것이다. 여

리 아이템을 정하고 시장조사와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건축실무교육은 우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괜찮은 사 업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건축CAD, 건축스케 치, 건축그래픽, 건축계획 등의 건축실무과정을 교육하자는 것으로 시중에 많은 학원이 있지만 건축실무만을 위한 교육 기관이 없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CAD나 그래픽 의 경우 건축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다보니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스케 치의 경우에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건 축스케치만을 교육하는 학원도 없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현상설계에 참여하면 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가며 그래픽작업을 외주처리 하였 기 때문에 직원들을 일반컴퓨터학원에 보내 보았고, 스케치 를 배우기 위하여 일반미술학원에 보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래픽은 건축하는 사람의 손으로 건축적인 그 래픽을 해야하고, 스케치도 그러하며 특히 건축계획의 경우 에도 이론적인 것 외에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계획교육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과정들에 대한 학교교육이 지나 치게 이론적이어서 현장에 적용하는데 상당한 세월을 보내 야하고 현장의 실무자들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보다는 선 배틀로부터 적당히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으로 학교와 현장간의 가교(架橋)역할을 담당해 보자는 취 지였다. 그래서 계획, CAD 등은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고 다른 과목은 전문업체출신의 실무전문가를 초방하였으며 남은 직원들은 관리와 홍보업무를 맡아 I.M.F가 시작되던 해에 "TAS건축학원" 을 시작했는데… 그게 우리들의 생각 같이 간단히 되는 게 아니었다.건축은 알지만 학원이라는 특성을 몰랐던 우리가 그 동안 겪었던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많았다. 학원의 위치선정, 홍보, 학생관리, 시 설, 행정 등의 문제와 특별히 덩치가 커지면서 예전에 설계 사무소만을 운영하던 것하고는 모든 것이 판이하게 달라졌 고, 자금문제 등은 엄청난 부담을 주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을 겪게 되었다.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이 기타(GUITAR)는 참으로 큰 역할을 했다.

정말 매일 아침의 새벽기도는 큰 힘이 되었 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큰 용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모두가 하 나님의 도움으로 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러한 종교 적인 힘 외에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이 기타

(GUITAR)였다. 그것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기타를 치는 생각을 하면 흐뭇한 마음이 돌고 퇴 근길에 차안에서 "encouragement(위로)"와 같은 기타음 악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였으며, 또 기타를 연주 하다보면 기타에 집중하게되고 어느새 많은 걱정과 스트레 스를 잊을 수 있어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었다. 이러한 마 음의 평안함과 스트레스의 해소는 종교적인 힘이나 기타말 고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있을까. 특히 기타는 다른 취미에 비하여 여러 좋은 점이 있다. 나는 기타 외에도 골프, 분재, 난 기르기 등의 취미가 있는데, 기타만큼 남과 보조를 맞출 필요도 없이 혼자 어느 때라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을 흠뻑 젖어들게 하는 취미생활도 없는 것 같다. 기타는 오묘하고 뎈리케이트한 소리로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리들의 시름을 달래주기에 아주 적합한 특징이 있다.

우선 기타는 겉모양부터가 여성과 같이 아 름답다. 조그맣고 둥글둥글하여 몸에 꼭 껴안고 연주할 수 있는 이 악기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고요함과 고상하고 깊은 생각들까지 세세히 표현할 수 있어 좋다. 무엇보다 기 타는 작아서 갖고 다니기 쉬우므로 언제 어디서나 연주할 수 있어서 좋고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의 악기와는 달리 대 중적이고 접근하기 쉬워 조금만 배워도 자신의 기타반주에 맞춰 노래 부를 수도 있어 좋다. 취미생활이란 어찌 보면 사 치스러운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업 인 직업생활에 너무 얽매어 - 현실적으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긴 하지만 - 섣불리 특별한 (?) 취미생활을 한다는 일이 쉽지 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러 나 취미생활은 우리들의 삶에서 본업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 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라고 한다. 특히 아이엠에프를 맞아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우리 건축인들 모두도 자신을 몰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통하여 지혜롭고 건강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圖

풍수지리로 분석한 뉴욕의 명당(2)

Propitious Sites of New York According to Feng-shui

박시의 / 명당건축사사무소 by Park Si-Ik

뉴욕 각 지역의 명당 위치

많은 회사가 뉴욕에 설립되어 오늘의 세계적인 큰 회사로 성공하였다. 개중에는 실패한 회사도 있 다. 뉴욕에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가 어느 장소에서 성공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래 전부터 사업이 잘 되어온 위치는 다른 곳에 비하여 사업이 잘 될 확률이 높다. 사업이 잘 되지 못하거나 반면에 불행 한 사건이 발생되는 지역은 새로운 사업장으로서 적합하지 못함이 당연하다. 사업이 잘 되거나 또는 않되는 지역도 풍수지리와 관련된다.

Morningside Heights and Harlem

뉴욕의 전체적인 기운은 센트릴파크를 기준점으로 하여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 지역은 센트럴 파크 의 북쪽에 위치하여 기운이 통과하는 지역의 반대편에 있다. 이 지역에는 Columbia University, Low Library, Grant's Tomb, 그리고 Museo del Barrio 등의 유서 깊은 건물들이 있으나 남부만큼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회 사는 많지 않다. 이 지역은 한 때 고급 주거지였다.



Upper West side And Upper East side

- 5번가 일대와 센트럴 파크 남서쪽에 성공한 회사들이 많다. 센트랄 파크의 남서쪽과 동쪽의 5번가에 생기와 운이 모여 있다 는 시설을 나타내고 있다.
- 센트럴 파크 남서쪽 Upper West Side지역에는 Twin Towers of Central Park,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New York State Theater, Metropolitan Opera House, Lincoln Center Theater, Avery Fisher Hall, Museum of American Folk Art 등 성공한 회사의 건물들이 모여있다.
- Twin Towers of Central Park는 1929년- 1931년 에 건설된 고급 아파트이며 동시에 뉴욕 스카이라인을 이름답게 만들 어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다.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는 1959년 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이 착공식의 첫 삽을 든 건물로 New York Phillharmonic과 Juilliard Chorus 가 이곳에

있어 뉴욕의 중요한 문화공간을 이루고 있다. New York State Theater에는 New York City Ballet와 New York City Opera단이 있어 유명하다. 수용인원 2,800석의 작은 보석상자라는 평을 받고있는 사랑스런 건물, Metropolitan Opera House에는 Metropolitan Opera Company 외 Amercan Ballet Theater의 본부가 있고, 이 건물 바로 옆 에는 야외 음악 댄스 공연장인 Guggenheim Bandshell 이 있다. 이들 유명한 건물들은 모두 센트럴 파크의 남서쪽 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센트럴 파크가 기운이 감싸주는 지역이어서 바람이 부드럽고 마음이 편안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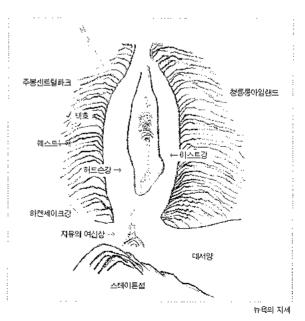
- 5번가 주변 Upper East Side 지역에는 Andrew Carnegie가 살던 집인 Cooper-Hewit National Design Museum이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그 이외에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Jewish Museum, National Academy of Design, Solomon R. Guggenheim Museum, Metropolitan Museum, American Art, Frick Collection, Museum of the City of the New York 등이 5번가를 따라 자리잡고 있다. 5번 가는 센트럴 파크의기운이 모이기 시작하는 곳이다. 이곳에 서 남쪽으로 내려 갈수록 행운의 기운이 강해진다.

Theater Distric, Upper Midtown and Lower Midtown

- 센트릴파크 남쪽의 5번가는 행운의 기운 이 모이는 곳이다. 이곳은 사업이 성공하는 대표적인 위치. 이다. 이곳은 뉴욕에서 가장 고급스런 백화점들이 밀집되어 미국내 최고급 호화 상품의 대명사가 되었다.
- 이 지역 5번가에는 Trump Tower가 있 다. 건물의 저층부 에는 최고급의 점포와 카페가 있으며 상 층에는 최고급 아파트가 있는 복합건물이다. 바로 옆에 세 계 최대의 보석회사로 알려진 Tiffany & Co.가 1837년부 터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 5번가가 발달되기 시작한 것은 1883년 William Henry Vanderbilt씨가 이곳 5번가의 51st.에 고 급주택을 건설한 이후부터이다. 센트럴파크에 면한 이 일대 에는 그 당시부터 Astro, Belmonts and Gourds, Morton F. Plant 와 같은 백만장자의 집들이 들어섰다. 부 자들은 이곳에 살면서 이곳 땅의 기운을 받아 더욱 부자가 되었다. 이곳에 살던 백만장자 중에 Morton F. Plant 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New York Yacht Club의 회장이었다. 1917 Pier Carrier 씨는 이 집을 최고급 진주목걸이 상점으 로 개조하였다. 그 후 주택들은 상부로 밀려나가고 이 일대

는 최고급품의 거리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5번가 중에서 도 42번가부터 59번가 사이가 최고급의 지역으로 전해내 려 오고 있다.

- Upper Midtown의 5번가 주변에는 Trump Tower 이외에 IBM Building, Museum of Modern Art, Waldorf-Astoria Hotel, Plaza Hotel, American Craft Museum, Museum of Television and Radio등 성공한 유명 건물이 있다. 이들 회사는 행운 의 기운이 통과하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 Theater Distric 지역에는 센트럴 파크의 남쪽으로 Rockefeller Center, Diamond Row, Lyceum Theater, Carnegie Hall, Algongain Hotel, New York Yacht Club, American Standard Building New Amsterdam Theater, Paramount Building, 등 성공한 회사의 건물이 있다. 이들 건물 역시 행운이 통과하는 지역 에 있다.
- 세계적으로 최대규모의 금과 Diamond 거상들이 모여있는 Diamond Row 는 1930년대 독일의 나치즘을 피해 유대인과 암스테르담의 다이아몬드 제작자 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하여 다이아몬드의 세계시장이 되었다. Diamond Row는 행운의 기운이 통과하는 5번가 에 자리잡고 잇다.
- 센트럴파크 남쪽 행운의 기운이 모이는 자 리에 위치한 Carnegie Hall은 뉴욕 최대의 음악회관, 백만 장자인 Andrew Carnegie가 1981년에 건립하여 그의 이 름을 보존하고 있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이곳에서 연주하였 다. 오늘날 이곳에서 연주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성공한







인물로 인정받게 되었다. 개관기념 연주회는 Tchaikovsky 가 지휘를 하였다. 이때 뉴욕 최대의 인사들 만이 관람할 수 있었다. New York Phillharmonic 악단이 이곳에 있었고 그 당시 지휘자로는 Arturo Toscanini, Leopold Stokowski, Bruno Walter 그리고 Leonard Bernstein 등이 활약하였다. .

- 행운이 기운이 통하는 5번가에 자리잡은 Rockefeller Center는 뉴욕의 심장부로 전문가들에게 알 려진 건물로서 이전까지는 Columbia대학 소유의 땅이었 다. 1928년 John D. Rockefeller, Jr.가 이곳에 Opera House를 짓기 시작하였다. 그는 1930년대의 최악의 대공 항을 맞이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14개의 건물을 건설하였다. 이때 건설에 참여한 사람은 225,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모두 19개의 건물 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다. 1932년 12월 Radio City Music Hall이 개관되었다. 매년 크리스마스 쇼불 비롯한 각종의 연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행운의 기운이 통과하는 6번가에 자리잡 고 있는 Lyceum Theater는 1903년에 개관된 뉴욕에서 가 장 오래된 극장으로 오늘날까지 애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Born Yesterday 라는 코메디는 1600회를 공연하에 기록 을 세웠다. Time Square광장도 이곳에 있다. 타임 스퀘어 라는 이름은 1904년 25층 규모의 이곳 건물에 New York Times 가 들어오고 부터이다. 뉴욕 타임스가 신년 전야에 이곳에 이사하게 된 것을 폭죽으로 축하하는 행사를 시작한 것이 매년 심야 자정의 카운트다운 축하 행사로 변하게 되었 다. 전국에서 이 행사를 보기 위해 현장에 수 많은 인파가 이 곳에 모여들거나 또는 TV의 방영을 본다.

- Lower Midtown 에는 5번가와 Park Avenue에 걸처있는 Helmsley Building, MetLife

Building, Grand Central Terminal, Home Savings of America, Chain Bank, Chrysler Building, Fred F. French Building 등이 성공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News Building은 이들 지역과 떨어져 있다.

- Helmsley Building은 4번가에 있다. 이 건물의 소유자 Harry Helmsley 는 원래 주급 12달러의 사 환(office boy)이었다. 그는 부동산 사업으로 재벌이 되었 다. 이 건물은 원래 New York Central Railroad 의 본부 건물이었다. 5번가에 비교적 가까이 있다.

- 5번가로부터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 East강이 흘러 내려가는 것을 내려다보는 지점에 보기에 아 름다운 도시가 많이 있다. 초기에 이 지역을 뉴욕 중 상층 시민을 위한 도시로 새롭게 건설한 것이 1928년이었다. 12 개의 건물 군과 3,000세대의 아파트 병원 식당 점포등 각 종 문화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었다. 도시 각 건물의 외관은 영국의 전통적인 고딕양식 중의 튜도식으로 하여 고풍스런 도시도를 구성한 곳도 있다. 이 지역 중에는 과거 한 때 paddy Corcoan일당의 끔직한 살인사건을 전후하여 범죄 자의 소골로 알려진 곳도 있다. 그 당시에는 아름다운 강을 바라보기 위해 열고 싶어도 열린 창문으로 위험한 일을 당 할지 몰라 꼭 닫고 지내야 할 정도였다. 강변에는 도살장, 낡은 공장들 그리고 맥주 양조장(breweries) 가스공장 들 이 줄지어 있다. 겉 보기에는 아름다운 도심에도 위험한 일 이 따르곤 하였다.

- United Nations 건물은 East 강에 기깝 게 자리잡고 있다. United Nations 은 세계 각국이 평화와 상호교류, 경제적인 협력, 그리고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1945년 51개 국가가 결성, 오늘날 180개 국가 모임, 850 만 달러의 토지 구입비를 John D. Rockefeller, Jr.가 희 사하여 이곳에 세우게 되었다. 5번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east 강에 기깝게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강 바람이 때때 로 강하게 분다.

- News Building은 1919년에 설립된 The Daily News 신문사 건물이다. 5번가로 부터 비교적 동쪽으로 멀리 이스트강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다. 1925 년도 이 신문은 100만 부를 발행하는 최대의 신문이었다. 신문기사의 내용이 유명인사들의 스캔들이나 잔악한 살인 사건 등 횽미위주의 기사로 서민들의 필독서라는 평을 받기 도 하였다. 건물의 형태나 실내장식 등은 당대 최고급의 예 술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의 재정관계는 미지수였 다.

- 이 지역 행운의 기운이 통하는 5번가에 있 는 IBM Building은 43층의 초고층 건물이다. Museum of Modern Art는 1929년에 설립된 초현대식 미술관이다.

- Waldorf-Astoria Hotel은 1931년에 건 설된 이래 뉴욕 최고급 호텔로서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46년에는 윈스턴 처칠이 이곳에 머물렀으며 1931년부 터 미국의 역대대통령들이 이용해온 곳이다. Plaza Hotel 은 뉴욕에서 최고급 부인격(dame)의 초호화호텔로서 800 개의 객실, 500개의 욕실, 5개의 대리석 계단실, 14-17개 의 방이 딸린 특실을 갖추어 지구상에서 가장 호화스런 호 텔로 알려져 있다.

Chelsea, the Garment, Gramercy and the Flatiron Distric

- 이 지역에서 행운의 기운은 5번기에 위치 한 Empire State Building, Madisdon Square Park. Union Square를 통과하여 4번가의 Park Avenue 로 연 결된다. 이 일대의 5번가와 4번가 사이에 성공한 회사가 많 다. 이곳에 행운의 기운이 통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 동쪽 강변은 시원한 바람이 자주 부는 곳이다.

- Chelsea and the Garment Distric 에는 Empire State Building, Macv's, Madison Square Garden, Chelsea Hotel, Hugh O'Neil Dry Goods Store 등이 5번가 가까이 있다.

- 6번가에 위치한 Macy's 는 세계 최대의 점포로 한 불록 전체를 사용한다. 가격의 고하를 막본한 각 종 물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초기의 설립자는 Rowland Hussey Macy로 그는 본래 포경업자였다. 그가 서쪽 14번 가에서 작은 점포로 시작한 것이 1857년이다. 20년 동안 이곳에서 사업하여 1877년 그가 죽을 당시 11개의 건물을 소유하는 대 점포로 발전하였다. 그의 죽은후 2명의 동생 Isidor 와 Nathan Straus가 회사를 운영하였다. 회사가 번 창하자 현재의 west 34번가로 1902년에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2년에는 타이타닉 호의 침몰로 Isdor 와 그의 부인이 죽었다. 이 회사는 매년 뉴욕시의 추수감사절 행사와 독립기념일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1990년대에는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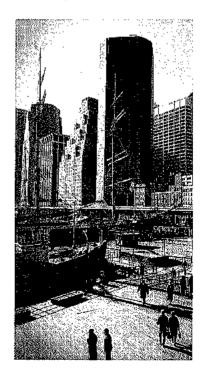
- 7번가에 있는 Chelsea Hotel은 유명한 인물 등이 애용하는 호텔로 이름나 있다. Tennesse Williams, Mark Twain, Jack Kerouac 등 명사들의 이름 이 방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음악가 미술가 저술가들이 즐 겨 이용하는 곳이다. 7번 가에 있는 Madison Square

Garden은 20,000석 수용의 체육 음악 공연장으로 5,600 석 수용의 극장도 함께 있다. 농구, 하키, 복성, 테니스, Rock 음악회, 레슬링대회 등이 열리는 다양한 문화 체육 행 사장이다.

- 5번가에 위치한 Empire State Building 은 1931년에 완공되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 장 높은건물, 뉴욕의 기장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로 7,900 만명이 이 건물 옥상의 전망대를 이용했다.

- Gramercy and the Flatiron Distric 중에 행운이 통과하는 위치에는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 Flatiron Building, Theodore Roosevelt Birthplace, Ladies' Mile, 등의 유명 회사가 자리잡고 있다.

- 미국 26대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이곳 5번 가 뉴욕 28 East 20th Street에서 1858년 10월 27일 태 어나 성장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 생기는 행운의 기운이 통과하는 Masdison Square Park 와 Union Square의 중간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그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8년 간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 1919년 1월 6일 뉴욕주 Oyster Bay에서 사망하였다. 그가 태어난 집은 1916년에 파괴되었으나 그의 사후 여성 후원회에 의하여 원래의 설계 도에 따라 복원시켰다. 현재의 가재도구 중에 40%가 루즈 벨트 대통령이 생전에 사용하던 것들이다.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살던 이 건물은 19세기 중엽의 미국 상류사회를 잘 나타 내고 있다. 그는 1873년에 Uptown의 6 West 57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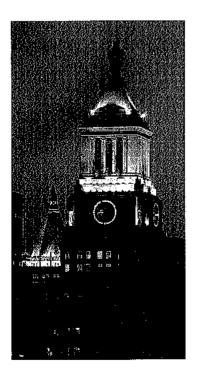
Street의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이 아파트건물은 후에 상업 용 건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무덤은 Youngs Memorial Cemetry, Oyster Bay 에 있다. 루즈 벨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땅이 행운의 통로라는 점을 나 타내고 있다.

- 5번가와 4번가 사이에 있는 Ladies' Mile건물은 19세기에는 뉴욕 인근에 서는 귀부인들이 마차 로 모여들이 오늘날의 고급백화점과 같은 상권을 이루던 곳 이다. The Library at the Players 는 배우 Edwin Booth 고향집이며 Mark Twain의 생가도 이곳 가까이 있다. Gramercy Park에는 뉴욕의 전시장 James Harper, 배우 James Cagney의 생가가 있다. Block Beatiful에는 영화 배우 Theda Bara와 허리우드 최초의 섹스 심벌 Patric Campbell의 집들이 이곳에 있었다.

Greenwich Village and East Village

- 행운의 기운은 Union Square을 출발하 여 Greenwich Village를 감싸고 Broadway와 Fourth Avenue 사이를 통과한다. Greenwich Village는 아름다 운 소도시로 유명하다. 저녁이 되면 다방이나 카페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고급 주거 지역 이다.

- Greenwich Village : 행운의 기운이 작 은 언덕을 이루며 이 지역의 동쪽과 남쪽을 감싸주고 있어 행운의 기운이 모여있다. 이 지역의 St Luke's Place는 1850년대에 세워져 오늘까지 전해오는 역사 깊은 지역.



1926년도에는 시장 Jimmy Walker가 이곳에서 살았다. Audrey Hepburn 주연의 영화 Wait Until Dark의 촬영도 이곳에서 했다. 작가 Theodore Dreiser와 시인 Marianne Moore, 극작가 Eugene O' Neil, 배우 Dustin Hoffman 등이 살았던 집이 이곳에 있다. 이곳의 중심부에 있는 Washington Square Park에는 뉴욕에서 가장 이름 난 집안들인 Delano기문, 작가 Edith Wharton, Henry James, John dos Hopper 등이 살았고 시장 관사도 이 곳에 있었다.

- 이 지역에는 Green village 이외에 St Luke's Place, Grove Court, Isaces-Hendricks House, Jefferson Market Courthouse, 그리고 Patchin Place 등이 있다.

- East Village의 행운이 통과하는 지역에 는 Cooper Union, Public Theater, Colonade Row, 그 리고 Old Merchant's House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브로 드웨이 가까운 곳에는 성공한 회사가 많다. Cooper Union 은 Peter Cooper가 1859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한 대 학교, Peter Cooper는 최초로 증기 기관차를 만든 감부이 다.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 시키기 위해 이대학교를 설립하 였다. 1860년에는 링컨 대통령이 이 학교에서 연설하기로 했다. Copper 회사가 성공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회사의 위치가 행운의 기운이 통과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해 준다.

SoHo, TriBeCa and Lower East Side

- 이 지역에서 행운의 기운은 Broadway와 Bowery사이에 Saint Patric's Old Church로부터 Hall of Record까지 연결되어 있다. SoHo, TriBeca는 미술의 도시로 유명하다. 이 지역의 브로드웨이에 가까이 있는 Haughwout Building, St Nicholas Hotel, Singer Building, Guggenheim Museum SoHo,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 그리고 Museum for African Art 등 큰 건물들은 행운의 통로 위에 있어 크게 발 전할 수 있었다.

- Haughwout Building은 1857년에 건립 된 Haughout 도자기와 초자 회사의 건물, 이곳의 제품들 윤 백악관에 납품되었다. 이 건물은 현재에도 이용되고 있 다. St. Nicholas Hotel은 1800년도 까지만 해도 뉴욕 최 고급의 호텔, 주변에 다른 고급 호텔이 들어서자 1870년도 까지만 이용. Singer Building 은 1904년에 지은 전기 재 봉틀을 제작하는 Singer 회사 건물이다.

- Lower East Side에는 Home Savings

of America, Police Headquarters Building, Little Italy, Chinatown, Puck Building, Old St. Patrick's Cathedral, 그리고 Engine Company No.31 등이 유명 건물로 알려져 있다.

- 이 지역에는 브로드웨이를 통과하여 행운 의 기운이 흘러 이곳에 성공한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 러나 이곳의 동쪽에 있는 한 공원 (Columbus Park)은 과 거 뉴욕 5대 빈민가 중의 하나로 하루에 한명 꼴로 살인사 건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Lower Manhattan, Seaport and the Civic Center

- 이 지역 행운의 기운은 Hall of Recors을 출발하여 City Hall Park와 Wall Street를 경유, Cunard Building 까지 연결되고 있다.

- Lower Manhattan의 Wall Street 부근 은 뉴욕의 역사가 출발한 지점으로 미국 최초의 수도이다. 이곳의 Federal Hall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첫 대통령으로 직책을 서약한 곳. 이 지역은 Algonquin Indian 으로부터 Peter Minute가 1626년에 24달러에 사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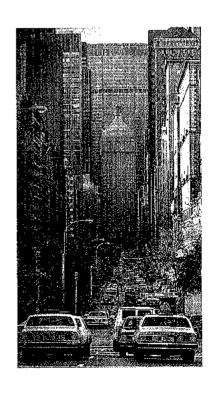
- Federal Reserve Bank(일반 은행을 위 한 정부의 은행, 이 은행건물 지하실에는 세계 각국의 금을 보관하는 큰 창고가 있다. 이 금의 창고는 90톤 무게의 대 문으로 잠겨져 있다), New York Stock Exchange, Federal Hall 등 유명한 건물이 있고 그 이외에 Cunard Building, Fraunces Tavern Museum, Elizabeth Ann Seton, Bowling Green Park, Trinity Church, World Trade Center, US Custom House, Downtown Athletic Club, World Financial Center, Vietnam Veterans Plazza 그리고 Museum of Jewish Heritage 등이 있다. 이들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은 행운의 통로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모두 크게 발달하여 이곳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게 되었다.

- Seaport and the Civic Center 지역에 서 행운의 기운이 통과하는 위치에는 Woolworth Building과 AT&T Building이 있다. Woolworth Building은 1879년 Frank W.Woolworth씨가 5센트 짜 리 물건만 파는 점포를 이곳에 시작한 것이 시발이었다. 샤 업은 번창하여 1913년에 오늘날의 건물로 신축하였다. 정 4각형 평면에 파라밋 지붕의 이 건물은 1930년대 까지는 이곳에서 최고의 건물이었으며 오늘날까지 이 회사에서 이 용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발달은 이 지역이 행운의 기운이 통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뉴욕에서 크게 성공한 회사들은 대부분이 센트럴 파크 남쪽 5번 가로부터 월 스트리트까지 연결되는 행운의 통로 위에 또는 이와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다. 뉴 욕의 서부 브로드웨이 주변에는 비록 행운의 통로와는 떨어 져 있어도 성공한 회사가 있다. 전체적으로 땅의 기운이 서 쪽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쪽지역에는 사고 위험지역 으로 알려진 곳도 더러 있다. 이러한 자료로부터 땅에 흐르 는 행윤의 기운이 회사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 심을 알수 있다. 또한 풍수지리의 이론은 현대 산업의 발전 에 유용하게 적용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교통 문제

원활한 교통 상태는 회사입지 조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뉴욕 Wall Street의 발달의 원인을 혹시 교통 때문이 아니가 하고 생각하기 쉽다. 뉴욕 은 전체적으로는 교통이 매우 발달된 곳이다. 그러나 뉴욕 내에서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은 Park Row, Brooklyn Bridge, Manhattan Bridge 그리고 Parkway 등이 있는 동남부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크게 성공한 회사가 없 다. Wall Street는 오히려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이름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교통의 조건이 회사의 성공에 크 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란 점이 확인된다.



명당의 기타 영향

- 주택이 행운의 통로 위에 있는 경우 이 집 에 시는 사람들은 행운의 기운을 많이 받게 된다. 그 결과 건강하며 학식을 갖게 된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을 갖 게되고 사회적으로 큰 인물로 성공하게 된다. 루스벨트 대 통령의 생가와 카네기가 살던 집은 5번가와 가까운 행운의 통로 위에 있다. 뉴욕의 최대기문인 Delona family, Edith Wharton(writer), Henry James, John dos Passos, Edward Hopper(artist), Gertrude Vanderbilt (founder of the Whitney Museum) 등은 행운의 기운 이 통과하는 남부의 Washington Square 가까운 곳에서 살았다. 훌륭한 인물은 통로에서 발생되는 행운의 기운을 받고 성장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

- 금융기관: Federal Reserve Bank, New York Stock Exchange, World Financial Center, Wall Street, The Irving Trust Company, Chase Manhattan Bank, The Marine Midland Bank, Home Savings of America 등 주요한 금융기관이 행운의 통로 위에 자리잡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안정되고 발전하여 도시 전체가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 행정기관: Federal Hall, Cunard Building (U.S Post Office), The Chamber of Commerce, City Hall, Old New York Country Courthouse, Criminal Courts Building, New York Country Courthouse. United States Courthouse.



Surrogate's Court, Hall of Record .Municipal Building, Police Headquarters Building, 주요한 행정 기관이 행운의 통로위에 자리잡고 있다. 공무원들이 행운의 기운을 받아 정의롭고 창조적인 행정을 이끌어 뉴욕을 발전 시켰다.

- 문화기관 : Carnegie Hall, U.S Custom House(Museum), Guggenheim Museum SoHo,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 Museum for African Art, Public Theater, Old Merchant's House, Madson Square Garden, Lyccum Theater, New Amsterdam Theater, City Centrer of Music and Dance 등 음악 연극 영화 흥행장 들이 명당에 자리잡아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 화사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 예술가들이 비교적 명 당인 Greenwich (home of celebrated artists and writers)에 살아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여 좋은 작품을 만 들 수 있게 되었다.

- 외국인의 발전 : 뉴욕은 세계 여러 민족의 전시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 다. 해외로부터 이곳에 이주해 와서 정착해 살고있는 민족을 이곳에서는 소수민족이라고 부른다. 뉴욕에는 오래전부터 소수민족들이 자기들만의 문화를 유지한 채 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곳이 많다. 풍수지리로 소수민족들의 거주지를 분 석하면 거주지의 지세와 발전의 정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 을 확인하게 된다. 뉴욕의 소수민들 중에서 유태인(Old Jewish)들은 Lower East Side에 , 인도인(Little India)은 East Village지역, 독일인은 German Distric at Upper East Side에, 백 러시아인들은 (White Rusian community) Upper East Side에, 스페인계통은 (Hispanic Community) Harlem s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이들 여러 민족 중에서 행운의 통료 위에 자리잡은 중국사람의 Chinatown, 이태리계 (Little Italy), 우크라이나계 (Little Ukraine), 한국계(Little Korea), First Irish community 등 은 다른 민족에 비해 성공한 편에 속한다.

- 뉴욕은 법죄 발생면에서 봤을 때 서쪽지역 이 안전하다. 행운의 기운과 가까운 서쪽 지역은 평화로운 도시로 조성되어 범죄의 발생율도 낮다.

뉴욕과 다른 도시와의 풍수적 비교

도시는 시골에 비하여 행운의 기운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성공하는 행운을 받는다. 도시마다 언덕, 산, 그리고 강 등의 지리적인 조건이 다르고 땅의 기 운도 다르다. 행운의 기운이 큰 도시에서는 많은 사업체가 큰 규모로 성공하게 된다. 행운의 기운이 작은 도시에서의 사업체는 작은 규모로 발전하게 된다.

강과 도시의 행운

도시의 행우은 강물에 의하여 발생된다. 강 물의 수는 행운의 수와 관련된다. 여러 도시의 행운을 비교 해 본다.

- 시키고는 Des Plaines 강과 북 시키고천 (N.Br.Chicago) 그리고 Lake Michigan 등 3개의 물이 모여 생기를 이룬다. 3배의 행운을 갖은 도시이다. 이곳에 서의 사업은 3배의 큰 성공을 거둔다.
- 보스톤은 Charles강, Marden강, 그리고, Massachusetts Bay 등 3개의 물이 행운을 만들어 준다. 다른 도시보다 3배의 큰 행운을 갖고 있다.
- 피츠버그는 Elegenie강과 Monongahela강, 2개의 강에 의하여 행운을 만들고 있다. 다른 도 시보다 2배의 큰 행운의 기운을 갖고 있다.
- 워신톤 DC.는 Potomac강과 Indian천 2 개의 강에 의하여 행운이 만들어진다. 2배의 큰 행운을 받 게 된다.
- 크리브랜드는 Cuyaho River와 Lake Erie 2개의 물에 의해 2배의 큰 행운을 받는 도시이다.
- 산프란시스코시는 San Francisco Bay, San Pablo Bay, 그리고 Pacific Ocean 등 3개의 물이 모 여 생기를 이룬다. 3배의 행운을 갖은 도시이다. 이곳에서의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보다 3배의 큰 성공을 이룬다.
- 디트로이트는 Detroit강과 Lake St. Clar 등 2개의 물이 행운을 만든다. 다른 도시보다 2배의 큰 성 공을 하게 된다.

세계 제일의 도시와 풍수지리

- 뉴욕 남부 미국 최초의 이주민 지역에 목 조 울타리 즉 월(Wall)이 건설된 것은 1653년이었다. 미국 의 독립은 1776년 7월 14일. 뉴욕에 최초의 학교 First Free State School가 열린 것은 1805년으로 이것은 지금 부터 195년 전이다. 뉴욕이 세계 제일의 도시로 발전하게 된 기간은 길게 잡아야 약 250년 정도이다. 250년의 비교 적 짧은 기간 동안 뉴욕 시민들은 이곳을 세계 제1의 도시 로 발전시켰다. 뉴욕의 발전은 뉴욕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근면과 창조적인 사고 그리고 협동심 과 정의감 그리고 회생정신 등 여러 가지의 업적에 의한 것 이다

- 뉴욕에서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세 계 다른 여러 곳에서의 많은 사람들 역시 근면성과 정직성 으로 창조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뉴욕만큼 성공하지는 못했다. 뉴욕이 남보다 크게 발전한 배경은 이곳의 땅이 명당이라는 점이 큰 이유가 된다. 명당 에서는 행운의 기운에 의하여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지런하 여 부자가 되거나 정치가 학자 예술가 등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다

- 뉴욕은 4개의 강물이 (East River, Hudson River, Hackensack River, Atlantic Ocean) 행운의 기운을 만든다. 강물의 기운은 특히 부자가 되는 행 운을 만들어 준다. 뉴욕은 보통의 도서보다 4배의 큰 행운 의 기운을 갖고 있어 세계적인 재벌이 배출되는 땅이다. 뉴 욕에서의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보다 4배로 큰 성공 을 하게 된다. 뉴욕은 앞으로도 더욱 크게 발전하게 될 것으 로 기대된다.

행운의 기운과 건물 형태 · 배치 · 방위 ·

재료

- 시람은 실내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잠자는 동안 땅과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두가지 기운을 동시에 받는 다. 땅이 갖고 있는 기운과 건물이 갖고있는 기운이 각각 사 람에게 작용한다. 땅에서는 행운의 기운이 올라와도 건물 자체에서 좋지 못한 기운이 나올 경우도 있다. 건물의 형태 와 배치방법, 방위 그리고 사용 재료 등은 행운의 기운과 밀 접하게 관련된다. 평면의 형태는 정사각형과 원형 등 기운 이 모이는 형태에서 행운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붕은 돔 이나 피라밋형이 가장 큰 행운을 만드는 형태이다.

- 건축의 재료 중에서 유리는 행운의 기운을 배척하는 대표적인 재료이다. 유리가 많은 건물은 행운을 쫗아 버린다. 쇼윈도가 큰 점포는 손님이 바로 나간다. 침대 의 머리는 창문과 멀리 떨어져야 좋다. 여와같이 동일한 지 역에서 건물도 각각의 형태, 방위, 재료, 그리고 인태리어에 따라 행운의 기운이 달라진다. 閩

참고문화

- 1. 출저,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측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978.9
- 2, 졸저,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건축에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 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8
- 3. 졸저, 풍수지라와 현대건축 기운당, 1991.12
- 4. 졸저, 풍수지라와 건축, 경향신문사, 1997.2
- 5. 졸재,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8
- 6. Eleanor Berman, NewYork, A Dorling Kindersley Book, 1999

내역 입찰제도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Detail-Estimate Bidding System and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이복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y Lee Bok-Nam

2년 전부터 국내 건설산업에서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하는 민간 측에서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 기"라는 슬로건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내 건설공사에서 정률 낙찰 값인 73%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시공을 할 수 없고, 이 상태로는 국내 건설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용책이 4월에 발표되었다. 건별 발주 금액이 낮을수록 낙찰률을 높이는 조처를 취했다. 1,000억원 이상은 현행 보다 최대 3%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그러면서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 공사는 무제한 최 저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와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과연 국내 건설산업에 어떤 결과를 가 져올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공급자 측에 경제적인 도움은 상당히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세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유는 현 행 국내 입찰 제도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구조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점 검해 보고자 한다.

발주예정가 산정방식

국내 공공공사의 발주 예정가는 국계법 시행 규칙 제6조(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기격의 결정)에 따 라 공사원가 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판리비, 및 이유 등 다섯 가지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직접경비인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산 금액의 일정비율로서 산출되도 록 되어 있다. 재료비는 설계도면으로 부터 물량을 산출하여 시중 단가를 곱해서 산출한다. 그리고 노무비는 재료의

종류별 표준 품셈에서 노무량(생산성)을 계상하여 직종별 시중 단가를 곱해서 산출한다. 언뜻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 재되어 있다.

첫째로, 재료비 산정을 위한 물량 산출 방법 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건설 자재는 크게 구조물에 영구적 으로 설치되는 자재와 영구 자재 설치를 위한 임시 자재로 나눌 수 있다. 즉 콘크리트는 영구 자재지만, 거푸집과 동바 리 등은 임시자재로 분류된다. 영구자재는 설치 물량으로 기격 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임시자재는 시공자의 공법 에 의해 재료의 종류와 물량이 달라진다. 그런데 국내의 경 우 이를 모두 설계자가 결정하여 버리기 때문에 시공자의 기술력이란 입찰 단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어 있다. 즉 시공자가 자신의 독창성이나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 는 뜻이다.

둘째는 노무비 산정 부문이다. 어떤 재료를 시공하는 데는 시공자의 기술력, 즉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며 재료가 동일하다면 가격 경쟁력은 노무량(생산 성) 좌우하게 된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직종별 노무 단가는 실 거래 기격을 반영하면서 노무비의 크기를 좌우하는 노무 랑은 아직도 표준 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공 자의 기술에 의한 생산가격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셋째는 제경비와 이윤을 산정하는 구조이 다. 국계법에서 일반관리비 산정과 이윤을 일정률로서 제한 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시공자의 경영 기술을 획일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시가 기업의 경영 기술을 제고시킬 이유가 없도록 되어 있다. 경영 기술력이 높을수 록 직접경비와 제경비 및 이윤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국계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시공사 측면에서 보면 계약 후 시공물량을 증가시킬수록 일반관리 비와 이윤이 늘어나는 모순을 갖고 있다. 즉 시공사가 기술 력을 갖고 있더라도 물량을 절감시켜 발주자에게 혜택을 돌 려 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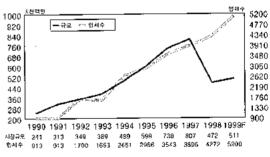
예정가 운영 방식

공공공사에서 예정가는 내역서에 의해 만들 어지며 이 값은 일명 조사 가격으로서 발주 예정가를 정하 는데 기준이 된다. 즉 조사가격을 삼위 3%, 하위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가격을 조정하여 이를 입찰 장소에서 제비 뽑기 식으로 네 개를 골라 산출 평균하여 낙찰률을 결정하 는 잣대로 쓰고 낙찰 후에는 이를 다시 기성대가 지급 기준 으로 활용하며 설계 변경을 위한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문 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적인 모순을 가진 예정 가를 낙찰 기준과 시공자 관리 부문까지 이용되는데 문제가 있다. 시공자로서는 입찰 단계에서 조사 가격은 이미 공개 되어 있으므로 입찰 총액을 결정하는 데는 상위 3%에 맞출 것인지, 하위 3%에 맞출 것인 지만을 결정하면 된다.

국내 건설공사의 입찰제도가 운찰 제도라는 것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입찰자 스스로는 여러 개 의 수치 중에서 골라잡아야 함으로 그날 운수가 좋은 사람 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평균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소위 "Midas(신)의 손"에 의지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의 손이 기술자와 전혀 무관한 것에 있다. 그야 말로 억세게 운 좋은 손을 가진 사람에게 기업의 생존을 내 맡겨 놓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라 하겠다.

규제 완화와 선택권의 차이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장 진입에 걸 림돌이 되는 면허제도를 등록제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신규 업체의 시장 참여를 완화시키기 위해 PQ 심의 규정도 상당 히 완화시켜 놓았다. 그 결과 〈그림〉과 같이 시장 규모는 감 소하는데 반해 업체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표)와 같이 단 위 공사 발주 건수 당 입찰 참여 수도 급증하고 있다. 건설



(그림) 1990년대 국내건설시장 규모와 업체수 중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10억원 미만	141	209	233	291	360
10억원 이상	74	132	139	: ! 185	: i 187
50억원 미만	14	104	139	100	101
50억원 이상		70	ee.	57	70
100억원 미만	66	76	65	57	
100억원 이상	21	21	24	26	28
PQ공사	20	16	16	. 15	22

(표) 발주공사 규모별 건당 평균 참가 업체수 및 인간건설(2000, 5, 2 자)

이라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발주자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공급자 선정을 포기하는 상태로 진전되어 버렸다.

그 결과 건설 면허는 누구라도 가질 수 있으 며 당첨된 건설업자는 공사 이윤을 직접 시공 원가 절감을 통해서 얻기보다는 이를 하도급이나 전매를 통해서 그 차액 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된다. 거래 차액을 챙기는 상술이 국내 건설 업을 지배하는 모순으로 연결되어진다. 이는 발주자를 보호. 하는 장치가 전혀 없게 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시장에 진 입하는 데는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시장 참여는 발주 자가 참여자의 기술력을 물음으로써(소위 변별력) 능력 있 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런데 현행의 PQ제도 는 변별력을 갖추지 못해 발주자 역시 그날 운수에 상품을 맡겨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예를 들어보자, 변별력 중 과거의 경험이 중 시되어야 하는데 신규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경험 에 대한 비중을 지나치게 낮춰 놓았다. 이유는 실적이 높을 수록 진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 신규업체들의 저 항 때문이다. 정말로 시공에 기술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경 험을 갖춘 기업에게서 시공을 통한 Know How를 전수받 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어째서 발주자와 직거래로서 만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모든 위험 요소(Risk)를 공공의 발주자에게만 전가시켜야 하는 가? 혹시, 국내의 이런 현상이 공사 낙찰 후 100% 하도급 이나 타 기업에 음성적으로 전매하는 문제점과 연계되어 있 는 것은 아닐까?

제 값의 정의가 있는가?

국내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 는 제 값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의 상승과 같은 의미로 해 석되고 있다. 이것은 낙찰률이 높아질수록 제 값에 가까워 진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국내 건설원가 산정방식이 제대로 값을 산정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아니지 않는가? 건설사업의 특성을 얘기할 때 흔히 비반복/ 비복제/비표준화를 들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건설공 사의 정가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발주자의 주문에 따라 달라지며 서비스 공급자인 시공자의 기술력에 의해 달라진 다. 즉, 건설공사의 제 값이란 시공자의 기술력에 의해 산정 되고 완결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현행 국내 입찰제도는 이와는 너무

나 먼 거리에 있지 않는가? 이 문제의 심각성은 국내 기업 들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에 있다. 만일 현재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제 값을 주기 위해 낙찰률을 계속해 서 상승시키는 추세라면 굳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기술 력을 제고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는가? 재료비와 노무비는 항상 시중의 실거래가로 예정가에 반영되기 때문 에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해야 할 이유가 적어진다. 원가 절 감의 일정분을 발주자에게 돌려 줘야 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최저가 도입에 차등제가 필요한가?

정부는 궁극적으로 모든 공사에 최저기를 도입할 계획이라 하지만, 일차적으로 2001년부터 1,000억 원 이상 PQ공사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였다. PQ공사는 또 기타 공사에 비해 기술력이 더 요구된다고 하여 22개 공종 으로 제한하였다. 현행대로 하게 된다면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의 생산가격이 그렇지 못한 보통의 시설물 생산 가격보 다 낮아지며 또 다시 이로 인한 위험 부담은 발주자에게로 귀속된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데는 기업들에게 준비할 시 간을 주자고 하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이유라면 발주자 및 시공자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라리 소규 모 공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적용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물량 배분과 기업의 경쟁력 관계

정부나 국민들은 국내 건설기업들에게 전문 화와 국제 경쟁력을 갖추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 수의 학자들 역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만이 살아 남을 수 있으므로 기술력을 갖추라고 충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 시장의 원리는 경쟁력을 갖춘 자만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며. 경쟁에서 살아 남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원리 하에 국내 기업들 역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이나 프로세스 개 혁 등을 통해 기술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국내 입찰제 도의 큰 흐름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게 시장을 확대시켜 주기보다 면허륜 가진 불특정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물량 배분 원칙을 준수해 왔다. 즉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에게 기회가 많아지는 것보다 누구나 참여하여 제비뿁기 식으로 물량이 분배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져 왔다. 결국은 국내 건설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가 없도록 하는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들에게 세계 시장에서 제 대로 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길 기대하는 데에는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물량 배분에 안주하게 되면 기업들의 창의력 이 급격히 저하되고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대기업부터 도산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즉 발주자의 물량에만 의존하게 되 며 기업 스스로 시장 창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건설 물량이 정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사회간접시설은 계속적으 로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사 발주 물량이 급 격히 줄어들게 된다. 결과는 국내 건설공사 수주에만 매달 려온 기업들이 규모가 골수록 도산의 길로 접어드는 순서가 빨라진다. 이런 현상의 예는 가까운 일본 건설산업에서 실 제 발생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나 예측으로도 충분히 가능 성이 높은 얘기가 될 수 있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중 사업비성 경비는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업계는 경쟁력보다 물량 배분을 선호해야 하는가?

발주자의 변별력 문제

누구나 국내 건설공사의 입찰제도는 변별력 이 없다고들 한다. 즉 PQ는 너무나 하향 평준화되어 있고 평가 항목 자체가 발주대상 시설물과는 무관하게 되어 있다. 고들 주장한다.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가지는 데는 나름 대로의 이유가 있다. PQ 통과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국내 공공공사의 경우 입찰 을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발주자 스스로 가 시설물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가려낼 지식이 부족하여 하향 평준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들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모순점이 내재되어 있다. 우선, 변별력을 갖춘다는 뜻은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주관적 평가 요소가 가미될 경우 감사원 감사에 서 지적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예 피해 버리게 된다. 다른 하 나는 발주자의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면 왜, 외부 전문기관 을 통해 대행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보지 않는가 이다. 건산 법 제2조 및 제26조에는 분명히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 업 무까지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시설물별 변별력을 못 붙는다는 논리는 상당한 모순점을 갖고 있다.

개선 방안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주로 가격 측면에서만 언급해 왔다. 주요 문제점에 대해 건 별 대용책 수립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지금 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제도의 개선안은 항상 이미 알려진 문제점들에 대한 치료책을 내놓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보다 미래 지향적 인 차원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다. 건설 기업들의 경쟁력 을 촉진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발주자가 그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묻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발주 및 입찰 제도가 서비스 공급자 들의 기술력을 제고시키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는 뜻이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은 현재보다 낮 은 가격으로 공기는 짧게 하면서도 품질 요건은 100% 만 존시키는 것에 있다. 이것은 결국 발주자에게 혜택이 돌아 가며 그것이 공공재라면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촉진시키고 무능력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발주 및 입찰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야 할 종합 물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기는데 현행 제도 중 걸림돌이 되는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른 순서이겠다. 심총적인 연구 없이 현재까지 밝혀 진 문제점 해결이라는 단편적 조처로서는 또 다른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이것을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세계는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 공공공사 물량을 인위적으로 배분 및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하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세계 경제는 "Global Standard"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Global Standard" 란 우리 시장 안에서만 통할 수 있는 관습과 제도를 버리는 것을 말한다. 어차피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당장의 아픔을 감내하고서라도 생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싶다. 🖺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5)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Wonrim Architecture of China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 연 쟤 목 차 〉

1. 시대적 풍격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회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회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졸정원

10. 새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람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모든 사물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 인간의 공간인식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 며 사회활동의 실천과정을 통하여 특정한 내용과 표현형식을 이룬다. 중국의 고대사회는 경제적으로 볼 때 자급자 족을 위주로 한 농경사회이며, 공간적으로는 폐쇄적이고 자아 만족의 기본특성을 가지고 있다. 진한 서대에는 규모 가 큰 원유가 많았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문벌지주계급의 산장과 별서가 성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서로 다른 역 사 발전 시기의 사회경제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인의 입장에서 공간인식은 자연산수를 주제로 삼는 산수시와 산수화, 그리고 원림예술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5.1 중국인의 공간의식과 원림

종국의 고전워릭은 산수조경에서 공간의장 및 일련의 공간처리와 수법에 이르기까지 정(靜)과 동 (動)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내포하지 않은 것은 없다. 고전원림과 다른 예술의 공통점은 모두 감성의 형태에 편중되 어 있지만 오히려 감성의 경험 속에서 고전적인 이성주의의 정산으로 충만된 수많은 대립의 범주를 제시하는데 있 다. 에를 들면 형(形)과 신(神), 경(景)과 정(情), 의(意)와 경(境), 허(虛)와 실(實), 동(動과 정(静), 인(因)과 차 (借), 진(眞)과 가(假), 유한(有限)과 무한(無限), 유법(有法)과 무법(無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대립의 범 주는 상호 구별되고 연결되며 제약하는 것으로 예술 전반에 존재하는 동시에 인과 차, 유한과 무한 같은 것은 원림 의 독특한 것이다. 이들은 모순된 구조 속에서 상호 침투와 현조를 강조하되 배척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이가 내재된 생명의 흥미를 전달한다.

중국 고대의 가장 근본적인 우주관은 도 (道)로서 이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일음일양(一陰一陽)이고 도가의 허무(虛無)나 자연(自然)이며 유가의 천(天)이다. 장자는 "천지(天地)는 만물의 부모인데 합쳐지면 체(體)가 되고 흩어지면 시(始)가 된다"라고 했다. 이것은 천지가 만 물을 생성할 때 모두 음양의 두 기운에서 비롯되고 두 기운 이 합쳐지면 만물의 실체가 되며 두 기운이 분산되면 천지 로 돌아간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인식되는 우주관은 우주를 정지, 불변 혹은 초자연의 신이 주재하는 것으로 보 지 않고 만물이 천지(즉, 자연)의 움직임 내지 변화의 산물 이라는 소박한 유물주의의 정신으로 보는 것이다. 이같은 우주관에 기초를 둔 공간의식은 서양과 달리 자연의 무한공 간에 대하여 모험적인 탐구와 흉폭한 추구를 하지 않고 유 한 속에서 무한을 관조하며 또 무한 속에서 유한으로 회귀 하여 자아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왕불복, 천지제 야(無往不復, 天地際也: 가서 돌아오지 않는 곳이 없고 천 지의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공간의식이다.

원림은 우주관념의 예술모형이다. 일찍이 유신(庾信)¹⁾은 〈소원부(小園賦)〉에서 "하나의 나무가지 위 에 소부가 안전한 거처를 얻었고 하나의 단지 속에 호공이 의탁할 터전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신을 전후로 한 위진남북조의 지식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나무가지나 단지라 해도 주로 자신들의 몸이 천명을 따라 분수에 맞게 살 수 있는 장소라면 그만이었고 환란을 피해 현실의 도피 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 사대 부의 예술은 협소한 표현공간 안에서 독특한 취미와 창조기 교에 탐닉하기 시작했다. 양나라의 소분(蕭賁)은 "일짜기 부채 위에 산수를 그리고 지척의 거리 안에서 만리를 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림의 경우였고, 북위 장륜가(張倫 家)가 자신의 원림산지(園林山池)에서 "험한 돌길은 막힌 듓이 통하고 험준한 산길은 구불구부 돌다가 다시 곧게 삗 는다. 40척이 100척 높이가 되고 10보로 천리를 간다"라 고 한 것은 원림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표현의 형식은 비록 달라도 목적은 같아서 지극히 제한된 공간 속에 깊고 넓은 예술공간을 창조하고 풍부한 예술적 변화를 담아내고자 애 를 썼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므로 통진 고개지 (顧愷之)2)가 회화에서 비록 "물은 넓지 않고 사람이 산보다 크다"라고 하였지만 성당(盛唐)3 시기에 이르면 사람들은 이미 좁고 굽이진 화폭 속에 대지와 같이 심원한 건축적 투 시관계를 표현해 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당 시기 지식인 들의 원림이 공간예술에서 "이소관대(以小觀大: 작은 속에 서 큰 것을 관조한다)"라고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결 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전기(錢起)4)는 성당과 중당의 전환점에 있 던 전형적인 사람인데 사대부의 인생가치, 운명, 세상사에 대한 태도가 성당 초기 사람과 크게 달랐을 뿐만 아니라 은 일과 원림이 그의 생활 속에 이미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앞 서 언급한 대로 심원하고 적막한 원림의 공간과 경지를 감 상하고 창작하는 것이 물론 중당 시기에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전에는 이러한 집착과 추구가 거의 없었다. 그 러므로 전기의 (척파부(尺波賦))에 기술된 원림의 "방여자 촌(方寸之余: 공간이 아주 작은 여지)"이나 "심상지내(尋常 之內: 거리가 아주 짧은 내부)"와 같은 취미에 대한 탐닉과 깊고 미묘한 분석은 이전의 사람들이 능히 몰두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중당 이후 "호중천지(養中天 地: 단지 속에 천지를 담는다)"라고 하는 경지는 지극히 짧 은 시간내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원림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 본적인 예술추구의 목표가 되었다. 중당 이후 1천년에 걸친 중국 고대 사회의 역사발전 방향이 시종일관 근본적인 변화 가 없었던 것처럼 호중천지의 공간원칙은 일단 성숙되자마 자 향후 중국 고전 원림 발전에서 구체적인 예술방법과 예 술취미의 기초가 되고 귀착점이 되었다.

중당 이후 더욱 구체적인 발전의 추세는 공 간의 범위가 더욱 작아진 택원과 정원 안에 완비된 경관체 계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호중천지는 중당 이후 원 림예술의 기본공간원칙이 되었으며 명청 시기에는 통일된 종법집권의 대제국이 점차 발전의 막바지로 치달아 원림에 서도 중당부터 양송까지의 원림이 가지고 있는 호중천지의 격식을 계승하였을 뿐 또 다른 활로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명청에 이르면 호중(養中)보다 더욱 작은 천지(天地)를 머 무는 곳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반 도시 그 안에 완전히 옛 것을 따르는 끝없이 광활한 세계를 만들므로서 하늘과 사람 사이의 우주체계와 오랜 역사의 고 도로 발달된 전통문화체계가 간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

¹⁾ 유신(513-581): 북쪼 북주의 윤학자로서 대구와 음룡의 조화, 화려한 수식을 요구하는 변터 문에 뛰어났으며 저서에 (유산사집)이 있목

²⁾ 진의 화가, 박학디자 하였으며 회화에 뛰어났고 그의 유마힐상은 중국 최초로 출현한 벽화 위 의 불상임.

³⁾ 역사학에서는 당대를 초당, 성당, 증당, 만당의 4개 사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성당은 현송 개원 년2k에서 대중 대력 초까지의 시기를 가리킵.

⁴⁾ 전기(722-780); 당대의 사연으로 노큔, 길중부, 한광, 사공사, 묘발, 최형, 경위, 하후심, 이탈 과 어뭏이 대력연간이 잘았던 10재자(才子)의 한사람.

라서 "개자납수미(芥子納須彌: 이주 작은 것이 수미의 세계 를 담아낸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이 원림에서 보편적 으로 추구하는 의미와 취향이 되었다.

조형에술의 하나로서 원림은 공간형태의 형 상화를 기본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다. 산, 물, 건축등의 경관요소는 모두 일정한 공간형태와 공간관계로서 존재한 다. 진한시대 궁원이 보여준 "체상천지(體象天地)", 중당 이 후의 원림이 추구한 "호중천지(壺中天地)" 등의 관념 처럼 역대 원림의 발전은 공간형태의 방법을 파악하면서 구현되 어 왔다. 그리고 호천의 확립 내지는 강화와 더불어 원림에 서 일체의 경관요소 및 그 조직관계는 모두 그것과 상응하 는 방법을 향하여 발전되었다. 결국 각종의 복잡한 경관요 소도 호천(帝天) 속에서 중화(中和)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이루어냈던 것이고 사대부 자신의 의탁과 발전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유일한 방향도 갈수록 자각되어 광활한 경지의 개척을 필연적으로 포기하고 전력을 다해 "이소관대"의 방 법을 완벽하게 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므 로 이후 수 많은 원림 창작의 실례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 었으며 고전원림예술은 호천(壺天)과 개자(芥子) 속에서 장 기간 생존하며 짜낸 결실이었던 것이다.

5.2 원림경로의 처리수법

원립경로는 원립을 유럽하는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통행과 기타 원림내 활동의 기능을 갖추고 있 다. 이러한 경로는 통로와 유람도구5)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 현되는데 원림감상의 의의로 보면 그것은 경관을 편집하고 변화하는 경관의 정서를 조직하여 유람자가 유람과정에서 원림예술의 참맛을 누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림과 유람자의 유람경로에서 직접 연계가 되는 것은 원로(風路)와 정점(停點)의 2가지 요소이다. 원 로가 유람의 통로를 제공하고 연속적인 관상(觀賞:즉動 觀)을 조직한다면 정점은 원림 내의 생활을 안배하고 정점 관상(停點觀賞: 즉 靜觀)을 조직한다.

(1)원로(園路)

원로는 통행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람자를 창조적인 경관 속으로 유도를

5) 여기서 합하는 유람도구는 가마, 일엽편주, 알, 나귀 등과 같은 사대부의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른바 원림 경관의 구도가 완미(完 業)로운지의 여부는 실제로 원로에 상대하여 전개되는 경관 들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경관의 창작은 원로에서 벗어 나 고립적으로 고려될 수가 없으며 경관의 조직성이라고 하 는 원리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러한 원로는 유람의 유도성. 경관과의 대응성, 진행의 곡절성, 주기적인 순환성, 형태의 변환성 등과 같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람의 유도성은 원로가 바로 유람의 가장 좋은 안내자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신뢰하는 심정으로 원 로를 따라 심오한 원림의 경계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노 선의 형태 자체가 관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 은 유람노선과 감상대상물 사이의 밀접한 상응관계를 설명 하는 유람의 대용성과 직결된다. 원림의 주요 풍경은 종종 사면팔방으로 돌아서 멀리서부터 가까운 곳을 보게하고 감 상노선 위를 걷게 하면서 시선을 따라서 운행을 하도록 하 는 한편 경관이 연속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하여 유한의 풍 경 속에서 변화무쌍한 경관을 얻도록 한다. 이러한 대응관 계에는 무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람하며 행진하는 노선과 관람선이 일치하여 순서대로 차츰 유인하여 경치속으로 들 어가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람하여 진행하는 노선과 관람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도 달하지 못하는 그리움을 만드는 방식이다. 또한 원로는 주 변의 산수환경과 어우러지기 위하여 고의로 곡절의 행진을 하도록 표현한다. 그 원리는 평면의 곡절과 높낮이의 변화 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원로의 배경이 유람의 진행에서 무미 건조하게 보이는 폐단을 제거하고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하 는데 일조를 한다. 이러한 원로는 시작과 끝이 서로 연결되 어 순환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대개는 소순환과 대순환의 구 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관상점을 연결하여 원래의 입구로 돌아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 원로의 형태 역시 일정한 형식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단히 전화(轉化)되 며 유람자로 하여금 의미심장한 맛을 느끼도록 한다.

(2)정점(停點)

정점은 원림의 중요한 경관이 투시되어 그 것을 감상할 수 있는 정적인 지점으로 그 성격은 실용적인 기능을 위주로 하고 형태는 주로 건축적인 수단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주요 경관과 주요 정점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 는 것은 전체 원림배치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이것은 경관 구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요 경관과 마주한 장소에 설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특히 연회, 경극관람 등과 같은 실용적인 기능이 두드러진 청당과 같은 정점은 주거공 간과의 연락이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기타 정점들은 경관의 조직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놓이도록 한다. 경관과의 관계 및 일조조건의 유리함을 고려한다면 청당이 남향을 취해야 하지만 감상의 대상물인 경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당의 좌향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남북 양쪽면을 모두 고려할 수가 있다.

5.3 원림공간의 처리수법

원림공간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는데 그 묘미가 있다. 이러한 경관들 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연에 비탕을 두되 자연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보여준다. 고대 원림의 조 원가들은 차경, 장경, 억경, 협경, 대경, 참경, 광경, 누경 등 과 같은 구체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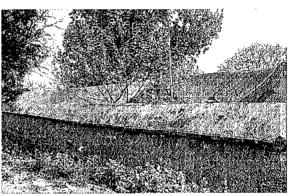
(1)차경(借景)



<u> 뷮경의 이회원에서 보이는 욕전산과 사신의 각 봉우리를 이용한 차경의 한 수법</u>

차경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명말의 조 원가였던 계성이 쓴 (원야)에는 원차(遠借), 인차(隣借), 양 차(仰借), 부차(俯借), 응시이차(應時而借) 등의 내용이 기 재되어 있다. 원차는 원림 외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물을 내부로 끌어들여 전체 경관의 한 조성 부분으로 삼는 것이 다. 이것은 원림의 내부공간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원경(遠景)은 주로 원림 밖의 자연경관으로서 연이어 전개 되는 산봉오리, 전원촌락의 풍광, 호수의 널찍한 수면과 같 은 것을 대표적인 실례로 들 수 있으며 시아에 들어오는 경 관은 모두 원림의 내부로 차용할 수 있다. 멀리 있는 경관을 발려오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비로소 좋은 경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도시내에 위치한 사가원림의 경우 는 대개 누각을 지어 이러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결 국, 원차는 원림 밖의 경관과 내부의 경관을 융합시켜 일체 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웅장한 기백을 느끼도록 하는 효과 가 있다. 인차는 인접한 경관을 끌어들어는 것으로 차경의 경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은폐의 방식을 이용하고 낮은 곳 에 있으면 연결시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모두 원림 내부의 경관을 풍부하게 한다. 부차와 양차는 여러가지 경관에 대 한 감상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각 적 미감을 제공한다. 응시이차는 빌려온 경물이 시시각각으 로 변화하는 경관을 담아내는 것이다. 예를들면 그것은 하 루 사이에 일어나는 아침햇살과 저녁노을, 밤 하늘의 달빛 을 당아내는 것이며, 일년의 사계절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봄날의 생동감, 여름의 녹음, 기울의 상쾌함, 겨울의 설경, 계절에 따른 화목(花木)의 특색을 이용하여 원림에 풍부하 고 다채로운 내용을 증가 시켜주는 것이다.

(2)장경(障景)



국경의 이회원: 안에 있는 해취원의 가산 뒷판에 보이는 담장을 이용한 집경의 수법

원림공간에 존재하는 경관의 분리는 주로 장경의 처리방식에 의존하는데, 특히 "원중지원(園中之園)" 의 조성에는 주로 이 수법이 사용하여 전체 원람을 서로 다 른 취향의 경관으로 나눈다. 장경은 토산(土山)이나 석산 (石山) 같은 지세의 기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나 담장, 회랑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지형, 식물, 건물을 종합하여 경관의 시선을 차단한다. 장경은 경 관의 분리 이외에도 문과 담을 이용하여 변경을 감춤으로써 유람자로 하여금 원림공간의 심원함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 고 무궁무진한 흥미거리를 유지시킨다. 이러한 장경에는 허 장(虛障)과 실장(實障)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실장은 간막 이 성격의 장경인데 한 면의 경관시선과 유람노선을 차단하 여 완전히 감싸지만 그 사이에 반드시 약간의 빈틈을 남겨 두어 소통을 위한 유도의 지점으로 삼는다. 허장은 침투성 의 장경으로 막은 듯 하면서 막지 않은 침투적인 관계로 처 리한다. 이것은 서로 유사한 경관, 혹은 서로 바라보면서 배 경이 되는 경관의 나누는데 이용된다. 여기서 침투의 정도 는 누창(漏窓)의 수량과 화문(花紋)의 번잡하고 간결함에 따라 조절된다.

(3)억경(抑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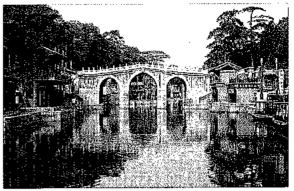


북경의 이화원 인수전 뒷평에 보이는 가 신불 0.용한 역성의 한 수법

고대 중국의 조원가들은 "먼저 살짝 감추고 나중에 갑자기 드러나게 하는 설계수법"을 채용하였다. 따 라서 먼저 원림의 경관을 은밀히 감춰 놓음으로서 유람객으 로 하여금 원림 전체의 경관을 한 눈에 다 볼 수 없게 만든 다음 구불구불한 길을 통하여 한쪽 부분을 살짝 열어 두어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마음이 한창 절정에 달하도록 움직인 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한 굽이를 돌면 눈 앞이 확트이며 모든 경관을 유람객 앞에 펼쳐 놓아 경탄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수법을 억경이라고 하는데 당지계(唐志契)는 〈회사미언(繪事微言)〉에서 "만약 드러내 되 감추지 않으면 천박한 것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원림 결관은 산과 물이 거듭되어 길이 없는 것 같은 의심이 들면 막다른 길에서 돌연 길이 열린다. 억경의 수법에는 여러 가 지가 있는데 예를들면 가산으로 처리한 산억(山抑), 구불구 불한 곡랑(曲廊)을 통해서 이루어진 곡억(曲抑), 식물을 이 용한 나무숲으로 조성된 수억(樹抑) 등과 같은 것이 대표적 인 방법이다.

(4)협경(狹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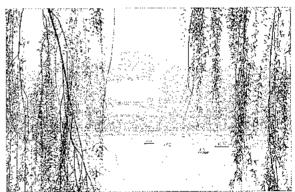
멀리 바라다 보이는 경관은 수평방향의 시 선이 아주 넓기 마련이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경색이 사람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경우 고대의 조원가들은 협경이라는 수법을 자주 이용하였다. 그것은 좌우의 단조로



불경의 여회원 안에 있는 소주하에 보이는 협경의 한 수법

운 <mark>풍격을 수목이나 흙산</mark>, 건축물들을 이용하여 병풍처럼 만들고 가운데를 남겨 그림같은 원경에 부합하도록 한다. 따라서 유람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좌우의 경관 사이에 끼 어 있는 통로를 거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실제로 북경 이화원의 뒤쪽에 있는 소주하(蘇州河)에서 배 를 타고 가다보면 멀리 소주교를 중심으로 주요 경관이 양 쪽 하안(河岸)의 기복을 이룬 흙산과 아름다운 나무숲 사이 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색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것이 바로 협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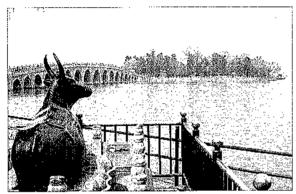
(5) 대경(對景)



북경의 이화원에 있는 동으로 만든 소와 남호도가 만들어내는 대경의 한 수법

대경은 간단히 말해서 경물이 서로 호용관 계를 갖는 것으로 관건은 "대(對: 즉 짝을 이름)"를 형성하 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원람에서는 주요 관상점과 유람노선 의 진행방향에 경물을 배치하여 각종의 대경을 만든다. 이 것은 장경과 상반된 일종의 연결요소로서 긴장의 정도와 관 련이 있는데 긴밀한 대응관계와 느슨한 대응관계로 구분된 다. 전자의 경우는 명확하고 집중된 호응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개는 축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정(辭)적인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예쁠들면 청당건물의 내부에서 연못의 수면을 사이에 두고 바라다 보는 건너편에 놓여진 산수의 자연공간과 같은 경관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청당 앞뒤에 조성된 정원 내부에 심어진 나무나 가산(假 山) 역시 이와 같은 유형의 대경에 속한다. 반면 후자의 경 우는 도로나 회랑의 진행방향 혹은 문의 입구, 전환점 등 변환의 공간에서 보이는 경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것 은 배치가 자유롭고 굴곡진 사가원림은 물론 거대한 규모 의 황가원림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대경은 발걸음 의 움직점에 따라 경물이 달라지므로 동태적이고 부단하 변화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며 광경과 더불어 사람들의 시선 을 집중시키고 더욱 돋보이게 한다.

(6)첨경(添景)



버트나무 가지를 통해 얼리 있는 불합각의 경판을 감삭하도록 한 청경의 완 수법

사람들이 북경 이화원의 곤명호 남쪽에 있 는 성안의 버드나무 아래에 서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만수 산을 감상할 때, 대개는 유람자의 시야 앞에 드리워진 버드 나무 가지를 장식으로 삼아 생동적으로 바라본다. 만일 이 러한 버드나무 가지가 없이 시원하게 탁트인 공간 사이로 산이 보인다면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단지 단조로운 곤명호 의 수면뿐이다. 더구나 산 뒤에도 배경의 받침이 제거되어 원경, 중경, 근경과 같은 공간의 심도를 구분할 수 없는 매 우 단조롭고 무의미한 경관이 되고 만다. 그러나 공간의 심 도가 주는 느낌은 원림의 경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단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느낌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원립에서는 필요에 따라 첨경이라는 수법을 이용한 다. 일반적으로 첨경에는 교목을 많이 이용하는데 꽃잎이 곱고 체형이 커야 한다.

(7)광경(框景)

광경은 그림을 거는 액자처럼 이름다운 형 상의 문틀과 창틀, 그리고 교목의 수관(樹冠)이 만들어낸 틈 속에 실제의 자연품경을 집어넣어 유람객으로 하여금 현



소추의 유원에 보이는

실풍경이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함으 로써 자연미를 예술미로 승화시키는 방법이다.

(8) 누경(漏景)



소주의 사자람이 보이는 누경의 한 수법

이것은 광경이 한걸음 더 발전한 수법이다. 중국 고전 원림에는 울타리 담과 회랑의 측면에 다양한 형 태의 창문이 있어 원림 밖의 경관을 투시할 수 있도록 처리 하고 있다. 이 경우 아무런 창살장식이 없이 빈공간의 창문 면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창문면에 다양한 도안을 취하여 투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창을 우리는 누창이라고 부른다. 누창에 사용되는 문양에는 기하학적인 도안은 물론 포도, 석류, 대나무 등의 식물, 사슴, 학 등의 동물까지도 소. 재로 삼는다. 옛날에는 생산활동과 가주환경의 미적인 측면 을 동시에 고려하여 아름다운 화목을 집앞에 심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나무 사이로, 또는 불 타는 듯한 석류꽃 사이로, 혹은 듬성듬성한 대나무 그림자 사이로 경관이 투과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독특 한 정경이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에서 깊은 인 상을 받았고 이것을 창문의 창살에 직접 응용하여 그 효과 를 보면서 누경은 시작되었다. 🖹

혐회소식 / 99

건축계소식 / 101

현상설계경기 / 104

해외잡지통향 / 110

회원현황 / 115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6

툇마루 / 118

협회소식 KIRA news

이시회

13회



우리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현 안을 협의하기 위한 2000년도 제13 회 이사회가 지난 12월 12일(화) 협 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 에 이은 부의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 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 제1호의안 : 2001년도 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2001년도 1, 2월분: 2000년도 기준으로)
- · 제2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일반회계: 1 천만원)
- ·제3호의안 :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의 건
- 위원장은 전직 회장중에서 선임하 고, 가급적 지방회원을 1~2인을 포 함하는 것으로 회장에게 위임키로)
- ·제4호의안: 비품 폐기처분 승인의
-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함.
- · 제5호의안: 직제및사무분장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3실8팀1소 →5팀1소)

(혐의안건)

- ·제1호: 폐업위로금 처리방안에 대
- 폐업위로금 문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받기로 하고, 필요하 면 12월중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논의키로 함.
- ·제2호: 설계도시신고제도 및 전국 공통운영회비 운영방안에 대한 협
- 설계도서신고제도 및 전국공통운영 회비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결정키 로 함.

(기타사항)

- 회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협회의 전화응답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함.

제주도건축사회, 회원작품 전시회 및 건축강연회 개최

지난 12월 18일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제주도건축사회(회장 김석윤)에서는 회원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 난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회원작품 전시 회를 가졌으며, 또한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도시건축의 조성룡소장을 초청건축사로, 기용건 축의 정기용소장을 패널리스트로 초 청하여 건축강연회를 갖기도 했다.

건축사, 『자격의괸리및운영등에괸한법률(안)』적용 제외키로

건축사의 전문성과 특수성 감안, 변호사 등과 같이 개별법적용

노동부와 교육부는 '직업능력표준화' 를 촉진하고 나아가 자격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건 출사를 부동산주개사, 주택관리사 등과 같이 하나의 법 테두리안에서 관리토록 하는 "자격의관리및운영등에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관련기사 본지 11월호 76쪽) 우리 협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현행대로 건축 시는 건축시법의 적용을 받도록 당초의 입법예고안이 수정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따르면 종전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을 폐지하고 모든 국가자격을 이 법에 따라 관리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호사나 의사, 법무사 등 60여개 국가자격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인 정된다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관부처가 현행대로 개별법에 의거 관장토록 하면서, 건축사를 비롯한 117 개 국가자격은 이 법에 통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리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다.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정부가 예고안대로 건축사를 학력제한이 없는 기술계 및 가능계와 통합관리할 경우, 국 제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건축사에 대한 신입도 하락은 물론 다자간 또는 쌍무협상시 우리 건축설계분야가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를 이법에 적용서키는 것은 정부가 건축 문화의 주체인 건축사와 그 업무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이 법률(안)에서 건축사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우리의 요구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E-Mail계정 서비스 신청접수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협회에 등록한 정회 원에 한하여 협회 인터넷을 통한 회원의 무 료 E-Mail계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은 대략 1,500명정도 이며, 사용가능공간은 각 계정당 잠정적으로 5MB입니다.

일정기간까지 접수완료 후 서버의 저장공간 을 환산하여 각 계정에 맞는 용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Mail활용 방법 및 범위는 점차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며 많은 회원님들의 가입을 바랍

현재 접수가능하며, 기입신청후 3일이내에 처리완료하여 신청회원에게 Mail로 가입완 료 및 사용가능 사실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KIRA OR KR로 접속하신후 첫 번째 접속화 면상의 "E-Mail 계정신청" 란을 Click 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정 보전산팀(02-581-5711)에 문의비랍니다.

신청방법

- ▷ 먼저 HTTP://WWW.KIRA.OR.KR 로 접속합니다.
- ▷ 첫번째 화면에서 "E-Mail" 계정신청" 란 을 선택합니다.
- ▷ 회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 고난 후 검색버튼을 선택합니다
- ▷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귀하의

기본사항이 나타납니다.

- ▷ E-Mail ID 난에 원하시는 ID를 입력하시 고 "E-Mail 신청" 버튼을 선택하시면 바 로 접수 완료가 됩니다. 만약 지정하신 ID 가 이미 사용중일 경우엔 다른 이름으로 다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인적사항 등 기타 위에 나열된 사항들이 실제의 사실과 다를 경우 중시 각 시도건 축사회에 연락하여 수정토록 협조바랍니 C}
- ▷ 신청을 완료하신후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 능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정보전 산팀(02-581-5711~4)으로 문의 바랍니

건축계소식 archi-net

서울건축학교 2001 겨울 워크숍

2001년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서울건축학교에서는 국내와 대학 건축 학과 및 관련학과 재학생 그리고 졸업 생(스튜디오별 6명 내외)을 대상으로 2001 Winter Workshop을 개최한 다. 장소는 서울건축학교이며, 2001 년 1월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스튜디오

- ▷ 김영준스튜디오: 도시의 밀도와 복 합기능 / 동대문지역의 도시현상에 대한 리서치
- ▷ 김인철스튜디오: 만들지 않고 만들 기 / 미니멀리즘의 이해를 위한 스 터디
- ▷ 승효상스튜디오: urban void/도시 의 불확정적 공간에 대한 리서치
- ▷ 정기용스튜디오: 반복과 차이-건 축, 문학, 철학, 음악...
- ▷ 조성룡+김헌스튜디오: 도시의 벤 더스/로드무비를 통한 시선
- ▷ 황두진 + 이영범스튜디오: action proposal-청계천변 알파 스페이스
- ▷ 문의: 서울건축학교 학무국 (02-763-0471. www.saschool.or.kr)

제1회 부산광역시 건축상

부산다운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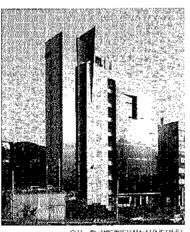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환경의 질적 측 면보다 경제성과 기능성이 강조된 도 시화 진행으로 부산고유의 도시경관 창출의 어려움이 있으나 도서환경과 문화에 대한 시민욕구확대 및 국제화 ·개방화로 부산 고유의 지역성을 살 린 부산따운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지 역성과 역사성 확보를 통해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제1. 회 부산광역시 건축상을 개최하고, 지

난 12월 11일 총 30작품을 대상으로 패널과 현장심사를 한 결과 금상에 부 산시립미술관(이용홈/일신설계)을 선 정했다. 은상에는 한국센터빌딩(장상 식/시티건축)이, 동상에는 새광안교회 (강대화/토탈건축)와 파라다이스비치 호텔신관(김종성/서울건축)이 차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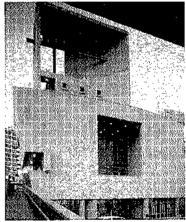
지난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시청 2층 역사관에서 이번 수상작을 포함해 출품작 30작품과 부산소재 대 학 우수졸업작품 33점이 함께 전시됐 다. 이번 행사의 심사는 조성기 부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의 15명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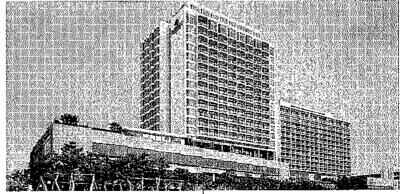


크선 / 브샤샤티이소과(이용용*(*일신설계)



유셨고한국센터ভ빙(상상식/AiE)건축)





동창 / 파리디아(스티치호텔신관(김종성/서울건축)

서울건축학교, 2001년 1학 기 신입생 모집

2001년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

서울건축학교(sa)는 4년제 대학을 이 수한 국내외 학생들과 건축 설계사무 소에서 일하는 젊은 건축가에게 열려 있으며, 다음과 같이 2001년 1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 2001 01 05 금 02 19 월원 서교 부 및 접수
- 2001 02 21 수 1차 심사 : 서류심사
- 2001 02 22 목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2001 02 23 금 2차 심사 : 면접 (1차심사 합격자에 한함)
- 2001 02 26 월 최종합격자 발표
- 2001 02 28 수 03 09 금 등록 기간
- 2001 03 09 금 신입생 오리엔테 이션 / 스튜디오 설명회
- ▶ 학기: 2000년 3월 6월 (12주)
- ▷ 제출서류 : 포트폴라오, 자기소개 서, 졸업(예정)증명서, 지원서(소정 양식)
- ▷ 문의 및 신청 : 서울건축학교 학무 국 (02-763-0471)

e-mail: saschool@saschool.or.kr 홈페이지: www.saschool.or.kr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2001년 4월 30일까지 신청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이 한국의 젊고 유능한 건축가에게 교육과 해외 건축기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미 화 1만달러를 제공한다. 이 장학금은 40세 미만으로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 은 건축전공자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심사물 한 후 2001년 5월초에 3~5 명의 예선자를 선정하고 예선자들이 제출한 여행목적 및 계획서를 토대로 한 인터뷰를 거쳐 최종 1명에게 주어 진다.

문의: 02-3476-0940

부산장전동 원룸설계아이 디어 공모전

건축웹진 이키블루(www.archiblue.com) 오픈 이벤트로 진행

건축웹진 아키블루(www.archiblue. com)오픈 이벤트로 진행한 장전동원 름(가칭 코쿤하우스 Cocoon) 설계아 이디어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번 공모전은 건축웹진 아키블루와 소 호갤러리에서 공동 주최한 행사로 실 사용자(대학생, 젊은층)층에서 아이다 어를 얻는 건물이며, 아이디어제공자 에게 저작권이 주어진다. 대상에 「어깨 에 기대어(손성훈/동명정보대)」가 차 지했으며, 지난 12월 5일부터 14일까 지 소호갤러리에서 전시됐다. 이번 행 사의 심사는 김기수(동서대 건축설계 학 교수), 김명건(d AUM 건축), 최호 철(소호 원름-갤러리)씨가 맡았다.

• 대상

어깨에 기대어 / 손성훈 / 동명정보대

•우수

Next334 / 김승태, 김하늘, 황영호 / 동서대

가작

Another space / 윤창기 / 동의대 Heidegger House / 김봉석 / 동명정 보대

• 입선

B&W(blue and white house) / 한 지원 / 영남대

open & close space / 지철근 / 성 립거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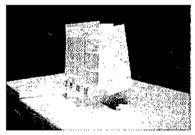
Contact-able / 이시재 외 2명 / 동의대 소정 / 주익동 외1명 / 동명정보대 cocoon house / 정규섭 외 2명 / 경 성대

SANTAFE / 최선미 / 동서대

• 아이디어상 :

꽃들에게 희망을 / 이범식 외 1명 / 동 명정보대

cocoon house / 최송이 외 1명 / 동 서대





대상 / 어깨어, 기대어 / 손성훈 / 동영정보대

직원무전 -

예일C&C종합건축사사무소

▷ 자격: 대졸 7년이상 아파트설계 유경험자

▷ 직급: 차장

▷ 제출서류: 이력서(상단 연락처 명기), 자기소개서

▷ 제출처: 팩스)02-439-5556

▷ 문의: 02-439-7779 인사담당자 서울시 중랑구 면목5동

172-92 은주빌딩 3층

신간안내

일본의 현대건축

▷일본의 현대건축



이 책은 간향미디어의 새이름, 도서출 판 (주)이석미디어가 펴낸 건축역사비 평서(Histo-Tech)시리즈 중 한 권으

로 발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학자에 의해 씌어진 최초의 일본 현대건축 비 평서로 소장 건축학자의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일본의 현대건축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은 100여년간 발행된 학술서적 과 저널 속에서 발굴한 일본 현대건축 의 흐름을 우리 시각으로 재편해 놓았 으며 170컷에 달하는 참고도판만을 보고도 일본 건축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편집돼 있다. 필자는 이 책은 본 격적인 역사서는 아니며, "나는 일본건 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에서 시작된 작은 서도이며, 필자 스스로 던 진 물음에 대한 개인적 작업에 대한 조 그만 결과일 뿐이라고 말하고, 이 책에 담긴 내용이 일본건축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작 은 소망을 갖는다.

김기수 지음/신국판/198쪽/8천원/도서출판 (주)이석미디어발행(02-519-6520)

《신제품》/ CARBONET-SYSTEM (첨단보안체계)

이 시스템은 현재 국내 보안체계의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하고, 유해전자 파 대처 시스템인 EMV-SYSTEM 과 아울러 국내 최초의 첨단 보안 시 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창문 및 문 등의 취양구위에만 집중되어 있고 외부 노 출형이며, 하드웨어적 재산 손실에만 대응하는 일반 보안시스템들과 달리 모든 방향의 어느쪽에서의 침투에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며 보안성이 탁 월하여 시스템의 존재인식이 힘들다. 특히 컴퓨터 자료 등 소프트웨어적 지적자산 손실에도 완벽 대용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시스템으로서 이주

독특한 첨단시스템이다.

기능면에서는 2종류의 선택적인 기 등이 있고, 그 하나는 150~300mm 정도의 침입구가 만들어졌을 시에만 경보를 울려주는 타입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단 0.1㎜의 침입체에 대해서 도 완벽히 대응하는 타입이 있다. 주 제품은 특수지류와 인조점유질로 합 성된 재질로 벽, 비닥,천장에 부착,시 공하며 반영구적이다.

문의: (주)창-CCPC 02-3151-0395

www.koreamarburg.co.kr

현회 Archi DR 회원가인 안내

목적

기존 CATALOG정보 중심의 자재정보 를 탈피하여 건축사, 시공자 등 기술자가.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CATALOG정보 뿐만 아니라 시방서.상 세도, 물성 등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데 이터화하여 INTERNET를 통하여 SERVICE 함으로 건축분야의 경쟁력을 항상시키고자 함.

DB의 특징

- -기술정보 즉 제품의 시방서, 상세도,물성 등을 데이터화하여 건축관련관계자들이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재업체, 설계자, 시공자간에 개별적 인 정보교류에 의존함으로서 경제적, 시간적 낙후성을 탈피함으로서 경쟁력 윤 제고함.
- 사업적 소득보다는 정례화를 통한 정 보의 집대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 서 참여 업체관리차원의 유지관리비만 부담토록 할 계획임으로 업계의 부담 을 최소화함.

비용(자재회사 부담)

- DB구축 : 협회가 전액 부담함으로 가 입비용은 무료임.
- 유지보수비용 : 평균 월 1만원 정도(게 재된 정보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 올 수 있음)

제출용 자료(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됨)

- 회사정보
- 자재일람표
- CATALOG, 시방서, 상세도 등 현재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우선
- * 자료를 검토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혐의.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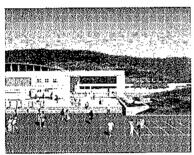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통 1603~ 55 대한건축사협회 (담당 / 허훈)

- 전화: 02) 581-5711~4

기평실내체육판

Gapyeong Gyimnagium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군민의 체육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내 우수업체의 창의 력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여 기평의 얼굴로 손색없는 건축기법을 도입, 문 화<u>관광상품으로</u>서의 역<u>할을 수행할</u> 수 있는 생명력있는 체육관을 건립코자 지난 9월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했다.



지난 11월 10일 총 5개 작품을 접수 하고, 11월 21일 심사한 이번 설계경 기에서 (주)형제 · K종합건축시사무소 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하고, 우수작 으로는 (주)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 사시무소 안과 (주)건정종합건축사사 무소 안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설 계경기의 심사는 이현직(가평군수, 위 원장), 최송웅(기평군 부군수), 박동양 (기평군 문화관광과장), 최해용(가평 군의회), 송성진(연세대), 홍갑표(연세 대), 이정형(중앙대), 김선국(경희대), 김정태(경희대), 황희준(한양대), 노승 범(한양대), 김용만(경기도 건축사회) 씨가 맡았다.



▶ 최우수작 / (주)형제 · K종합건 축사사무소(김삼수)

대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43번지 일원

계획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9,575.00㎡

건축면적 1,832 .00㎡

연면적 3.045.87m건폐율 19.13%

용적률 29.18%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구조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외장재료 외단열재 + 24㎜ 열선반사유리

외부공간 테마 놀이시설, 휴게공간, 잔디

광장(이벤트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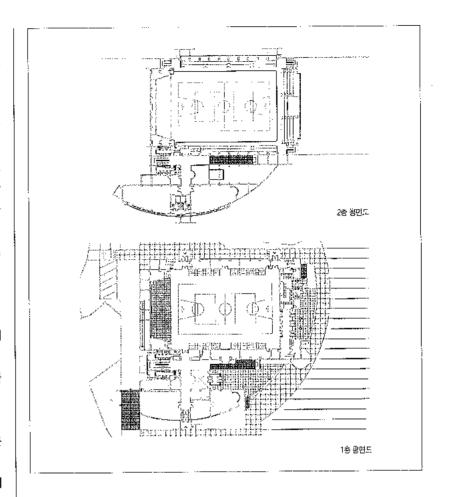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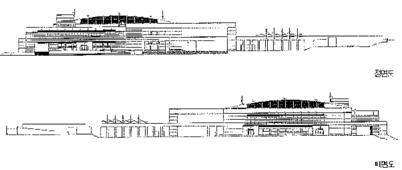
기본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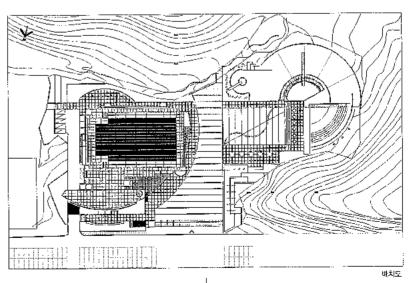
경기도의 관광문화 중심지로서의 향토 성 표방과 지역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 할 수행을 위한 기상을 표현하였고, 북 한강의 청정한 물줄기와 굽이치는 강 변의 이미지를 물결의 파동과 접목시 킨 이미지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활동의 장으로서 진취적표상 및 21세기를 선도하는 통합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으며, 시민화합의 장으로서 지역적 특성에 부합된 상징적인 이미 지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계획의 주인점

- 친화적 계획/공공 체육문화공간 제
- 기평군이 지난 문화적, 지역적 공간 및 장소성에 순용
- 공간적 개념
- 시민의 복지공간, 체육활동공간, 문 화 공간으로 구성
- 각각의 공간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를 가지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
- 공간이용의 극대화
- 요구기능 및 행위의 유사성을 파악, 적용하여 공간이용율의 극대화 추구
- 통합 및 분절의 이중코드화를 통해 관련기능에 따른 시설의 복합화 추 구(내외공간 활용의 극대화)
- -기능의 프라이버시에 따라 위계적 분리 각 기능은 프라이버시를 가지 면서 자연스러운 위계 및 연계성확 보 (지형지세에 순응)
- 옥외공간의 개방 :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 및 휴식공간의 확보와 개방, 친 근감 있는 장소로 개발
- 외장재료 : 따스한 질감의 외단열재 와 High-Tech한 유리의 조화를 통 해 문화체육센터의 활동성과 진취성 추구







▶ 우수작 / (주)정일엔지니어링종 합건축사사무소 (송기덕)

대지면적 9,575,00m² 건축면적 1,883.23m²

 $3.201.15m^2$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철근콘크리트, 트러스+현수 구조

ARCH

고정석 198석 + 이동석 528석 관람석

주차대수 22CH

벽 - 앞미늄 복합패널, 뿡칠형 외부마감

페이트

유리 - 컬러 복충 유리

지붕 - 오메가 루프 패널, 컬러

강판

설계팀 송주훈, 한해수, 박수환,

이석훈, 손영복, 김경남,

김영산, 강용구, 이주훈

CG팀 송숙회, 유재환, 최유선,

강경덕

이 계획은 가평군만의 생활체육활동 및 지역 운동경기에 활용될 수 있는 다 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외부영역에는 기존의 자연녹지를 최대 한으로 이용하고 청소년수련장, 생태 학습장, 야외공연장을 계획하여 대지 와 자연과의 연속성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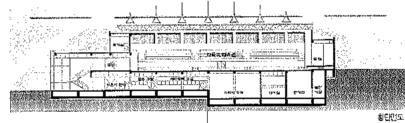
각각의 외부영역과 체육관과의 연계성 을 고려한 배치계획과 시설의 기능에 따른 충별 구성으로 공간의 효율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기능 별 Zoning으로 동선을 분리하고 부속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를 도 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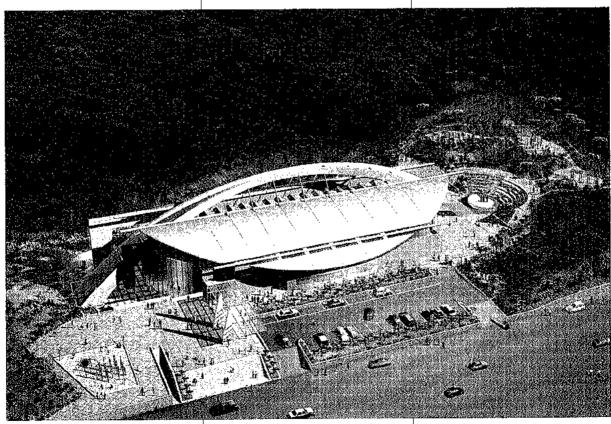
체육시설과 주민 교류의 장인 복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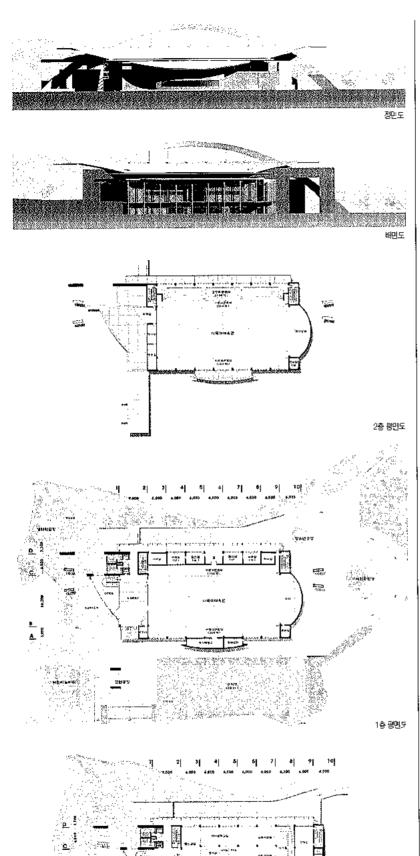
설로 양분된 계획은 넓은 로비와 아트 리움을 이용.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용자의 쾌적함을 고려하였 고 옥외공간과 내부공간의 연계를 위 해 시각적, 기능적 조화를 살렸다.

또한, 기존의 경직된 체육관 이미지에 서 벗어나 자연에 순융하는 형태적 이 미지 구현과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욕 구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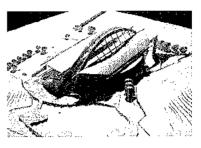
상징적인 지붕과 Arch, 도로면과 부지 의 고저차를 이용한 접근 Sequence, 전면 Facade의 형태 및 재료의 변화 로 현대적 감각과 진입의 상승감, 위계 감. 방향성을 고려하고 인지도와 상징 성을 높을 수 있는 계획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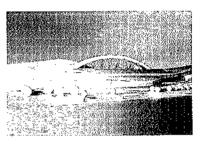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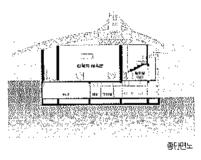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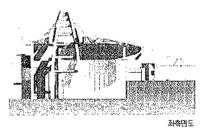


<u>B</u> 2











지하1층 평면도

고양시립 백석도서관

Baeseok Library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일산신도시 동쪽 에 위치한 백석근린공원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 여 지난 8월 31일 작품을 접수받아 10월 31일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총 5개작품이 응모한 이번 설계경기에서 는 환경천화적인 초현대식 건축물의 독서문화공간 창출에 역점을 둔 (주)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김봉회, 유윤 옥, 왕한성) +전태진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운 동, 숲속의 휴식에서 독서와 학습, 문 화를 제공하고 공원과 어우러져 지역 주민의 복지에 이바지할 공간으로 기 대된다.

▶당선작/(주)건정종합건축(김봉 회, 유윤옥, 왕한성)+전 태진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1 백석공원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4,347.00㎡

연면적 3,812,34n²

건축면적 865.41㎡

건폐율 19.91%

용적률 58.27%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16㎜컬러복충유리

설계참여 조용호, 최세호, 함현, 이진훈,

허강훈, 권혁규

배치개념

건축물의 축을 도로와 병렬배치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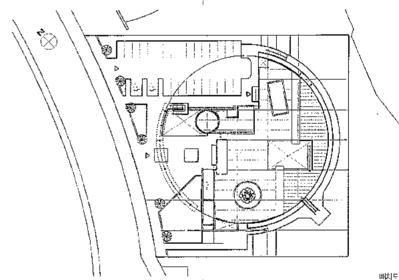
도로압구에서 인지성과 정면성을 확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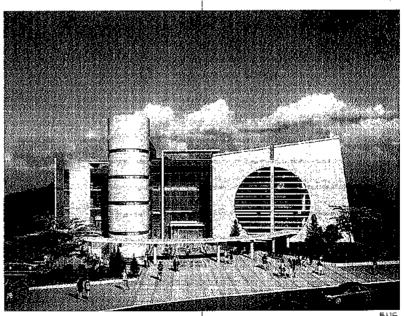
근린 소규모 도서관에 적합하게 주출 입구를 어귀마당 공간으로 확보하여 보행자 출입 동선을 극대화하여 보행 지를 우선하였다. 자연의 향과 지형을 활용하여 후면 열린공간을 적극 활용 하여 모임마당, 야외독서마땅 등을 설. 치하였다. 배면 독서마당을 통해 주변 공원과 연계, 자연과 항상 접한 환경친 화적 건축물을 배치하였다.

평면개념

1층 모자 · 노유자독서공간은 주요 기 능별 공간을 크러스터 형태로 동선기

능을 배분하였고, 아동/주부열람실, 노인/장애인열람실을 외부와 출입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였다. 또한 2층 일 반독서공간은 일반시민의 지적 향상 및 창의성개발 공간으로 일반종합열람 실과 향토 행정 전산화자료실을 배치 하였고, 지역특성과 지역사학자료를 연구보관하는 향토자료실을 관리공간 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다. 3층 학생사 이버 독서공간은 학생들의 독서 및 학 습영역으로 최상층에 정숙한 위치에 배치하였고, 사이버도서관 기능을 부 여 전산관련 소규모 세미나 및 컴퓨터 교육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강좌기능이 통합된 교육실 등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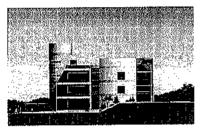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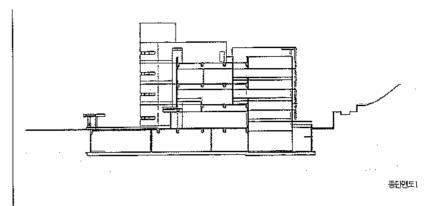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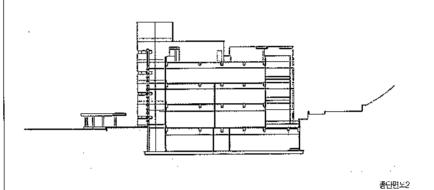
또 지하층에 문화공간을 두어 통합문 화영역으로 집회와 강연, 공연 등 소규 모 지역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유도 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실이 외부공간 과 연계하며 자연채광과 친교할 수 있 는 공간구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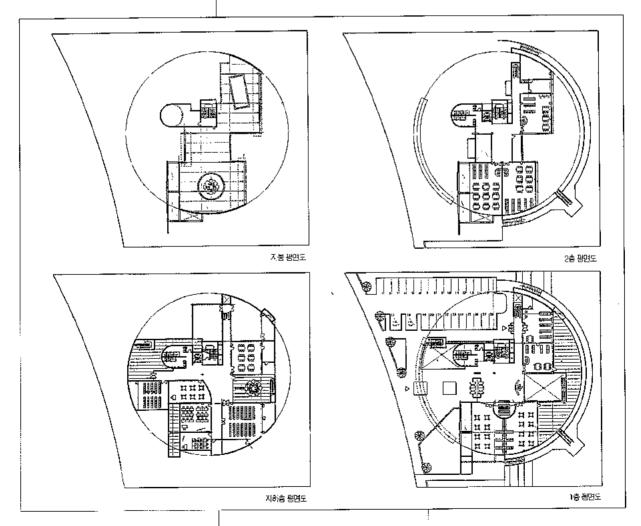
입면개념

도서관 기능에 부합하고 신도시 지역 주민의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패턴언 어로 문화시설로의 상징적 입면을 계 획하였다.









해외잡지통향 overseas journal

Domus Architecture a+u 건축문화 신건축

Domus

2000년 11월

본 호에서는 David Chipperfield의 마스터플랜에 의해 진행되 는 베를린의 대대적인 박



물관 섬 재계획 프로젝트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으며, Jean Nouvel, Morphosis의 최근작을 소개하고 있다. 과 거 건축기의 작품들을 재평가하는 코 너에서는 이탈리아의 근대 건축가 Giuseppe Vaccaro를 다루었다.

■ 특집 - 베를린의 박물관 섬 재계획



Friedrich Schinkel의 Altes Museum, Friedrich August Stüler의 Neues Museum 등 5개 박물 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베를린의 박물 관 점은 2차 대전을 통해 작품들이 반 출되고 많은 부분이 훼손된 후 19세기 설립 당시의 "예술과 과학의 피난처" 라는 목적에서 멀어진 채 존재해왔다. 1990년대 들어 국토가 통일되고 역사 적 자료들이 모아지면서, 독일은 프랑 스 미테랑 대통령의 루브르 박물관 리 노베이션 계획이 문화적으로 성공한데 고무되어 다시 거대한 박물관 콤플렉 스로서 이 지역이 갖는 기능성을 고려 하기 시작했다. 1993년 이곳의 재개 발에 대한 국제 설계 경기를 실시하여 Giorgio Grassi의 당선안과 Frank O. Gehry의 안이 검토되었지만, 결국 2차 한정 설계 경기를 통해 David Chipperfield의 계획인이 채택되었 다. 이 마스터플랜의 주된 요소는 새로 운 입구 건물과 "고고학적 산책"으로. Nationalgalerie를 제외한 각 박물관 들을 새 입구 건물로부터 "고고학적 산책"이라 불리는 지하 통로로서 연결 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설계 사무소 및 건축가로는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Hilmer & Sattler & Albrecht, Heinz Tesar, Oswald Mathias Ungers가 있다. 이 건물군이 완성되면 영국, 프랑스와 더불어 박물관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이다.

■ 작품

▶Morphosis의 Hypo Alpe Adria 은행 본사



도시와 근교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외곽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도시 적 스퀘일에서 계획된 이 작품은, 대지 남측의 고밀도 오피스 부분에서는 도 시적 컨텍스트를 따르고 있고 북쪽에 넓게 펼쳐진 저층부의 구성은 저밀도 의 근교 조직 연장선상에서 구성되었 다. 이 프로젝트에 내재된 대전제는 도 시와 근교라는 두 고유한 성질의 통합 이다. 넓은 건물의 지붕은 주변에 펼쳐 진 평야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과 그 밖의 프로그램을 수 용하는 넓은 인공 대지도 또한 평아라 는 콘텍스트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Jean Nouvel의 스위스 Lucerne Paradise 호텔

어둡고 차가운 현대적 느낌이 강조되 고 있는 Nouvel의 이 호텔은 각 방물



을 영화 이미지로 구분하고 있다. 호텔 **앞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영화의 장** 면이 그려진 각 방의 천장을 보게되고. 그 이미지들은 건물의 새로운 파사드 를 만들어낸다. 아울러 지하 레스토랑 에서는 거울을 이용하여 거리의 풍경 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백면 을 동적인 프레스코로 장식하고 있다. 아울러 ▶Michael Wilford의 대규모 공연장 및 전시관 건물인 Salford Lowry Center. ▶군건물을 개조하여 대학으로 만든 Studio 5+1. Chaix Morel의 Savona 대학 등 최근 작품 을 소개하고 있고. ▶나폴리 우체국 본 사 건물, Piacenza Unitá Galleana 유치원 등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근대 건축가 Giuseppe Vaccaro(1896-1970)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대별 정 리와 재평가도 실려있다.

■ 오브젝

디자인 분야에서는 근대 디자인적 성 향으로 돌아간 간결한 제품을 선보이 고 있는 Hackman과 Trabo 사 제품 들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건축계 소식으로 ▶Tadao Ando의 Treviso Fabrica 대학 완공, ▶ Richard Meier를 설계자로 지명한 미국 I A의 UCLA 캠퍼스 내부의 예 술 복합관 계획, ▶Frank O. Gehry 의 탈퇴로 Renzo Piano가 최종 당선 자가 된 뉴욕타임즈 본사 설계 경기 등 을 다루고 있으며, ▶저서 리뷰에서는 유명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 해석, 도시 와 영화, Rafael Moneo의 저서 등 최근 발간된 서적들을 평가하였다.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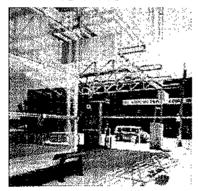
2000년 10월

최근 작품으 로 쇼페인 Toledo에 지 어진 옥외 애 스컬레이터. 미국 캔서스 시티 함동역



의 Science City, 가벽을 이용한 미국 뉴욕 세차장 등을 소개하고 있는 본 호 는 이율러 미국 건축업계의 호황과 기 회, 그리스 아테네 지하철 증축 공사 현장 소식 등을 다루었다.

- 근작 소개
- ▶Cybul & Cybul Architects와 Christopher K. Grabé의 미국 뉴욕 Chelsea 자동차 세차장



운행이 중지된 고가 화물 철도선 구조 물에 덧붙여 만들어진 이 주유소 겸 세 차장은 유리와 철재로 된 가벽을 전면 으로 내세워 홍보판으로 활용하는 동 시에 오후 시간대에는 허트슨 강의 풍 경을 담아낸다.

▶Ehrenkrantz Eckstut & Kuhn Architects/SmithGroup의 미국 캔 서스 시티 합동역 Science City



1914년 보자르풍으로 지어진 합동역

후면에 부가되어 지어진 Science City는 식물관, 극장 등을 포함한 거대 한 과학관으로, 징크 패널, 유리 등을 사용한 기계적인 이미지를 통해 옛 건. 물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José Antonio Mart nez Lapeña & Elías Torres Tur, Architects의 스페인 Toledo 에스컬레이터



중세 시대의 정벽에서부터 도시 중심 부로 향하는 언덕에 설치된 이 옥외 에 스컬레이터는 지형에 맞추어 전체가 6 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그 외에 ▶Tod Williams Billie Tsien and Associates의 미국 미시건 주 Bloomfield Hills Williams 수영장. ▶동양적 분위기로 만들어진 Shim-Sutcliffe Architects의 캐나다 Ontario Muskoka 목욕탕, ▶매우 간 소한 형태로 만들어진 Conzett. Bronzini, Gartmann의 스위스 Viamala Suransuns 교량 등이 소개 되어 있다.

■ 실무계 소식

▶미국 설계사무소들의 복지 정책 전례 없는 건축업의 호황 속에서 미국 설계사무소들은 유능한 건축가들을 끌 어모으기 위해 많은 복지 정책을 제공 하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전반적으로 임금을 10% 인상한 것과 별도로 휴가 프로그램 제공, 근무 시간 조정, 의복 간소화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 는 것이다. 향후 8년간 건축 관련 일자 리의 규모가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업계의 인력 부족 현상 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북아일랜드에서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서 철거될 예정인 영국군 감 시 초소의 역사성에 대한 논의. ▶1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질 Extranet(사설 컴퓨터 네트워크)이 건 설 감리에 미칠 영향이 소개되어 있다.

■ 문화

▶2004년 올림픽을 대비해 대규모 지 하철 확장 공사에 착수한 후 거대한 고 고 자료 발굴장이 된 그리스 아테네. ▶유럽과는 달리 카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미국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이는 우 주 정거장 계획에 대한 건축적 입장 등 을 다루고 있다.

■ 기타

▶거대 트레일러을 소재로 한 Victoria Sambunaris의 사진 작품, ▶ Richard Rogers와의 인터뷰, ▶ Mies van der Rohe의 대표작 중 하 나인 뉴욕 Seagram 빌딩의 매매 소 식. ▶Frank O. Gehry의 근작 스페 인 Bilbao 구겐하임 미술관 표면의 부 식 현상. ▶Cesar Pelli, Gehrv /SOM. Renzo Piano, Norman Foster의 작품으로 범위가 좁혀진 뉴 욕 타임즈 본사 빌딩 현상설계 경기 소 식,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릴 Santiago Calatrava 작품전. ▶ Patkau Architects의 캐나다 몬트리 올 중앙 도서관 당선안에 관한 기사들 이 다뤄져 있다.

a+u

2000년 10월호

이번 호의 특집 은 '주택'으로 알베르토 캄포 비에자(Alberto Campo Baeza), 스티븐 홀 (Steven Holl).



풀(Pool)등 13명의 작가/그룹의 주택 작품들이 되고 있다. 또한 마츠쿠마 히 로시(松隈洋)와 켄트 라슨(Kent Larson)의 에세이를 비롯하여 스밀쟌 라딕(Smilian Radic)의 숯을 굽는 오 두막, 게이리 슈메이커(Gary Shoemaker)의 루프 테라스의 증축 등 이 색적인 작품도 실려있다.

■ 특집: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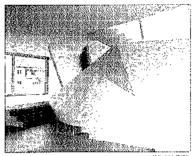
▶ 이번 호의 특집인 주택(House/ Casa/住宅)에서 전면에 내세운 테마 는 없다. 여러 작가들의 개성 있는 주 택작품들을 서로간의 공통점의 지적 없이 나열하고 있지만 모두다 비범한 형태 속에서 삶의 일상성을 담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데 끝라스 저택

▶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의 데 불라스 저택(De Blas House)는 마드리드 교 외의 산들을 조망하는 북사면의 언덕 위에 세워졌다. 주택의 구성은 땅위에 동굴과 같은 공간을 갖는 상자가 전통 적인 주택의 프로그램을 갖고 뿌리박 고 있으며, 이 콘크리트상자를 기단으 로 삼아 전망실의 역할을 하는 오두막 과 같은 유리상자가 그 위에 올라선다.

이를 통해 스테레오토믹(콘크리트상 자부분)와 텍토닉(유리상자부분)의 문 제를 직접적으로 건축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more with less'라 는 그의 말을 보여주고 있다.



Bi엔나의 저택

▶ 풀의 '비엔나의 저택' 은 독특한 외 관과 공간구성이 눈길을 끈다.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한 이 주택은 겹쳐진 바 닥판들이 계단의 경사면들에 의해 연 속되어 있는 듯이 보이며, 마치 콘크리 트로 새로운 랜드스케이프를 창조해내 고 이것이 외부의 형태로서 그대로 나 타난 듯이 보여진다. 경사진 벽과 기둥 들은 중력의 영향을 시각적으로 벗어 던지려는 시도로 보이며, 주택에서 느 까기 힘든 공간감을 소규모의 주택에 서 잘 표현해 내고 있다.



바톨렛 태닝론

▶ 벌리 케이톤 할러데이(Burley Katon Halliday)의 바틀렛-페닝튼 (Bartlett-Pennington)저택은 네오 조지안 양식과 현대 미니멀리스트의 양식이 전체 건물들을 관통하는 하나 의 축으로 인해 통합되고 있다. 건축주 가 매입한 콜로니얼풍의 석조주택을 전면으로 하여 그 뒤에 마련되었던 부 수동들을 허물고 두 개의 박스형내의 건물을 새로 계획하였다. 이 세 개 동 을 하나로 연결하는 복도를 기존 건물 이 갖고있던 축선에서 계승하여 팔라 디안식의 축선에 의한 배치와 미스적 인 공간이 혼합하게 되었으며, 석조의 벽면과 베니어 합판과 유리가 지나는 상반된 물질성들 또한 혼합되고 있다. ▶ 이 외에도 쟝 뿔 봉메종(Jean-Paul Bonnemaison)의 매종 드 빌라쥬 (Maison de Village)는 프랑스 오뜨 프로방스 지방의 교회 유적의 부분들을 복원하여 만든 것으로 남아있는 벽돌과 아치 등이 이용되어 새로운 주택으로 태어났다. 기존의 벽과 새로이 중축된 벽을 동일한 외관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조되는 유리와 철골부재들이 어우러 저 마을의 풍경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지방의 유산을 주택내부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 한 콘 반 벨슨(Koen van Velsen)의 보스(Vos)저택은 상자모양 주택의 양 옆면은 이웃집과 합벽된 기운데, 전면 과 천장, 후면에 이르는 3개면을 동일 한 모양으로 처리하고, 이 3면으로 감 싸여진 공간안에 또다른 공간을 삽입. 좁고 긴 대지에 수직으로 4, 5개층이 쌓이는 도심주거의 성격을 흥미로운 공 간구성으로 담아내고 있다.

▶ 에세이로는 마츠쿠마 히로시의 '백 색 추상이 목표했던 것 이라는 제목으 로 2차대전 후 50년간 일본 모더니즘 건축에서 백색 추상이 추구했던 가치 돌과 그들어 지니는 의의를 3개의 주 텍작품들을 통해 읽어내고 있으며, 켄 트 라슨의 에세이 '미래의 주택(The Home of the Future' 에서는 변화하 는 시대상황에 따른 미래주택 계획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건축문화

10월호

으로 '건축과 미 술 이라는 주제 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 에 관한 좌담회

와 에세이 4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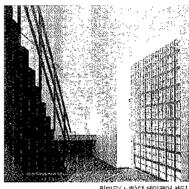


그리고 인터뷰 1편만이 실리는데 그쳐 그간 건축문화에서 기획해온 특집에 비하면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특집 외에도 人·空 間研究所의 '죠엔지(浮團寺) 伝道회관 커먼홀(common hall) 과 카와이 토 人(0)戸(河井飯明) プロロ(上京)의 테 이케어 센터'등 최신작 5작품이 소개 되었다.

■작품



▶ 人·空間研究所의 '죠엔지 전도회 관 커먼홀 은 전통양식으로 된 본당의 목조건물에 연결하여 만든 철골조의 부속건물들이다. 골조는 철골이지만 내장재에는 목재를 섞었고, 지붕도 철 판을 얹었지만 본당의 기와와 동일한 색체를 사용하는 등 전통양식의 본당 건물과 대조와 조화를 함께 이루려는 노력들이 곳곳에 엿보인다. 특히 홀 부 분의 V자형 단면의 지붕은 본당의 지 봉 단면을 역전시킨 모양으로서 지붕 들의 사선이 이루어내는 외관과 처마 의 모습 등이 신 · 구간에 대조를 이루 면서도 좋은 화합을 만들어내고 있다. 방문자들의 숙소 부분에는 변형된 팔 각지붕이 쓰여졌다. 내부공간에도 목 재로 마감된 천장면이나 변형된 마루 등에서 전통적 양식의 공간분위기를 연상시키면서도 원전과는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들이 발견되고, 흑 색으로 단장된 철골구조들의 노출은 기볍고 경쾌한 일본의 목조구조와 마 찬가지로 좋은 대비와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카미교(上京)의 데이케어 센터

- ▶ 키와이 토시아키(河井敏明) '카미 교(上京)의 데이케어 센터 는 평범한 일본의 주택가에 새로이 중축된 부분 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 나 멕시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의 주 택물을 연상시키는 입구부분의 두터운 흰 벽면은 주택지에 자리잡은 데이케 어센터로서의 아이덴터티를 드러내는 데에는 충분할 만큼 주변과 대조적이 다. 입구를 들어서면 중축된 부분은 기 존 건물들로 둘러싸인 중정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축부분의 유리와 철제 프레임들이 갖는 차가움과 정제 됨은 기존건물들이 갖는 복합성에대하 여 신선한 부딪힘을 제공하고 있다.
- ▶ 사토 토시히코(佐藤敏宏)의 '千万 家 는 직사각형 모양의 매스에 원통형 매스 3개가 줄지어 있는 모습의 전원 주택이다. 외관도 다소 볼품없는 집이 지만 이 집이 예산 1000만엔이라는 극히 적은 예산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면 이 집의 값쌴 재료들이 갖는 미덕 과 평면형태에 숨겨진 유머를 읽어낼 수 있다(평면은 숫자 1000을 그대로 평면화 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외장재와 내장재, 설비의 시공방법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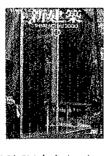
에서도 극히 저예산으로 가능한 것들 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집: 건축과 미술
- ▶ 이번 특집은 현대의 예술활동이 점 차 탈 장르화됨에 따라 건축과 미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각 장르의 상호 영 향이 커져 가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현 대적 상황의 성립요건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건축 과 미술의 관계에 대해 물음을 던져보. 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소개된 글은 오카자키 켄지로와 3인의 좌담회 기록 인 '건축과 미술의 하드코어를 둘러싸 고 와 4편의 에세이 '건축의 예술적 퇴행(테츠조 오오시마)', 'table/ tableau에 관한 단상(마츠우라 히사 오)', '건축과 미술을 묶는 키워드(이 가라시 코지 외4인)', '...혹, 「영화적 인 것」은 건축을 꿈꾸는 것이 가능한 가?(니부야 타카시) 가 게재되었으며. 스즈키 료오지와의 인터뷰 '물질 · 공 극 · 소외 가 함께 소개되었다.

신건축

10월호

이번 호는 신건 🖁 축이 오랜만에 많은 최근작들을 테마별로 묶어 2 개의 특집으로 엮어냈다. 이들 특집의 테마는



'리뉴얼(renewai)의 諸相'과 '오피스 는 어디로 항해 갈 것인가'. 최근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 리모델링과 신건 축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오피스건물 들이 특집으로 묶인 것이다. 그밖에 최 근작들로는 우노 모토무(字野求)와 Phase에소시에이츠의 빌라 후자이 등이 소개되었다.

- ■특집1: 리뉴얼의 여러 양상
- ▶ 건물의 수명을 측정하는 방법들중 에 동시기에 건축한 건물들의 수가 반 으로 줄어들 때 까지의 기간을 지수로 삼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일본의 지수는 미국의 약 1/3. 영국의 약 1/5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나 건축자원의 유효활용, 산업폐기물의 감소 등 환경에 대한 의식의 향상과 부 동산증권화 등의에 의한 경제상황의 변화에 의해 리뉴얼되는 건축은 늘어 가고 있다. 이에 리뉴얼은 설계의 측면 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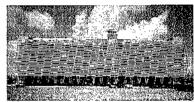


동경대학공학부2호관

- ▶ 이번 특집에서는 내진보강에 관련 된 구조적 측면이나, 省에너지나 고도 정보화정책에 의한 설비적 측면 등의 하드웨어부분 외에도 건축이 갖는 문 화적 측면 등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작. 품의 예들을 열거하고 있다. 소개된 작 품들은 '동경대학공학부2호관', '上京 의 데이케어센터', '미치노쿠 풍토관', 마루노우치 가로의 새로운 상업 파사 드의 프로토타입', '노츠하루(野津原) 다세대교류 플라자'등 5개이며, 논문 으로 鈴木博之의 '수상은 어디에서 사 는가, 그리고 기사로서 1928년 안토 닌레이몬드가 설계한 '이탈리아大使 館夏季別莊改修 등이 소개되었다.
- ■특집2: 오피스는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 일본에서는 1960년대에서70년대 에 걸친 경제성장과 더불어 오피스빌 당의 건설이 진해되었다. 80년대에 들 어서면 오피스에 OA기기가 도입되어 이를 바탕으로 쾌적함을 추구하게 되 었고, 90년대부터 오피스는 그 존재방 식을 새로이 모색하는 시기가 된 것이 다. 이것은 경제상황의 변화, 기업활동 의 재구축, IT기술의 진전, 환경문제, 도시문제 등, 사회의 다양한 국면이 현 대 오피스를 다시 재고하게 만들기 때 문이다. 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창조력을 발휘하는 장으로서 오피스는 어떠해야 하는가, 나아가 기업이념 : 이미지를 내외로 어필하고 있는가, 오 피스가 도시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 가의 물음이 던져진다.





KK베스트셀러즈 본사

▶ 이 특집에 소개된 작품들은 '오피 스는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라는 질 문에 대하여 조직설계사무소와 아뜰리 에에서 제시한 그들의 나이갈 방향이 다. 소개된 작품들로는 니켄세케이(日 建設計)의 'NEC玉川르네상스시티ન' 과 '우메다(梅田)다이빌딩', 오오에 타다츠(大江国)의 '소프트피아 재팬 드림코야', 'informall@detroit', 야 마모토 료오스케(山本良介)아뜰리에 의 'KK베스트셀러즈 본사' 등이 소개 되었다.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함(10월)

(2000, 10, 31, 현재)

																															,	.200	ω.	10.	3 I		*****
	구	분		합	계	서	울	부	산	디	7	인	천	광	주	□	전	윭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강	남	제	주
전	욀말	회원:	수	7.7	01	2,9	94	72	3	5	4 5	2	39	25	56	2	77	15	57	9.	12	18	32	2	11	18	30	2	16	11	18	26	8	33	39	8	4
급		Ę	<u>!</u>	전취	2급	간호사	2급	건호사	2긐	간화사	2골	간화사	2글	긴축사	2급	김축사	2급	간학사	2금	긴축사	2급	건화성	2音	건화(2≓	Ž축/I	2₹	간화	2굨	건축제	2급	微	2급	猕	2급	婚业	2급
喜	ę	월 수	<u> </u>	7,6%6	15	2,590	4	722	1	545	0	239	Q	236	0	276	1	157	0	909	3	182	0	210	1	177	3	215	1	117	1	268	0	336	0	84	0
	입	5	i i	20	0	10 :		١		:		1		3						4						1											
희	재	입충	žΙ	2	C	. : i						:																1						i			
원	전	9	2	11	C	6.		:												3		1												1			
변 동	전	į	- I	-14	C	-6		-1				-1						-?		-1				-1								-2					
사	폐		놜	-13	Ç	-7		-1		-j						-2		-?		-3				-1						İ				-1			
항	사	. 9	y}	-	e											-1																					
	틍	록취성	٤ أ	Ç	į.								į																								
큠	일만	희원	<u>ج</u>	7,686	ĺį	2,933	L	721	1	54	0	239	1	759	0	713	1	:33	Û	312	3	183	0	208	1	178	3	216	1	117	1	266	0	340	0	84	0
		제	-:	7,7	01	2,9	97	72	22	5.	44	23	39	2!	59	2	74	18	53	9	15	18	33	20)9	18	31	2	17	11	18	26	X 6	34	40	8	4

건축시회별 회원현황

2	년축사 호 [합계	서 물	부 산	대구 :	인 천	광주	대 전 <u>:</u>	물 산	경기	강원	충북	춤 남	전 복	전남	겸 복	경남	제주
	건축사	7,687	2,993	721	544	239	259	273	153	912	183	208	178	217	117	266	340	84
호	2급	14	4	1	0	0	0	1	0	3	0	1	3	0	1	0	0	0
원	계:	7,701	2,997	722	544	239	259	274	153	915	183	209	181	217	118	266	340	84
,	비율(%)	100.0	38,9	9.4	7.1	3.1	3,4	3.6	2,0	11,9	2,4	2.7	2,4	2,8	1.5	3.5	4.4	1.1
준	희원	14	5	7	0	0	0	0	0	0	0	1	0	0	0	1	0	0

시무소형태별 회원현황

형태벌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시무소	용역시무소	합 계	비고
회원수	5,225	2,458	18	7,701	
비율(%)	67.8	31.9	0.2	100.0	
. 사무소수	4,730	1,604	15	6,349	
비율(%)	74.5	25.3	0.2	100.0	

통계 statistics

설계도서신고현황

2000년도 10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0월분(99,10) 7백1십4만2천2백24㎡ 보다 12.5%(8십9만2천7백 13) 감소한 6백2십4만9천5백11㎡의 실적을 보임. (97년 10월의 57.4%)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0월 누계 5천2백1십8만9천9백51㎡ 보다 5.7%(2백9십7만20) 증 가한 5천5백1십5만9천9백71㎡의 실적을 보임. (97년 10월의 54.9%)

다. 전월비

전월 9월분(2000.9) 3백9십6만8천1백11㎡ 보다 57.5% (2백2십8만1천4 백) 증가한 6백2십4만9천5백11㎡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				(단위/m²)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증·감	비율(%)
증가자역	부 산	113,423	399,833	286,410	252.5
	인 천	121,495	238,493	116,998	96,3
	대 전	68,315	595,627	527,312	771.9
	경기	1,169,483	1,191,105	21,622	1.8
	충북	130,332	449,610	319,278	245,0
	전 북	81,358	256,969	175,611	215,8
	제주	52,905	99,676	46,771	88.4
감소지역	서음	3,464,679	2,211,581	(1,253,098)	-36.2
	대구	609,200	140,464	(468,736)	-76.9
	광주	507,000	231,131	(275,869)	-54.4
	울 산	73,872	17,403	(56,469)	-76.4
	강 뭔	93,785	31,567	(62,218)	-66.3
	남 총	127,230	67,659	(59,571)	-46.8
	전 남	97,835	63,215	(34,620)	-35,4
	경 븍	127,237	107,032	(20,205)	-15,9
	경 남	304,075	148,146	(155,929)	-51.3
햩	계	7,142,224	6,249,511	(892,713)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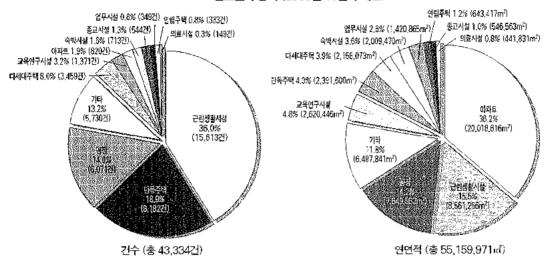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 기준)

(용도)	l		
단 독 주 택		9,596 (8,794 (-8.3%)	
뎌 세 대 주택	18	(54.8%) (0,694	
인 릺 주 택		(2,726 (18.7%)	
아 파 트			1,009,080 (188,4%) 2,910,635
근린생활시설		772,145 765,990 (-0.8%)	2,010,000
종 교 시 설		56,550 30,458 (~46.1%)	
의 료 시 설		22,758 13,50: (-40.7%)	9월분 10월분
교육연구시설	<u> </u>	193,777 254,428 (31,3%)	연면적 합계 / 9월: 3,968,111㎡ (57.5%)
업 부 시 설		105,209 141,187 (34.2%)	10월: 6,249,511㎡
숙 박 시 설	22/2/6	49,624 95,991 (93,4%)	
공 장		622,212 697,977 (12.2%)	
기 타		596,600 697,890 (17.0%)	1
		150만㎡	300Pui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도 10월분)

구분		1999년			2000년	<u>-</u>		대 비		연면적	비교
용도	건 수	수 동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수	동 수	연면적	비율(%)	n(17:
단독주택	811	865	232,555	758	772	228,794	(53)	(93)	(3,761)	-1.6	
다세대주택	210	241	401,948	459	469	290,694	249	228	(111,254)	-27,7	
연립주택	43	46	80,423	31	51	121,966	(12)	5	41,543	51.7	
아 파 트	90	196	3,663,762	81	142	2,910,635	(9)	(54)	(753,127)	-20,6	
근린생활시설	1,494	1,571	858,291	1,602	1,645	765,990	108	74	(92,301)	-10.8	
종 교 시 설	54	56	44,430	41	44	30,458	(13)	(12)	(13,972)	-31.4	
의 료 시 설	21	23	51,301	18	23	13,501	(3)	. 0	(37,800)	-73.7	
교육연구시설	121	122	292,050	108	113	254,428	(13)	(9)	(37,622)	·12,9	
업 무 시 설	45	51_	121,724	34	. 34	141,187	(11)	(17)	19,463	16.0	
숙 박 시 설	66	68	77,059	60	61	95,991	(6)	(7)	18,932	24.6	
공 장	562	683	632,457	612	736	697,977	50	53	65,520	10.4	
기 타	736	865	686,224	498	568	697,890	(238)	(297)	11,666	1.7	
합 계	4.253	4,787	7,142,224	4,302	4,658	6,249,511	49	(129)	(892,713)	-12.5	()=메이너스

용도별 구성비 (2000년 10월 누계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 10월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	연면적	
건축사회		건 수	동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연면적	비율(%)	비고
서	울	814	817	3,464,679	498	500	2,211,581	(316)	(317)	(1,253,098)	-36.2	
부	산	123	211	113,423	365	366	399,833	242	155	286,410	252.5	
대	구	237	237	609,200	241	241	140,464	4	4	(468,736)	-76,9	:
인	천	140	140	121, 49 5	308	308	238,493	168	168	116,998	96.3	
광	주	86	136	507,000	261	315	231,131	175	179	(275,869)	-54.4	
대	전	84	84	68,315	136	136	595,627	52	52	527,312	771,9	:
윭	 산	86	86	73,872	33	33	17,403	(53)	(53)	(56,469)	-76.4	
경	기	1,177	1,382	1,169,483	1,050	1,217	1,191,105	(127)	(165)	21,622	1.8	
강	원	123	149	93,785	107	110	31,567	(16)	(39)	(62,218)	-66,3	
충	북 .	243	268	130,332	213	232	449,610	(30)	(36)	319,278	245.0	
*	남	190	190	127,230	140	140	67,659	(50)	(50)	(59,571)	-46.8	
전	북	165	172	81,358	253	253	256,969	88	81	175,611	215.8	
전	남	134	137	97,835	139	154	63,215	5	17	(34,620)	-35.4	
경 .	북	227	269	127,237	161	194	107,032	(66)	(75)	(20,205)	-15.9	
경	吓	318	380	304,075	272	308	148,146	(46)	(72)	(155,929)	51.3	
제	주	106	129	52,905	125	151	99,676	19	22	46,77 1	88.4	
합	계	4,253	4,787	7,142,224	4,302	4,658	6,249,511	49	(129)	(892,713)	-12.5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 (2000년 10월 누계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고
건축사회	-	건 수	동 수	연명적	건 수	통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비율(%)	
서	울	4,263	4,284	28,139,371	5,263	5,309	20,936,190	1,000	1,025	(7,203,181)	-25.6	
부	산	1,532	2,223	1,400,850	1,889	2,380	2,796,717	357	157	1,395,867	99.6	
대	구	1,649	1,649	1,724,452	1,960	1,960	1,873,801	311	311	149,349	8.7	
인	천	1,128	1,169	2,346,886	2,754	2,754	2,825,542	1,626	1,585	478,656	20.4	
광	주	1,205	1,481	1,406,286	1,199	1,480	959,769	(6)	(1)	(446,517)	-31,8	
대	전	885_	885	541,541	1,517	: 1,516	1,714,769	632	631	1,173,228	216.6	
울	산	919	932	622,566	839	839	568,854	(80)	(93)	(53,712)	-8.6	
경	기	7,759	9,401	7,901,237	11,868	14,148	12,216,051	4,109	4,747	4,314,814	54.6	
강	뭔	1,703	1,877	725,996	1,586	1,709	750,947	(117)	(168)	24,951	3.4	
충	북	2,199	2,500	1,254,231	2,494	2,831	1,968,194	295	331	713,963	56.9	
충	남	1,824	1,824	1,061,172	1,917	1,917	1,097,885	93	93	36,713	3.5	v
전	북	1,271	1,299	775,719	1,623	1,632	1,224,390	352	333	448,671	57.8	
전	남	1,637	1,693	836,941	1,771	1,825	1,088,812	134	132	251,871	30.1	
경	북	1,954	2,271	1,240,732	2,275	2,872	1,624,830	321	601	384,098	31.0	
경	남	2,704	3,158	1,870,560	3,303	3,954	2,869,030	599	796	998,470	53.4	
제	주	842	956	341,411	1,076	1,230	644,190	234	274	302,779	88.7	
합	계	33,474	37,602	52,189,951	43,334	48,356	55,159,971	9,860	10,754	2,970,020	5.7	()=마이너스